



평화의 임금님, 사랑의 왕으로 가장 가난하게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예수님이
“죽음의 그늘 밑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루가 1,79 공동번역)

한 해 동안 쌓백함을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
성탄을 축하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히 내리길 기원합니다.

성탄, 콘라트 폰 조스트, 마트 빌공겐 교구의 교회



표지 설명

인고의 세월이, 신산한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주름진 손등, 굵은 손마디, 뭉툭한 손톱.

삶의 고비마다, 굴곡마다 힘이, 빛이, 희망이, 위
안이 된 손때 절은 낡고 헤진 성경.

그 순박함이, 투박함이, 진지함이 아름답다.

글 | 박종희 이나시오, 사진 | 최경호 요수아(가톨릭사진가회)

특집 : 농촌 사목

- 38 이병호 주교 대담 | 성경 어떻게 대할 것인가? | 편집부
- 54 성경읽기 길라잡이 | 성경, 왜, 어떻게, 무엇을 읽어야 하나 | 박종희
- 59 성서 프로그램 | 성경 읽기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나 | 박종희
- 64 이런 성경 공부-상삼례 성당 | 청소년, 성경을 친구처럼 가깝게, 편안하게, 재미있게 | 한수미
- 70 성경 읽기 체험담 | 수많은 말씀의 힘 체험 통해 모든 것을 당당하게, 기쁘게 | 박혜정
- 74 이럴 땐 이런 성경구절 |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 | 편집부
- 79 나에게 성경은 “ ”이다 | 편집부
- 80 기도의 창 | 성경 읽기 전·후 주님께 드리는 기도 | 성 바오로딸 수도회

배움마당

- 8 스테인드 글라스 여행 | 송천동 성당 | 편집부
- 9 목자의 지팡이 | 불쌍하다 | 이병호 주교
- 18 영성의 샘 |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영성(1) | 김영수 신부
- 25 토막교리 | 주품 · 능품 · 권품천사는 무슨 뜻인가요 | 편집부
- 26 순교자의 숨결 | 이순이 루갈다, 영성체 향한 ‘타는 목마름’ | 편집부
- 31 성경 속의 여인 | 드보라 | 강한 믿음과 용기 앞세워 예언 · 판관 직무 훌륭하게 | 김선태 신부
- 79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 윤애릭 신부 | ‘사랑과 희망의 온도계’ 눈금 올리는 ‘보일러 불꽃’ 같은 삶 이덕자
- 101 교황님이 첫영성체를 한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 김정훈 신부
- 104 대중문화 속 복음읽기 | 영화 <네번째 동방박사>와 시 <동방박사들의 여행> | 서석희 신부
- 121 아름다운 삶의 향기 | ‘사랑짓는 요십이’ 회장 박종구 바드리시오 | 안여진
- 128 심선생의 교회 옛말 산책 | 심연무
- 129 신앙의 밑돌 | 유항검의 교향 초남이 | 최진성
- 136 나무랑 풀이랑 | 산수유나무 | 김계숙
- 137 그때 그시절-공소이야기 | 수류 성당 시목동 · 복호동 공소 | 양선자



나눔마당

- 4 시와 영상이 만나는 자리 | 겨울의 길 위에서 | 윤 클레멘트 신부
- 29 공소에 전해오는 창가 | 성조 아브라함과 이사악 | 김치영
- 90 성지순례기 | 일본 시복식 | 한상갑
- 100 그림묵상 | 가야할 길 | 정광신
- 114 사목일기 |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다 | 이영춘 신부
- 145 수도회 영성 | 인보성체수도회 | 조은아
- 150 젊음이 있는곳에 | 초등사목부 기획팀 | 김계숙
- 155 웃으며 삽시다 | 편집부
- 156 돌려 보고픈 책 | 봉사의 스캔들 | 김동옥
- 158 백합향기는 사랑을 타고 | 편집부
- 174 쌍백합을 읽고 |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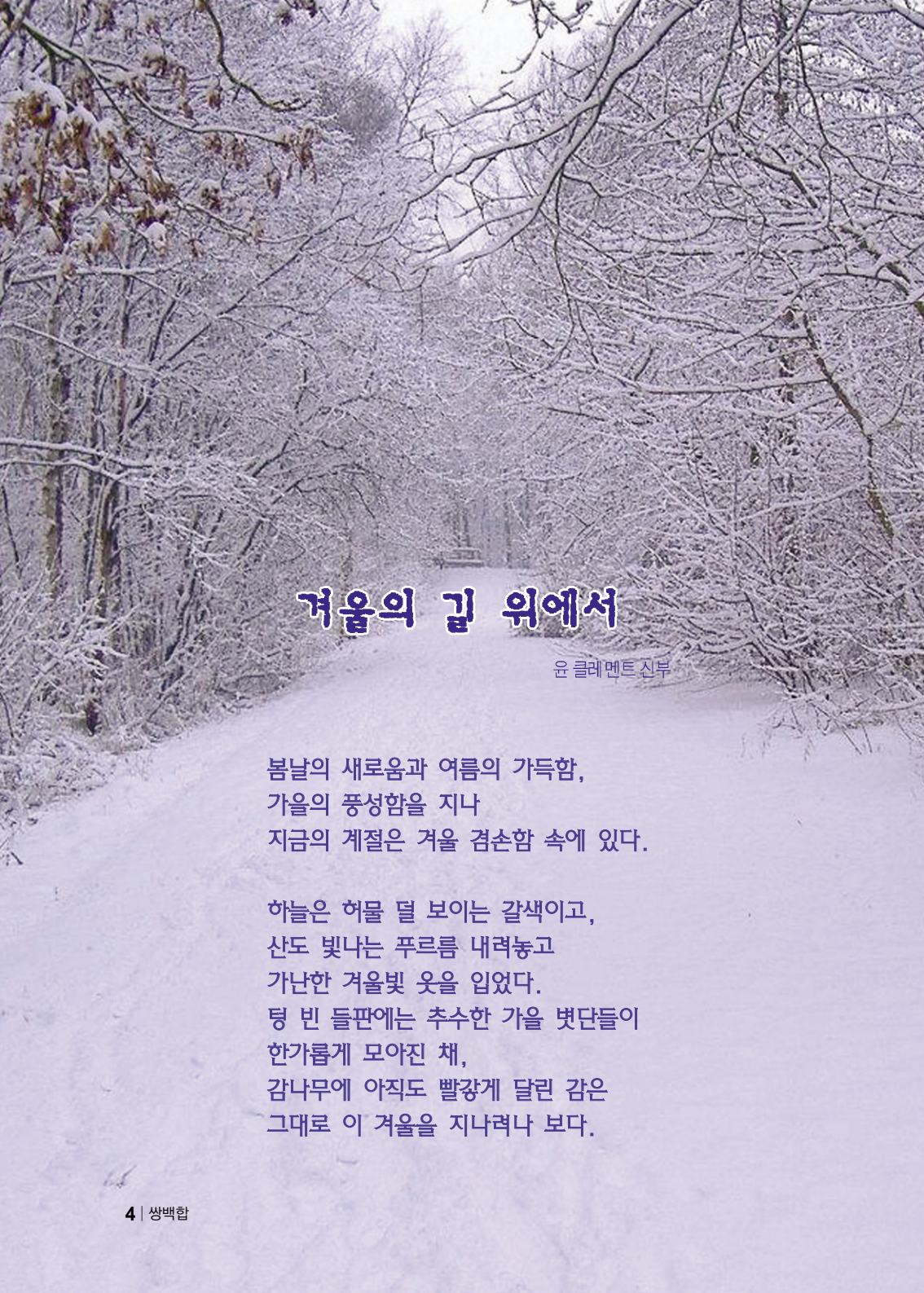
사랑방

- 160 감사와 기도로 항상 기뻐하며 | 정우진
- 162 나에게 그리스도는... | 심 세실리아 수녀
- 164 마음속에 희망의 가치를 품으면 기쁨의 새가 날아와 앉는다 | 박영숙
- 166 나에게 주님은... | 황경자
- 168 나눔이 있어 좋은 친구, 그런 친구를 찾습니다! | 선녀머 종합사회복지관

알림마당

- 6 사진으로 보는 교구소식 | 편집부
- 170 미리보는 교구 계시판 | 편집부
- 172 볼 만한 책 · DVD | 편집부

쌍백합의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
<http://jcatholic.or.kr>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겨울의 길 위에서

윤 클레멘트 진부

봄날의 새로움과 여름의 가득함,
가을의 풍성함을 지나
지금의 계절은 겨울 겸손함 속에 있다.

하늘은 허물 덜 보이는 갈색이고,
산도 빛나는 푸르름 내려놓고
가난한 겨울빛 옷을 입었다.
텅 빈 들판에는 추수한 가을 벼단들이
한가롭게 모아진 채,
감나무에 아직도 빨강게 달린 감은
그대로 이 겨울을 지나려나 보다.

부지런한 농부의 논밭에 뿌려진
겨울보리는 벌써 푸르다.

흘러가는 세월의 강가에서
어느덧 우리 앞에 다가온
겨울 길을 걸어간다.
가슴 속에 다가왔다 사라져 가고,
일상에서 만났다 흩어져 가는
수많은 생의 상념(想念)과 묵상(默想)들이
겨울 길에서는 더욱 은혜롭다.

하늘을 우러르며 길을 가고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언제나 걸어가는 길은 미완성(未完成)인 채 아쉬움이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겨울 길은 더 그리하다.

올해의 눈이 더 쌓이기 전에,
마음 속 후회들을 거두어내고
화해와 새로움의 길을 기도해야 한다.

때때로 마음속에서 이는 고독(孤獨)을 사랑하고
영원(永遠)으로 오시는 분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오시는 분에게 부당한 영혼(靈魂)인 채 기도하면서
평화(平和)와 그리움의 길을 가야 한다.
은총(恩寵)으로 펼쳐지는 이 겨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만경 성당 신축 기공식

지난 11월 29일(주일) 오후 2시에 만경 성당은 사제, 수도자, 신자들과 내외빈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전신축 기공식을 거행했다.



청년성서 도입 10주년 기념미사

교구 청년성서가 도입 1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4일(토) 교구청 4층 강당에서 교구장 이병호 주교님을 모시고 여러 사제와 수도자, 청년들이 함께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고산 도재 공소 복원 신축 축성식

지난 10월 24일(토) 오전 11시부터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 현지에서 교구장 이병호 주교 등 5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재 공소 복원 신축 축성식을 거행했다.



이름다운 순례길 선포식

지난 10월 31일(토) 경기전 앞마당에서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가 참여하는 전통성당-송광사-천호-나바위-미륵사지-초남이를 잇는 '이름다운 순례길 선포식'이 열렸다.



2010년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

교구장 이병호 주교의 2010년도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가 "대희년 10주년을 맞이하며"를 주제로 지난 11월 5일(목) 중앙 성당에서 사제, 수도자, 각 본당 평신도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교구 꾸르실료 도입 40주년 기념미사

교구 꾸르실료 도입 4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1월 14일(토) 오전 10시 교구청 사제관 성당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송천동 성당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영원 불변의 관계이자 만남,
어머니와 그 아들.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구세주를 아들로 잉태한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신비의 관계이자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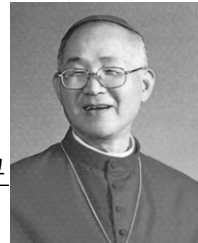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지상으로 내려 온
천상의 왕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어머니 마리아.
그 가슴이 어찌 넓지 않으리
그 눈길이 어찌 사랑스럽지 않으리.
그 손길이 어찌 따뜻하지 않으리.

글 | 박종희 이나시오
사진 | 유백영 가브리엘(가톨릭 사진가회)



목자의 지팡이

불쌍하다



이병 호 빈첸시오 주교
천주교 전주교구장

루가가 깨달은 하느님과 그 아들

I

우리가, 아니, 내가, 하느님 앞에 서게 될 때, 맨 처음 입에서 나올 말은 무엇일까?

상상이 아니라, 성서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분께 달려든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자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가 될 것 같다.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루가 17,13). 나병환자들이 당시의 율법에 따라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예수께 외친 말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먼저 그들에게서 배운 이 말로부터 시작한다. 바오로 사도와 함께 우리 모두는 자신을 돌아볼 때 거기에서 부족과 약점만 찾아낼 수

있을 뿐이고, 무언가 그럴듯한 것이 혹시 거기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느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에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게”(2고린 12,9) 된다.



성녀 소화 데레사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로마 8,3) 쉽게 죄에 떨어지게 된 뒤부터 하느님의 사랑은 자비가 되었고,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는 심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태양보다 더 거센 사랑의 불길로 타오르는 하느님의 마음속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은 흔적도 없이 정화된다. “제가 이 세상의 모든 흉악한 죄를 다 지었다 해도 하느님께 대한 저의 신뢰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비하면 제가 지었다는 그 모든 죄악을 다 모아도 그것은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것임을 저는 잘 아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소화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 산 사람이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한 17,3). 죽음을 바로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2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비 유대인 곧 이방인 출신이었던 루가가 깨달은 하느님도 바로 그런 분이셨다.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소식을 온 인류에게 전할 사명을 의식하고 복음을

졌다.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사실”에 관해서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것”(루가 1, 2-3 참조)을 자료로 했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요리하는 것은 그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근본 진리로 삼았던 것은 하느님의 자비였다. 그가 기록한 복음서는 이 점에서 다른 공관복음서에 비해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의 제자였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 자비의 화신이었던 것이다.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은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는”(요나 4,2) 분이였다. 복음서에 이어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그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란 하느님의 이 측은지심, 그분의 무한한 자비 바로 그것이였다. 이 무한한 자비는 말 그대로 어떤 한계나 경계선도 뛰어넘는 것이였다. 그 경계선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 놓여있던 담이였다.

루가가 깨달은 하느님의 이 끝없는 자비는 그 옛날 요나가 혹독하게 경을 치르고 나서 겨우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잔인하게 억누르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요나의 눈에 저주를 받아 당장 망해버려야 할 땅이였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거기로 가서 현 지인들에게 큰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정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태풍을 만나고 고래 뱃속 갇힌 굴속에서 삼 일 동안이나 숨막혀 죽을 듯한 체험을 하면서, 그야말로 옛 관념에 죽었다가 새로운 깨달음 속으로 살아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하느님 자비의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 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큰 물고기에서 빠져 나오는 요나

아까워 하느냐?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십이만이 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 4,10-11) 아주까리가 자라는 데에 아무 한 일이 없었던 것만큼이나, 니느웨 사람들이 나서 자라는 데에도 아무 한 일이 없는 요나에게는 그들이 다만 철천지원수요 저주의 대상일 뿐이었지만,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모두 당신이 친히 지어내신 작품, 당신이 아끼지 않을 수 없는 자식이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 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 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하셨습니다”(에페 2,14-16). 이런 바오로의 가르침이 루가에게 그대로 전해졌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은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 그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식이었고, 인간의 상식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참된 의미의 혁명을 가지고 와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자기네만 선민이요 하느님 백성이라고 굳게 믿어온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그래 뱃속에 들어가기 전의 요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반대가 아무리 크고 저항이 심해도 산이라도 옮길 듯이 굳건한 바오로의 깨달음을 바꿀 수는 없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에페 3, 3-6 참조) 하는 바오로의 확신은 루가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그래서 복음은 비로소 유다의 경계를 벗어나 온 세계 전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다.

루가가 쓴 복음에서 ‘자비’ 혹은 ‘측은지심’은 하느님이라는 나무의 줄기를 표현하는 말이고, 거기에는 여러 잔가지와 잎이 붙어 있다. ‘은총’, ‘호의’, ‘선하심’, 한 번 맺은 계약은 비록 상대방이 깨뜨리는 일이 있어도 이쪽에서는 끝까지 지키는 ‘충실’ 등,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동사들이 그것들이다. 이 말들은 모두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그 관계는 친구 사이처럼 평등한 것이 아니라, 왕과 노예 사이의 관계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한 쪽으로 거의 무한히 기울어진 것이다. 아내가 자신을 떠나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데도 끝까지 충실했던 호세아 예언자는 그런 관계를 조금이나마 몸으로 체험하였다. 또 엄마와 갓난아기 사이도 그 관계를 희미하게나마 보여준다. 실제로 하느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하나인 히브리어 ‘라함’은 ‘엄마의 가슴’에서 유래한다. 잠시라도 눈을 떼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가냘픈 젖먹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길, 자기 몸의 일부였다가 세상에 나와 자기 몸에서 나오는 젖으로 먹여주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는 생명이 병들어 꺼져갈 때 느끼는 단장의 아픔, 아

기를 향해 온몸과 마음으로 쏠리는 관심과 사랑, 한 마디로 <모성애>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 자비의 가장 가까운 표현이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이사 49,15).

4

예수께서는 어머니가 아기를 다루듯 사람들을 깊은 애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셨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제일 잊혀지고 무시당하는 이들, 보통 사람들이 멀찍이 세워두고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이들을 찾아 그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셨고, 그들을 만지셨으며, 그들 쪽에서도 당신을 만지도록 내버려두셨다. 나병환자를 만지면 레위기(13-14장)에 나와 있는 율법에 따라 부정을 타게 된다는 점을 잘 아시면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그 썩어가는 몸을 손으로 만지셨다. 온 동네



병이 난 아기, 가브리엘 메추(1629-1667)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

에 잘 알려진 죄녀가 와서 당신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입맞추고 머리털로 닦고 할 때, 그 모든 행위를 전혀 막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7,37-38). 하혈병에 걸려 부정한 몸이었던 여인이 당신을 만졌을 때에도(8,44-47) 그대로 두셨으며, 비유까지 추가한다면, 반쯤 죽은 사람에게도 아무 거리낌 없이 손을 대신다(10,34). 그분이 손을 대시면 병은 치유되고 사람은 일어났다. 그분의 자비는 어떤 거리도 뛰어넘어 손이 닿는 거리로 좁혔다. 루가복음은 공관복음에서 공통되는 부분보다 자기 고유 부분이 반을 넘

을 정도로 개성이 강한 복음이다. 이 고유부분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끈질긴 기도, 자기만족과 욕심에 대한 경고, 겸손한 자세로 돌아갈 것, 고통에 짓눌린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을 받아들일 것 등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다. 나인 동네의 과부(7,11-17), 바리사이파 사람 시몬의 집에 들어온 죄녀(7,36-50), 강도의 칼에 찔려 길가에서 신음하고 있다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조를 받은 여행자(10,29-37), 친구의 청을 끝내는 들어주고 마는 사람(11,5-8), 당신 어머니를 칭송하는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11,27-28), 어리석은 부자(12,16-21), 십팔 년 동안이나 병마에 사로잡혀 허리가 굽어져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여자(13,10-16), 여우같은 헤로데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13,31-33), 수종병자(14,1-6), 불쌍한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라는 말씀(14,7-14), 할 일을 다 하고도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는 가르침(17,7-10), 나병환자 열 사람(17,11-19), 억울한 일을 당해 공정한 재판을 호소하는 과부(18,1-



카라바조, 《엘마오에서의 저녁식사》, 1601. 런던, 국립미술관

8),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돌아간 이야기(18,9-14), 잃었던 것을 되찾은 사람의 기쁨(15,1-32), 부자와 거지 라자로(16,19-31), 자캐오(19,1-10), 당신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잠시 동안 제자들이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처지가 될 것을 내다보시며 그들의 그런 처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표현의 하나로, 이제는 칼과 돈주머니를 가져가라는 지시(22,35-38),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를 따라 간 백성과 가슴을 치던 여인들(23,27-31),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24,13-35), 우도(23,39-43). 이 모든 이야기는 루가만이 전해준다.

5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자비(대부분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잘못된 권력자들로부터는 단호한 태도로 그들을 지키는(헤로데에 대한 태도) 주님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이리 떼와 싸우며 양 떼를 돌보는 목자, 자식을 위해 어떤 위험도 무릅쓰는 부모, 특히 목숨 바쳐 갓난아기를 지키는 엄마의 모습을 닮았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모성애를 보는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생각하면 어떤 인간도 실망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들 가운데 우선 하나만이라도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먼저 외우고 온 존재에 스며들 때까지 계속 자기에게 들려주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반드시 새로운 빛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하여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요한 6,63).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이다. 마리아는 그 모든 사람들의 표상이다. 루가만이 전하는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마리아가 보여준 태도를 아주 뜻 깊은 표현으로 전한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루가 2,19; 2,51 참조).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한 가난한 사람인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신앙인의 전형이다. 그분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으로 전해오거나 성서 말씀으로 전해오거나 간에 하느님 말씀이 전해오면 늘 같은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여 오래 간직함으로써, 그것을 안에서 소화하고 당신 것으로 만드셨던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 힘으로 바꿈으로써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들불처럼 퍼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새로운 빛과 힘을 얻는 것은, 모르는 사이에라도,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본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에게는 교육을 시키지 않던 당시의 관습으로 보아 마리아께서는 글자도 모르셨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도 그분이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여 소화시키는 일에서 우리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 되시는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우리가 성서를 하느님 말씀으로 대하고, 그분처럼 한 대목이라도 깊이 새기고 오래 간직하면, 성령의 힘으로 그 참 뜻을 깨닫고 지금 나의 삶에 그것이 주는 빛과 힘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마리아처럼 복된 사람이 된다.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고 소리치는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간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가 11,27-28).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영성(1)



김영수 헨리코 신부
(천호 피정의 집 관장)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배달되는 쌍백합을 열면 마음 한 구석에서 희망의 불빛이 반짝인다.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박하게 펼쳐 있는 쌍백합을 읽노라면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순교자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우리 교구의 삶을 소박하게 엮어나가는 쌍백합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영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감사하고 기쁘다. 교회가 이 시대가 요청하는 표징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건강한 영적 비전으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때, 교회는 순례하는 인류의 여정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현실과 전망

유럽에서 유학생활동을 하던 시절 ‘건물 매각합니다’라는 광고를 붙여놓은

채 문이 닫힌 교회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지내는 4년 동안 세 개의 교회가 팔려나갔다. 첫번째 교회가 몇 개월이 지나 헬스클럽으로 새 단장을 하고 문을 열자 유령의 집처럼 음산하던 그곳에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몸을 가꾸러 오는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두 번째 교회는 제법 큰 교회였는데 그곳은 디스코테크로 변모했고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이면 주말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의 행렬이 문 앞에 꼬리를 물고 서 있었다. 세 번째 교회도 아담하고 운치 있는 가족식당을 겸한 맥줏집으로 변모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스도교 문화의 중심지라 불리는 유럽의 한복판에서 겪었던 이 일은 나에게서는 충격적이었고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했다. 주말이면 축구경기장의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텅 빈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교회는 너무나 무력해 보였고 사람들의 삶의 변두리에 밀려나 있는 듯 초라해 보였다. 새로운 천년기를 맞이하는 유럽 교회의 모습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공의회 이후 교회 안에 밀어닥친 변화마저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한 채 힘겹게 삼천년기를 향한 발걸음을 옮겨 놓고 있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자 대희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징후들을 걱정하면서 ‘교회의 위기’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냉담자들이 급증하고 새로 영세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교회 안에 번져 가는 양극화 현상이나 신자들의 신앙태도에 관한 조사에서 드러나는 ‘위기(危機)’에 대한 걱정스러운 보고들이 계속되었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소개되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가거나 이미 떠나간 신자들을 붙잡기 위한 교육정책들과, 식어가는 신앙심을 되살리려는 필사적인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위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교회내 공동체 의식이 점차 약화돼 신자들간 유대 강화가 요구된다. 사진은 다문화 가족 캠프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신앙의식에 대한 조사연구의 결과를 보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재의 가톨릭교회가 안고 있는 위기의 징후들과 관련하여 교회 내부의 공동체적 유대가 약화되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공동체적 유대의 약화 현상은 동료 신자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는 신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본당 신자들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신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가톨릭 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2000, 가톨릭 신문사)

절반 가량의 신자들은 동료 신자들과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화를 별로 혹은 거의 나누지 않고 있고, 본당 신자들과 형제자매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신자들이 10명 중 거의 4명이나 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동료 신자들과 강한 공동체적 유대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자층과, 교회공동체의 언저리에 머물면서 소극적으로만 참여하는 이들로 신자 집단이 양극화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신자 대부분은 마음에 맞는 소수의 동료 신자들과만 교류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다른 신자들은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곤 한다.

그 결과 본당 안에서 심한 고립감을 느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는 신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신자 10명 중 4명 정도는 한 번쯤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1.5명 정도는 여러 차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로는 '신자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4명은 가톨릭 신자로서 느끼는 가장 큰 부담감으로 '신자답게 살지 못한다는 죄의식'을 들고 있다. 이는 신앙공동체 안에서조차 신자들의 신앙유형이 전반적으로 개인주의화 내지 사사화(私事化)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신앙공동체 안에 진행되고 있는 관계의 균열과 내적 분열 현상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우리 교구설정 70주년을 맞이하며 이루어졌던 '전주교구 신앙실태 조사 보고서'(2008년, Via et Spes 사제모임)를 살펴보면 우리 교구의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교구설정 70주년을 맞이하며 교구는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새 교구청사를 순교자들의 열이 깃든 곳에 마련하여 새로운 역사를 세우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는 외적인 토대만이 아니라 올바른 전망 안에서 시작된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생활이 발전하고 진보하기 위해서는 전망이 있어야 한다. 전망 없는 삶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고립되거나 현실에 급급하여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교구 신자들은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교구의 모습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자 수도 늘어나고 신앙활동도 발전할 것'이란 전망에 44.3%, '신자 수는 줄어도 신앙 활동이 잘 될 것'이란 전망에 11.7%의 신자들이 교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반면, '변화 없이 현상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도 32.5%로 응답했고, 그 밖에 '신자 수의 변동과 상관없이 신앙활동이 저하될 것'이란 전망에도 11.5%의 신자들이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교구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인 전망이 얼마

나 분명한 현실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잘 될 거야...'를 노래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도 딱하거니와 '이젠 안 돼!'라고 포기하는 모습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전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의 영성에 대한 전망을 지니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분석이나 현재의 상태에 대한 판단에 그치지 않고 다가오는 현실을 통합적으로 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희년 이후

21세기를 일컬어 영성의 시대라고 부른다. 현대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20세기야말로 인류의 역사상 영적인 것에 관해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진 시대였고 21세기를 시작한 지금도 그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문을 열며 교황 요한 23세가 힘주어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교회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에 나 오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뉴에이지(신흥유사영성)의 범람



바티칸 공의회 중에 열린 위원회 회의 모습

은 신자들의 신앙마저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마저도 인간의 영적 갈망을 드러내는 표지로서 받아들일 줄 아는 여유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물질주의와 자유주의적 사고에 흔들리는 사회의 틈바구니에서 범람하는 신흥유사영성의 물결의 이면에는 인간의 깊은 영적인 갈망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날 영적인 갈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갈망이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가 그들의 냉담한 침묵과 두려운 눈빛에서 그들 안에 깊숙이 내재하는 영적인 갈망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대희년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현실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을 나누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나와 함께 일했던 한 신부님은 현대 세계의 도도한 변화 앞에서 위기를 걱정하면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꼬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짊어대며 뒷걸음치는 겁 많은 개’에 비유한 적이 있다. 교회가 처한 현실을 두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혹시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의 문을 두드리던 시절의 환상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한때 교회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 많았다. 어려운 시절에는 밀가루를 비롯하여 온갖 구호 물품이 신앙의 동기를 제공했고, 그리스도교 사회로부터 제공되는 고급 문화와 종교적 영향력은 교회가 ‘가진 자’로서 지위를 누리게 했다. 그러나 정작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영적인 갈망에 대한 나눔은 어떠한가?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이 피로써 일구어 놓은 교회의 열매들을 거두어 누리는 동안 우리는 미래의 교회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일에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교회는 오랫동안 인간의 영적 갈망에 응답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 왔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삶의 길을 소중하게 지켜왔다. 인간이 지닌 영적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드러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닌 영적보화의 진가를 재발견하고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이들에게 나누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청하는 우리의 영적 과제이다. 마치 상품처럼 소개되고, 전파되고 있는 신흥유사영성의 한계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구성

원들이 참된 영성을 식별하는 영적 능력을 키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만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된 영적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성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만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하게 된다.

2010년은 대희년을 선포하고 새로운 천년기를 맞이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새로운 시대에,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교회가 지닌 영적 전통의 가치와 영성의 깊이를 찾아내어 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신앙생활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본질적 노력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청하는 가장 절실한 영적인 과제다. <다음 호에 계속>

미사 감사송 중 주품천사, 능품천사,
권품천사, 세라핌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요?

인간 세상에 왕이 있고 장관이 있고 그 밖의 직위들이 있듯이 하늘나라 천사들에게도 신학자들이 계급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나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3급 9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급(上級)은 치품천사 세라핌(Seraphim), 지품천사 케루빔(Cherubim), 좌품천사 트로니(Throni)이고, 중급(中級)은 권품천사 도미나시오네스(Dominationes), 능품천사 프린시파투스(Principatus), 역품천사 포테스타테스(Potestates)이며, 하급(下級)은 주품천사 비르투테스(Virtutes), 대천사 아르크안젤리(Archangeli), 천사 안젤리(Angeli)입니다.

실제로 천사의 세계에 가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인간을 보호하고 하느님을 돕는 존재들이므로 마치 한 나라에 각 부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뿐입니다. 천사들을 총망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중에서



이순이 루갈다, 영성체 향한 ‘타는 목마름’

그녀(이순이 루갈다)가 열네 살 되던 봄은 주 신부(주문모)가 최인길의 집에 계시어, 그해 부활 대축일을 지내기 위하여 필답으로 모든 교우들에게 고해 성사를 주던 그때였다.

어머니와 오빠를 따라 집에서 멀지 않은 최인길의 집으로 가서 주 신부께 고해 성사를 처음 받게 되었다.

거기 모인 여러 어른들이 루갈다를 보고 “너는 고해는 했지만은 아직 영성체는 못하리라”고 하였다. 루갈다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여지며 “왜 저는 성체를 못 영합니까?”하고 반문하였다. “너는 아직 교리를 잘 모를 뿐 아니라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 다음에 문답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나이도 몇 살 더 먹은 다음에 영성체를 할 수 있다”고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턱턱히 모르고 나이도 어리니까 단념하려고도 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슨 큰 보배를 받으려다가 못 받게 된 섭섭함과, 열네 살이란 나이의 제한으로 깊이 사모하고 사랑해 오던 주님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못한다는 규칙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중략)

집으로 돌아온 루갈다는 제 방문을 굳게 닫고 나흘 동안 음식을 전폐하듯 하고, 피정을 하면서 기도와 눈물로 보냈다.

그 어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어디 몸이 불편한가 걱정하였다. 사랑스러운 딸이 오늘까지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의심도 났다.

그는 아들 정도와 의논한 끝에 루갈다의 방으로 들어와서 “너 무슨 일로 나홀이나 음식을 전폐하고 운단 말이나? 어디 몸이 아프냐?” 하고 물었다.

루갈다는 그때야 정색을 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어머니, 왜 저는 영성체를 못한답니까?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교리도 아직 덜 배웠고 나이도 어리니 이 다음에 영성체를 하라고 그래요.” 그 어머니는 그제야 딸의 사정을 알게 되었지만은 무어라고 시원하게 대답할 수는 없었다.

사실 교리에 깊은 지식이 없고, 또 성체는 지극히 큰 성사이며 가장 중대한 일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볼 수 있는 딸로서는 당연히 영성체를 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하였다.

나이 너무 어리다고 영성체 거절 당하자 나홀이나 식음 전폐한 끝에 관철시켜

루갈다는 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 저 주 신부님한테 말씀드려 보겠어요.”

“무어라고?”

“이렇게도 성체를 영하고 싶은데 왜 못 영하는지요.”

“야야, 어른들이 어련히 알고 그러시겠느냐? 명년에 영하기로 하려무나.”

“안 됩니다. 어머니! 내일 모레가 부활 대축일인데, 이번에 꼭 성체를 영하여야겠어요.”(중략)

정도는 (주문모 신부에게) 인사를 하고 붓을 들어 종이에 루갈다의 사정을 대강 써 보였다.

주 신부는 그 글을 보시고 웃으시면서 종이에다 루갈다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쓰신다.(중략)

단정하고도 예모 있는 태도로 주 신부 앞에 앉은 루갈다의 얼굴에는 조금 피곤한 빛이 서리면서도 명랑하고도 총명한 눈가에는 가느다란 웃음이 물결치는 듯하였다.

주 신부는 루갈다를 쳐다보자 고해소에서 본 기억이 있다는 표정으로 반가이 인사를 받고 죄인길을 통역으로 하여 성체 도리를 물어 보기 시작한다.

“루갈다, 성체는 무엇입니까?”

“밀떡과 포도주 형상 안에 우리 주 예수 참으로 계시는 성사입니다.”

“웁소. 참으로 면병과 포도주 형상 속에 우리 주 예수 계시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계시고 싶으시면 계십니다.”

“예, 웁소. 성체를 영하면 당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주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신부는 너무나 기뻐서 “웁소! 웁소!” 소리를 연방 하시면서

“당신 몇 살이요?”

“열네 살입니다.”

“예, 열네 살? 조금 이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성체 할 수 있소. 예수님은 어린 사람 많이 사랑하십니다. 어린 사람 마음 깨끗합니다. 모레 부활 주일 미사에 영성체 하시오.” 하고 허락하였다.

루갈다는 너무나 기뻐다. 눈물이 쏟아지도록 기뻐다. 고개를 숙이고 “신부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섰다.

〈김구정 ‘피묻은 쌍백합’ 중에서〉



공소에 전해 오는 창가

성조 아브라함과 이사악

1. 성조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개옴소서 꿈에서 모리아 산에
이사악을 제헌하라 주명하시니
승복하라 나는 주의 사신이라.

2. 주여 대령하오니 내 아들 위에
당신 전능 더 크니 순종하리라.
아니 주의 명이시라 순종하리라.
아니 주의 명이시라 순종하리라.

3. 주 명도 크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랑스런 이사악을 어이 죽일래
아예부터 주님 말씀 듣지 말아라.
처음부터 주님 말씀 기억 말아라.

4. 주 명도 크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랑스런 외아들을 버림을 생각하니
하늘 무너지고 땅은 깨지고
신앙 깊은 성조도 눈물 흘리네.

5. 경애하올 아버지여 무엇하세요.
오 천진스런 이사악 지금 왔느냐?

무슨 큰일 있나요. 주님 명령에
모리아 산 화재를 제헌하라고.

6. 오 주의 명이시니 준비하오리라.
내 아들을 화재할 나무와 기름
주섬주섬 찾아서 예비했지만
맺히인 슬픔은 풀리지 않는다.

7. 이사악을 앞세우고 가는 아브라함
사랑의 제헌 같이 마음 찢으나
자기를 희생하고 순명하시니
만세가 성조를 축복하리라.

8. 처량스런 외아들을 앞세우고
갈래갈래 풀리는 구슬품에는
신앙 깊은 성조도 흐르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으라 어이 구슬퍼

9. 경애하올 아버지여 나의 왕이여
나무와 기름은 여기 있지만
주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요.
주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요.

10. 공포와 구슬픔에 쫓리인 심장
떨리는 손으로써 나뭇가지 써며
어여쁜 이사악도 같이 거드네.
주여 내 손으로 저를 묶으리까?

11. 주께서 명하시는 순명의 희생
원만히 이루도록 용맹주소서.
어여쁜 이사악의 손발 묶어서
제단에 올리고 슬픈 눈물 낸다.

12. 주께 받은 내 아들 마지막 사랑
나의 모든 강복을 원만히 받아
사랑의 주님 품에 고이 가거라.
마지막 이별을 주님 뜻으로 알고

13. 오 주여 이 칼로 다만 하나인
이사악의 목숨을 끊으오리까.
아니 주의명이시라칼로치리라.
말지어다말지어다아브라함말지어다.

14. 신성하다 순명의 평화함이며
만세의 금옥은 비최지리니
사랑의 승리깃발 무궁세토록
천주의 섭리를 축복하오리라.

*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 가시울타리에
양한 마리가 있을 터이니
대신 제사 지내도록 하여라.



- 위 노래는 64년 전 성심소학교
마당에서 살트르 바오로 수녀님들이
성탄 때 신자들에게 보여준 성극 노
래입니다.

제공 : 김치영 아나다시아(서신동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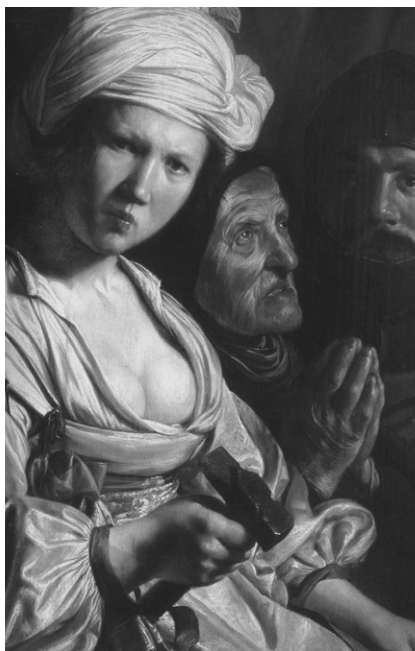
강한 믿음과 용기 앞세워 예언 · 판관직무 훌륭하게



김선태 사도요한 신부
(화산동 성당 주임)

구약성경의 판관기는 이스라엘의 초창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곧 이스라엘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판관기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들을 액면 그대로 전해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일정한 역사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 곧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계획’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판관기의 한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왕들은 판관들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이 외세에 의해 공격을 받고 식민통치를 당하던 어려운 상황에서 해방자와 구원자로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데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판관기가 제시하고 있는 각 판관들의 이야기는 ‘죄(배신)→징계→회개→구원’이라는 도식적인 구조를 순환적으로 반복한다. 이스라엘의 죄는



살로몬 드 브레이(1597-1664)
아엘, 드보라, 그리고 바락
위트레흐트(네덜란드),
세인트 캐서린 수도원 미술관

야훼 하느님께 대한 배신이였다. 그들은 하느님을 잊고 바알 종교에 빠지거나 우상숭배를 하는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판관 2,11). 그리하여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 진노하시어 벌을 내리신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 버리시고 약탈당하게 하셨다. 또한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곤경에 빠졌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

라엘은 하느님을 잊고 살아온 시간들을 참회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에 “주님께서서는 판관들을 세우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다”(판관 2,16).

여예언자이며 여판관인 드보라



판관기는 열두 판관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드보라는 예언직과 판관의 직무를 수행한 유일한 여자였다. “그때에는 라피돗의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판관이였다. 그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라마와 베텔 사이에 있는 ‘드보라 야자나무’ 밑에 앉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관을 받으려 그에게 올라가곤 하였다”(판관 4,4-5). 드보라는 남자들에 버금가는 용기 있는 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집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군대와 맞서 싸우게 했던 여예언자였다. 한 여성이 정치, 군사, 종교 등의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 백성을 다스렸던 일은 당시의 사회에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유다인 역사가 레빈슨(Pnina Nav Levinson)은 드보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드보라에게는 누구보다도 강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를 신뢰하고 믿었다. 곧 드보라는 주님의 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를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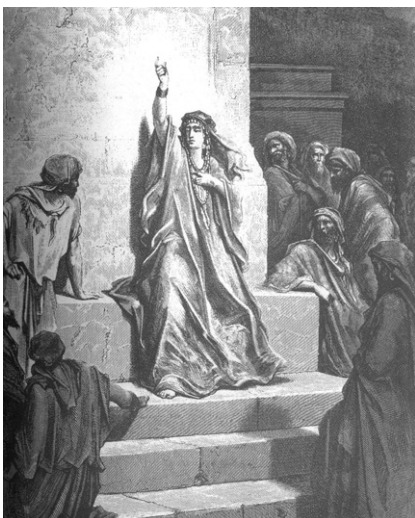
그런데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전장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역할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바락 장수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할 책임을 맡기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바락 장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었다(4,6-7). 그런데 바락 장수는 드보라의 강한 모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약한 모습을 드러낸다. 드보라가 가나안의 철로 된 병거를 맞서 싸우라고 요구하자, 바락 장수는 겁에 질린 채 그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께서 함께 가시면 저도 가겠지만,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4,8). 이런 소심한 응답에 대해 드보라는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의식하며 겁에 질려 있는 바락에게 대범하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반드시 그대와 함께 가겠소. 그러나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그대에게 영예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팔아넘기실 것이요”(판관 4,9).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에 든 낡은 무기로 병거와 기마와 철로 무장한 가나안의 막강한 군대를 쳐 이긴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 앞에 서서 나가시고, 가나안의 장수 시스라와 그 군대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다. 이렇게 하느님께

서는 당신 백성과 계약을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비록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나약함으로 부패되어 하느님을 버리고 낯선 이방신들을 섬길지라도,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또한 당신의 희망을 두셨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웃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신다.

드보라를 위시한 판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와 구원자로서 하느님의 이름과 명령으로 행동했

다. 그들은 하느님의 철저한 도구였다. 따라서 그들은 죄를 지어 외세에 의해 수탈과 억압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수렁에서 건져냈다.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다는 승전가(판관 5장)는 히브리 성서의 가장 오래된 문헌 가운데 하나이다. “임금들이아, 들어라. 군주들이아, 귀를 기울여라. 나 주님께 노래하리라. 내가 노래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노래 부르리라. … 임금들이 모여 와 싸웠네. 그때에 므기또의 물가 타아낙에서 가나안 임금들이 싸웠네. 그러나 은 노획물은 얻지 못하였네. 하늘에서는 별들도 싸웠네. 자기들의 궤도에서 시스라와 싸웠네. 키손천이 그들을 휩쓸어 가 버렸네. 태고의 개천, 키손천이. — 내 영혼아, 힘차게 나아가라. — 그때에 말발굽들이 땅을 찾네. 치닫고 치닫는 군마들의 발굽이. … 주님, 당신의 원수들은 모두 이렇게 망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
구스타프 도레 작



유다인의 여성 시인들과 여성 신학자들은 판관 드보라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그렇다. 특히 여성이 과연 랍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제기되면 더욱 그렇다. 랍비는 간혹 사람들을 서로 중재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유다인의 관례에 따르면, 증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법을 다룰 수 있었고, 전통적으로 오직 남자들만이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아울러 예배를 거행하는 직무에서도 여성은 제외되었다. 이런 유다교를 이룬바 변화시키고 개혁하려는 사람들은 드보라의 모범에 의지하여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레빈슨은 드보라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힌 여성의 ‘전형’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과 인류의 많은 지도자들은 드보라와는 정반대로 자기 자신들을 모든 사물과 사건들의 척도로 여기려는 유혹에 빠졌다. 그러나 판관기는 이와는 다른 기준, 곧 신학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곧 이 세상의 권한은 모두 어떤 절대적 권한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여받은 권한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백성을 진심으로 섬겨야지, 반대로 백성들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깊이 해당되는 말이다. 예컨대 기업가, 법률가, 언론가, 학자, 선생, 성직자 등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판관 5,7)로 부르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적 사건들과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하느님께서 서 계신다. 인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만드시려는 하느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



바락을 도와 가나안족을 물리친 여판관 드보라

는 것이다. 그분만이, 오직 그분만이 지도자, 심판관, 해방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맡겨주실 수 있다. 지도자와 심판관과 해방자 등이 거두는 성공은 그들 자신의 의지나 능력, 노력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해방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느님의 의지와 권능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드보라는

이렇게 노래한다. “임금들아, 들어라. 군주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주님께 노래하리라. 내가 노래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노래 부르리라”(판관 5,3). 드보라의 이 노래는 권력자나 지도자를 향해 경고하고 있다. 곧 자기 자신들이 하느님에게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부정하는 모든 권력자들에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일정한 책임을 짊어져야 함을 부정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하느님만이 권한과 능력을 주실 수 있다! 지도자들이 하느님께 가까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들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다.

특집-성경, 읽고 배우자

성경은 인간의 삶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
성경은 우리를 신앙인으로 다시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토양이며, 우리를 성장시켜 영적 열매를 맺는 뿌리와 줄기 역할을 한다.

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대희년 10주년을 맞이하며”라는 2010년도 사목교서에서 “이 세상을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느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고 성서사도직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쌍백합’은 ‘성경, 읽고 배우고, 느끼고, 실천하자’는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 특집을 꾸민다.

그 첫번째로 이번 호에서는 ‘성경, 읽고 배우자’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38 | 이병호 주교 대담 | 성경, 어떻게 대할 것인가? | 편집부

54 | 성경읽기 길라잡이 | 성경, 왜, 어떻게, 무엇을 읽어야 하나 | 박종희

59 | 성서 프로그램 | 성경 읽기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나 | 박종희

64 | 이런 성경 공부-상삼례 성당 | 청소년, 성경을 친구처럼 가깝게, 편안하게, 재미있게 | 한수미

70 | 성경읽기 체험담 | 수많은 말씀의 힘, 체험 통해 모든 것을 당당하게, 기쁘게 | 박혜정

74 | 이럴 땐 이런 성경구절 |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 | 편집부

79 | 나에게 성경은 “ ”이다 | 편집부

80 | 기도의 창 | 성경읽기 전·후에 드리는 기도문 | 성 바오로딸 수도회

■ 이병호 주교 대담

성경, 어떻게 대할 것인가?

푸른 하늘빛을 담은 맑은 햇살과 넓은 창 너머 앞산의 늦가을 정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내려다보이는 교구청 주교님 집무실. 생각보다 넓지 않고 소박한 이곳에서 ‘성경, 읽고 배우고 느끼고 실천하자’는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 꾸미는 특집의 첫 장을 여는 대담이 주간 신부님과 부주간 수녀님의 배석 하에 이루어졌다.

주교님과의 특별한 말씀을 듣기 위해 참석한 편집위원들은 고민 끝에 준비한 질문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긴장해 있었으나, 미소년같은 주교님의 환한 웃음으로 경직된 분위기가 풀렸다.

▲ **이덕자 안젤라(편집장)** 쌍백합은 앞으로 일 년 동안의 특집을 주교님의 사목교서 중 성서사도직과 전례 활성화로 정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특집을 시작하며 그 첫 번째로 주교님과 대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바른 성서 읽기와 성서를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 **주교님** 우선 대담이라고 하는 것, 일종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참된 의미에서 대화가 되면 그것이 인생에서 큰 희열이고, 기쁨이고, 자기발견이고, 자기성취고, 성장입니다. 대화 속에 온갖 것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도 그것이 실제로 남는 것은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잘 들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한 마디라도 자기 속에 썩하게 울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성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모국어입니다. 신앙인은 입을 열면 모국



어가 나와야지 외국어가 나오면 안 돼요. 하느님 말씀이 들어가야 모국어
가 되는 것입니다.

▲ **박종희 이나시오** 주교님께서 이번 사목교서에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루가 2,19)라는 구절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리아의 태도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교님** 이 문제는 교부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제2차 바티칸 세계 주교회의(시노드)의 선언문에서도 채택되었지만,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할 때마다 항상 마리아가 모델입니다. 2008년 시노드에서 제가 발표한 발표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인용했어요. 바티칸에서 우송되어 온 작업 문서 중 “따라서 마리아는 자기 마음을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는 책의 도서관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총무처에 제출한 다음날 발표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도서관이란 말이 영 걸리는 거예요. ‘마리아’ 하고 ‘도서관’ 하고 나란히 놓으면 도대체 안 어울려요. 이것 참 서양적인

표현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지적 접근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라 마리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도서관이 생각난 거예요. 서양이 지성적이라고 한다면 동양은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더 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발표할 때는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자기 마음을 하느님 말씀의 도서관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온 존재를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토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자기 온 존재를 머리뿐만 아니라 감성, 지성 할 것 없이 하느님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아들여서 싹 틔우게 한 ‘좋은 토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마르코 복음 4장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로 연결되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린 것에 비할 수 있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낱알이 맺힌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 줄을 알고 곧 낫을 댄다.”(마르 4,26-29 참조)

땅에 씨를 뿌리면 뿌린 사람은 뿌려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그냥 땅 자체의 힘, 위에서 오는 햇빛 자연 자체의 힘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루가 11,27) 글자 그대로 하자면 당신을 배고 있었던 그 배, 요즘 말로 하자면 ‘자궁’, 낳아서 먹여 기른 젖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도 사실은 땅에 씨를 뿌린 것과 똑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여인은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가 쓴 말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여인이 씨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 말씀이라는 씨를 들었다는 말에 구조적으로는 똑같은 것이고, ‘지킨다’는 말은 그것을 ‘실천한다’는 말이 아니라 잘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육체적으로 잉태했다가 낳아서 길렀다고 해서 내 어머니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서 오래 간직하고 그래서 그 자체의 논리로 성장하게 했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이 말의 뜻은 내 어머니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말을 내 어머니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하느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다는 의미로 확장된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낫 놓고 기역자도 몰랐을 것이 확실해요. 왜냐면 그때는 여자가 글을 배우는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들은 것,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구전으로 들려주었던 것이 전부였지요.

파스카 축제 같은 것도 가정 단위로 지켰고, 전례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아이가 하고, 아버지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식으로, 옛날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시편으로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포도주를 마시며 밤을 새워 축제를 즐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성서를 대할 수 없었던 마리아가 성서를 대하



는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느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마리아한테 배우는 것이 기본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떠나면, 공부는 많이 했고 성서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하느님 말씀은 모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열려있는 마음이 중요해요.

성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사제 양성에서의 하느님 말씀’이라는 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다락방에서 열 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서를 깨닫게 하 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당신을 증언할 수 있게 해 주셨다. 또 성서는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 그 신비를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마태 11,25 참조) 라는 말씀이 있죠.

또 아기 예수 데레사의 글 한 토막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영혼들에게는 복잡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날 아침 감사 기도를 바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에

게 ‘아가’에 나오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함께 당신의 향기로운 냄새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아가 1,4 참조) 그런데 이 ‘아가’서의 이 내용은 그 당시에 번역이 서툰 것이었어요. 저도 번역을 하면서 이 내용이 글에 맞춘 시역이라고 했어요. 거의 오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도 좋은 쪽으로 보자면 “하느님은 구부러진 선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잖아요.” 또 프랑스 격언에 “보이는 나무마다 그것으로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좋은 쪽으로 자기가 해석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느님 말씀을 더 잘 느낄 수 있지요.



▲ **이덕자 안젤라** 주교님께서서는 사목교서에서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로운”(히브 4,12)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느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주교님** 그 뜻은 그 뒤를 읽어보면 알게 되죠.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 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

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피조물 치고 하느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히브 4,12-13). 여기까지 가면 그 의미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쌍날칼은 수술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술칼은 우선 구분을 해서 성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썩은 부분은 발라내잖아요. 글자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도 있잖아요. 하느님 말씀이 어떤 때는 찌르르하고, 찡하고, 찢리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를 도려내는지 구분해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안 찌르면 죽으니까. 정말로 외워보면 가장 확실해요. 자꾸 외우면 여러 가지로 깊이 들어가 의미가 밝혀지고 뜻이 분명해지죠.

예전에 너무나 불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딱해서 내가 시편 22장을 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살려 달라 울부짖는 소리 들리지도 않사옵니까? 나의 하느님, 온종일 불러 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르는 체하십니까?……”(시편 22) 이 말씀을 외우고부터 그 절망적인 어려움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로워 고치지 못할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 **심연무 아우구스티노** 삶의 방향과 의미를 잃고 그러저럭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방향과 빛을 찾고 새 삶을 얻는 것을 보시면서 사목자로서의 소명과 감격을 다시 찾고 큰 보람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주교님 개인적으로도 성서 말씀을 통해 빛을 찾으신 체험이 있으신지요? 주교님의 성서 체험을 듣고 싶습니다.

- **주교님** 맨 처음 외웠던 것은 루가 복음 ‘탕자의 비유’입니다. 내 마음 속에 뭔가 늘 석연치 않은 것이 남아 있어 도저히 청산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외우니까 그게 봄눈같이 사라지더라고요. 성서 봉독도 미끄러지듯이 줄줄 읽지 말고 한 마디 한 마디가 처음에 들려오는 것같이, 처음 맞이하는 것같이 읽어야 돼요. 한 마디 한 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뜻이 살리는 것이 아니예요. ‘잃은 양의 비유’와 ‘은전 한 닢’은 뜻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은 다 달라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충격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 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루가 15, 12-13). 이 부분은 제가 또박또박 읽은 것처럼 한 마디 한 마디 또박 또박 읽어야 해요. 칼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중인데 잘못했다가는 심장을 찔러서 살리려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재산’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희랍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찾아 보았어요. 아버지 입에서 나온 ‘재산’은 *bios*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에도 생계라는 말이 있듯이, 가솔들의 생명을 유지해주기 위해 써야 하는

재산이에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재산’은 ousia로 통화라는 말로, 뭐든지 바꿔줄 수 있는 교환가치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었다”(루가 15,20). 바로 ‘측은한 생각이 들어’ 이것이 하느님 자비예요. 우리말에도 가슴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는 뜻에서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간을 끌어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느님이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사막 길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중에 우리의 삶을 실제로 비춰주고 힘을 주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말씀이 나한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시편 23장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파아란 풀밭에 이 몸 눕어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 주시니, 내 몸 싱싱하게 생기 돌아라.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인도하셨어라.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향기름 이 머리에 발라 주시니 내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외다.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리니, 오래오래 주





님 궁에서 살으오리다.”(시편 23 최민순 신부 역)

어떤 골짜기를 만나도 하느님 말씀이 함께하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이런 언어가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찾기까지는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얻지 못해요.



▲ **허 남 프란치스카** 주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성서를 암송하라고 강조하시며 실제로 많은 성서 구절을 외우시는데 암송하면 뭐가 좋은가요?



- **주교님** 성서는 기본적으로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2고린 3,6)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

인 것이며 생명이다.”(요한 6,63)라고 했잖아요. 소가 풀을 먹을 땐 처음에는 맛을 느끼지 못하지만 되새김질을 해 씹다보면 맛도 나고 에너지로 변화되듯이, 말씀도 외워서 곹씹으면 영을 받아 에너지로 변화되어 영적 힘을 발휘합니다. 구체적으로 나한테 답답한 일이 있어 읽다 보면 성서 어느 대목이나 깊이 받아들이면 그 문제를 비춰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마디라도 외워놓은 것이 있으면 자는 동안 흥시감이 밤새도록 잘 익어

서 아침에 일어나면 접시에 잘 놓여있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발전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 **안여진 목사**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성서 읽기 프로그램을 보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간혹 성서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괜찮은지요?

- **주교님** 그것이 소박한 사람들이 성서를 대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권위 있게 훑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나눌 때는 그냥 듣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 엉뚱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교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잘못된 곳으로 쏠려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럿이 할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성서 읽기는 나눔까지 가야 해요. 어떤 체면같은 것도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면 깊이 나누어야 해요. 성서 전문가들이 소박한 교우들하고 말씀 나누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꽂히는가, 이 사람들이 캄캄한 밤중을 헤매다가, 절망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빛을 찾아내는가를 보고 오히려 깜짝 놀라잖아요.

저도 소박한 교우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같이 말씀을 나누다보면 ‘성서가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신앙체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소박한 교우들하고 나누는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신앙을 생생하게 해주는지, 그 덕분에 제가 삽니다. 신앙생활은 때로 자기는 구원할 수 없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진리를 다시 발견하곤 합니다.

▲ **김계숙 요안나** 성서를 통독하겠다고 큰 맘 먹고 시작을 해도 구약의 몇 편만 읽다가 그만두고 다시 읽을 때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앞부분만 읽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교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성서 읽기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 **주교님** 2000년 대회년을 기해서 1994년 대회년 특별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신자들이 대회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위원회에서 부탁을 해 <그리스도,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면서 고속도로 같은 것을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그 책만 정확하게 읽어 보면 큰 줄거리가 정확하니까 성서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도표를 만들었어요. 그걸 보가면서 빨간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등뼈에 해당하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기본 줄거리가 마음 속에 살아 있어서 아주 쉬워요. 성서의 기본 줄거리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실현이다.”이에요. “천상의 양식이 그림자의 끝을 주었다.”라는 말처럼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그림자가 끝난 실체입니다. 주일 미사 때마다 1독서는 구약, 복음은 신약이니 그렇게만 생각해서 읽어보세요. 도표는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 책을 읽어 보세요. 그것이 성서를 읽는 지도예요.



▲ **조은아 베로니카** 주교님의 삶에 영향을 끼친 책은 어떤 책이었나요?

- **주교님** 내가 어렸을 때 제일 감동을 받았던 첫 번째 책이 리지외의 <성녀 소화 테레사 자서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읽었는데 얼마나

특집-성경, 읽고 배우자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신학교 들어가서도 여러 해 동안 피정 때만 되면 읽었고, 불란서 말을 배웠던 것도 사실은 그 책을 원어로 읽고 싶어서였으며,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읽은 것이 그 책이었어요. 얼마 전에 로마에 가서는 이분이 쓴 글 전체를 모아놓은 <데레사 전집>이 나와서 사가지고 왔는데, 전집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을 엮은 별도의 책인 <데레사와 성서>라는 책을 보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데레사 성녀는 14세 때 가르멜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24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관상 수도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한가한 것이 아니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밖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바빠요. 성서 읽을 시간이 훨씬 없어요. 하루에 한 시간 내기가 어려웠어요. 거기에 수련자 담당이어서 시간 내기가 더 힘들었어요. 나중에 죽기 직전에 휠체어를 타면서 그때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동료 수녀들이 자선의 마음으로 하도 많이 들락거리는 통에 방해를 받았대요. 그래도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기도시간에 성서를 읽었대요. 별로 없는 시간에 그것을 쪼개서 큰 축일이 되면 연극도 하고 대본도 더러 쓰고 그랬나 봐요. 그럴 때 데레사가 성서 여기저기서 외웠던 구절이나 상본으로 써놓았던 것을 한 마디도 버리지 않고 모은 것을 창세기

부터 묵시록까지 순서대로 엮어 놓은 것이 <데레사와 성서>예요. 이걸 보면서 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느꼈어요.



신학교 2학년 때 성서를 한 번도 읽지 않고 사제생활을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어느 날, 상상 속에서 (어떤 꼬마가 성서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하고 나에게 묻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옆에 있지도 않는데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니 다 못 읽었는데...) 머리를 굽적굽적 하면서 그 꼬마한테 대답해놓고, 사제생활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당장에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영어로 된 성서를 구입해서 그 방학에 다 읽게 되었는데, 그때 성서를 통해 팡 치는 인생체험을 전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가 모두 신자였고 박해시대까지 거슬러가는 5대째 교우 집안이라서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 신앙을 물려받은 신자인데..., 성서를 읽으니까 신앙의 강물 속에 폭 빠지지도 못하고 저만큼 떨어져 살다가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앙의 강물 속에 폭 잠긴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신앙의 거대한 강이 흘러서 나까지 왔는데 나는 구경꾼으로 있다가 비로소 강물에 폭 잠긴 것 같은 느낌...

또 인생을 다시 볼 만큼 충격과 함께 영향을 끼친 책이 중학교 1학년

때 읽은 <준주성범>이었어요. 이제까지 학교를 일부러 빼먹은 것은 그때 밖에 없어요. 새벽에 읽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머니께 학교에 가는 길로 눈도장을 찍어놓고 집 뒤로 가 쌓아놓은 짚단에 구멍을 내서 그 속에서 하루 종일 그것만 읽고 읽었어요. 그런데 데레사도 어렸을 때 마음에 콕 꽂히는 것이 <준주성범>이었대요. 고모집에 놀러 가면 첫 부분이 무엇무엇이라고 시작하면 그 뒤를 줄줄 다 외웠대요. 13살 때 너무 어린 나이로 수도회에서 안 받아 주니까 교황님 앞에서 <준주성범>을 외웠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서를 발견하고 나서 깜짝 놀랐대요. 그때는 구약에서 신약까지를 읽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구약에 고약한 것도 많다고 해서 나이가 서른 몇 살 된 뒤에 읽으라고 했고, 더군다나 수녀원에서는 수녀원장하고 도서관 책임자하고 수련장하고만 읽을 수 있었으니까 그랬지요. 주로 신약 성서를 가지고 그것을 조그맣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제본을 해서 가슴에 넣고 다녔어요. 가슴에 새기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가슴에 물리적으로 품고 다니기도 하였어요.

▲ **한수미 프란치스카** 선포되는 말씀은 귀로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사 때 봉독되는 성경 말씀을 함께 눈으로 따라 읽는 것이 더 좋은지,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더 좋은지 헷갈립니다.

- **주교님** 전례 때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읽는 훈련을 잘 시켜서 그걸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읽는 것은 성서를 1차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서하고 관련된 대목마다 정말 잘 준비해서 읽으면 볼 필요 없어요. 잘 들으면 장면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렇게 하면 읽는 것보다 종합적이고 살아 있어요.

▲ **양선자 아녜스** 주교님께서 주교 착좌식 때 성구를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마르 14,36)” 라고 정하셨는데, 사제서품 받으실 때 선택하신 성구는 무엇이며, 택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 **주교님** 주교 착좌식 때 그 성구를 택한 이유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느님 뜻이 앞에 가게 하려는 의미로,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게 되려는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사제서품 때가 훨씬 감격적이죠. 사제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비장한 각오, 신분의 변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제서품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내가 무슨 사제가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꺾어진 갈대나 심지만 남아서 꺾이기 직전인 등불도 상관없이 그것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꺾박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 버리지 아니하며”(이사 42,3)를 선택했습니다.

▲ **이덕자 안젤라** 긴 시간 자상하게 말씀해 주신 주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쌍백합 특집을 ‘성경, 읽고 배우자’로 정하면서 저희는 읽는다는 것의 의미를 성경을 접해서 통독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교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한 마디 한 마디를 처음 맞이하는 것처럼 또박또박 가슴에 새기며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 | 양선자 아녜스
사진 | 유백영 가브리엘

■ 성경 읽기 길라잡이

성경, 왜, 어떻게, 무엇을 읽어야 하나

그리스도인에게 마음과 영혼의 양식인 성경은 신·구약 합해 3천여 페이지에 가까워 그 방대한 양에 먼저 압도 당해 선뜻 읽기가 쉽지 않다.

또한 정작 읽기에 나서도 그 뜻을 모르거나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나머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쌍백합’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 성경이 무엇이며, 왜 읽어야 하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교구 사목국에서 펴낸 ‘성서 백주간 소개와 체험담 모음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하나?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써 구원받기 위함이다.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곧 그리스도와 같다. 성경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
- 성경은 교리의 원천, 성정보다 더 소중하고 빛나는 교리서는 없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이다.
-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성경을 읽고), 우리의 말을 전하면서(기도를 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
- 신앙과 생활은 별개가 아니다. 생활의 기준을 성경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
-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성경을 어떻게 읽나?

성경은 하느님의 감도 아래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하느님의 말씀이며, '항상 살아 있고 힘이 있는 말씀(히브 4,12)'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다.

읽는 순서는 성경을 편집한 순서를 존중하여 대개 그대로 읽어 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체험 기록이므로 그 지방의 풍습이나 문화와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순서를 바꾸어 읽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성경 전부를 읽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훈련이 되어 말씀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해 오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 하느님 계시의 발전과 흐름을 성경 전부를 통해 파악하게 된다. 평소 강론 시간이나 공부 때에 듣는 유명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찮게 여겨지는 대목도 전부 꽤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는 일종의 마라톤 같은 성경 읽기이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통독할 뿐인데도 놀랄 만큼 성경 전체의 흐름이나 하느님의 구원계획의 실현 등을 헤아리게 된다.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성경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정성어린 자세로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 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읽는다.
- 읽다가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은 표시해 둔다.
- 여러 개 중 가장 와 닿는 구절은 반복하여 읽은 후 그 이유를 묵상해보고 노트에 기록해 둔다.

- 와 닿는 구절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를 정성들여 두세 번 읽기를 반복한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 하느님 말씀 자체가 생명의 심오함을 지니고 있다. 존경하는 마음과 경건한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한다.(비치 장소, 취급 등)
- 먼저,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의 확신과 성경이 주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성경은 하느님에게서 온 ‘사랑의 편지’ 이므로 하느님과 마주하여 사랑의 대화를 나누듯이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으면서 삶의 지표를 삼도록 한다.
- 성경을 읽을 장소와 시간을 별도로 마련한다. 시간이 있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 하루 생활 중 가장 소중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한다. 심신이 피곤하지 않고 번거롭지 않을 때가 좋으며, 외부의 방해나 분심을 떨쳐 버리고 맑은 정신으로 읽어야 한다.
- 한꺼번에 많이 읽으려고 애쓰지 말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읽고(성경의 삶으로 동화되는 출발점), 그 말씀을 조금씩이나마 실천하도록 힘써야 한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는?

독서 전

- 잠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를 드린다.
- 사랑과 믿음과 존경심을 마음에 깔고 시작한다.
- 창조주 앞에 자신을 직시하여(무식한 사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한다.

독서 중

- 큰 소리로 읽는다. 자신의 음성을 들으며 읽을 때,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
- 주의 깊게, 건성으로 말고 마음을 모아 천천히 한 구절씩 읽는다.
- 반복해서 읽는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은 밑줄을 치고 외우는 것도 유익하다.
-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는다.(말마디나 표면적 뜻에만 집착하면 참 뜻을 잘못 파악하게 되는 수가 많다.)
- 진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 꾸준한 인내심으로 노력한다.(남모르는 기쁨도 얻게 된다)

독서 후

- 읽기가 끝나면 즉시 일어나지 말고, 다시 한 번 말씀을 상기하면서 생활 속에 반영할 것을 결심하고 도우심을 청한다.
- 가족이 함께 독서한 끝에는 잠시 묵상한 다음, 서로 느낀 바를 나누고, 이어서 기도를 하거나 성가를 부르며 끝내는 것이 좋다.

성경 읽기의 유의사항은?

- 성경은 과학서나 역사서가 아니라 신앙공동체 안에 살아 있던 ‘신앙 고백문’으로서, 역사적 배경을 깔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자 쓴 거룩한 경전이다.
- 인간적 지식이나 고정 관념, 일정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 성경이 전하려는 진리, 곧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접근하려면 성경이 태어난 산실(토양)을 잘 알아야 한다.
- 오래 전에, 오늘의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네 표현방식으로 쓴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다.
- 저술 당시의 ‘삶의 자리’(정치, 경제, 사회, 문화, 풍습, 종교)와 저자의 사고방식, 종교심성, 의도, 사용한 언어, 표현방법 등을 함께 알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으며, 고대 근동 역사에 관한 지식도 조금은 필요하다.
- 오늘날 과학시대의 관점에서 알아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
- 성경은 그 방대한 양과 종류에도 한 분이신 하느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독해야만 각 책이나 부분의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 부분 독서나 편독에 머물지 말고 성경 각권과 신·구약 전체를 완독해야 한다.
-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리 | 박종희 이나시오

■ 성경 프로그램

성경 읽기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나

성경 말씀을 머리와 가슴 속에 받아들여 삶과 신앙 속에 녹아들게 하기 위해선 우선 읽는 것이 먼저다.

‘성경은 우리가 읽는 책이지만 우리를 읽는 책이기도 하다’는 말처럼 읽다보면 알아듣기 시작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심오함이 가슴에 다가온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자주, 되도록이면 날마다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이를 실천하기란 만만치 않음을 또한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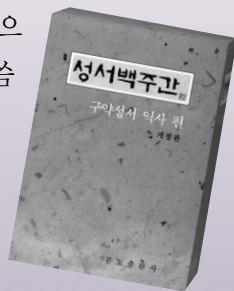
그래서 성경을 읽되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올바르게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쌍백합은 성경 읽기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교구내 성경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성서 백주간〉

성서 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성서를 기도 중에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읽는 것이다.

즉 신·구약 성서 전부를 읽고 묵상하고 생활화하는 성서 공부 방법으로 73권의 성서를 차례로 121주에 걸쳐 다 읽을 수 있도록 매주 범위를 정해 놓고 주 1회 반별로



모여 묵상하고 서로 느낌과 체험을 나누는 성서 모임이다.

전주교구는 2005년도 교구장 사목교서에서 ‘성서 백주간’을 성서묵상과 나누기의 기본 방향으로 채택, 현재 송천동·용머리·모현동·나운동·시기동·연지동 성당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거룩한 독서〉

거룩한 독서는 성경을 잘 읽고 그 의미를 묵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독서 방법이다.

전통적이고 일반적 방법은 네 가지 단계로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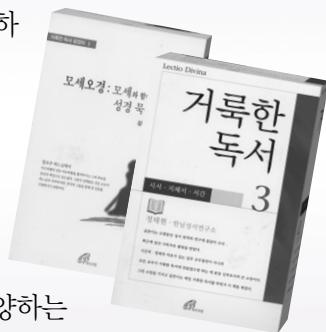
- (1) 독서 : 성경 본문을 정독하는 단계이다.
- (2) 묵상 :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단계이다.
- (3) 기도 : 말씀 안에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단계이다.

- (4) 관상 : 하느님과 영적으로 일치하는 단계이다.

이를 바탕으로 말씀 서로 나누기와 자유기도 등을 덧붙이면 그 효과가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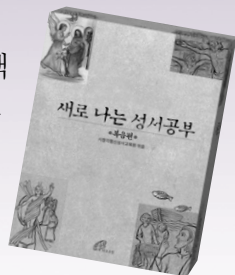
교재로는 우리 교구 정태현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의 ‘거룩한 독서’(바오로딸 발간)와 김정훈 신부(전주가톨릭신학원 교수)의 ‘거룩한 독서 길잡이’(바오로딸 발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현재 봉동·금암·삼천동·효자동·문정·평화동·부송동·송학동·월명동·시기동·고창 성당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새로 나는 성서공부〉

‘새로 나는 성서공부’는 하느님 말씀인 희망의 책 성서를 조금씩 읽고 배우고 그림에 색칠을 해가며 특히 하느님께 친숙하고 재미있게 접근하여 주님의 사랑을 지상의 삶에서 맛보게 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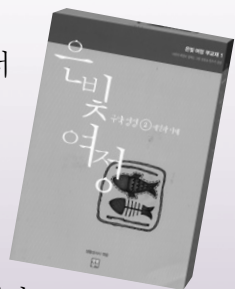
구성을 보면 본문읽기와 내용의 이해를 돕는 도움말, 나눔을 이끄는 글, 실천사항, 복습 공부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금암·호성동·삼천동·화산동·서신동·용머리·평화동·노송동·동산·송천·송학동·함열·황등·월명동·팔마·나운2동·조촌동·지곡·수류 성당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은빛 여정〉

‘은빛 여정’은 생활성서사의 어르신들을 위한 성서 읽기 교재이다.

성서 각 권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며 입문서 구실을 하는 ‘들어가기에 앞서’와 ‘둘러보기’란을 마련, 사진과 지도·도표 등을 이용해 이해를 돕고 있다.



성서의 주요 대목을 함께 읽은 후 그 내용을 자세히 음미할 수 있는 ‘이끔말’과 질문을 통해 서로 느낀 점을 나눌 수 있는 ‘나눔마당’, 주요 인물과 용어 등을 설명하는 ‘함께 배워봅시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신동과 둔율동 성당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여정〉

‘여정’은 생활성서사의 성서 읽기 교재로 광대한 분량의 신·구약 성서 각 권에서 봉독 부분을 발췌한 것이 특징이다.

또 주어진 각 ‘마당’이 끝날 때마다 잠깐 쉬면서 주된 메시지를 되새기고 생활과 연결짓도록 하기 위해 ‘잠깐 생각해봅시다’라는 묵상란을 두었으며, 읽고 느낀 바를 함께 나누는 데 도움을 주는 ‘함께 나눠 봅시다’란과 본문의 주요 내용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배움을 유도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교구에서는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본당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년성서〉

우리 교구내 젊은이들이 성서를 더 자주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보다 능동적으로 접하고 자신의 삶을 성화시키고 이웃에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의 봉사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당, 대학, 직장에서 모인 3-4명이 소그룹을 지어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복음 읽기, 기도, 묵상, 나눔으로 이뤄진다.

그룹 나눔을 마치면 매년 3회에 걸쳐 연수가 있고 연수를 마치면 말씀의 봉사자로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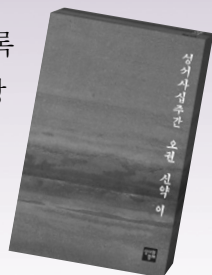
현재 전주·익산·군산 지구 등 16군데 성당에서 이뤄지고 있고, 53차에 걸쳐 2천 명 가까이 연수를 마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서 40주간〉

신·구약 성서 전체를 40주간에 걸쳐 읽을 수 있도록 안내서에 매일 읽을 분량을 제시하고, 읽은 내용을 묵상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이끈다.

매주 한 차례씩 모여 성서 이해를 돕는 강의를 듣고 성서를 통해 얻은 느낌이나 생활 체험을 나눈다.

현재 어양동, 시기동 성당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시청각 통신성서 교육〉

성바오로딸 수도회가 운영하는 시청각 통신 성서 교육원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수단인 인터넷과 우편을 통하여 어디서나 쉽고 체계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교파를 초월,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적절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과정은 신구약 입문과정, 신구약 중급과정, 성바오로신학 영성 과정으로 구성된다.

공부방법은 해당 성경 본문과 교재를 읽고 문제집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평가자의 평가와 보충설명을 통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 이런 성경 공부-상삼례 성당

청소년, 성경을 친구처럼 가깝게, 편안하게, 재미있게

성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당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공부가 이뤄지고 있다.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시골 본당에서 도시 본당까지 그 계층도 다양하다. 농촌의 소도읍으로 청소년들이 많지 않고 함께 모이기도 여의치 않지만 성경공부가 진행되고 있고, 특이하게도 어르신용으로 그림에 색칠하는 <새로 나는 성경공부>를 교재로 쓰고 있어 눈길을 끄는 상삼례 성당을 취재하였다.

상삼례 성당(주임=김준호 십자가바로로 신부)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어른들을 위한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중고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편집위원들은 이틀간 신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미사에 참례하고 성경공부로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성서대학 수료자에 교황님 축복증서 ‘영예’

성서공부의 자료를 준비하고 모든 봉사를 도맡아 하고 있는 이상섭 비오 성서교실 교장을 만나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을 들어보았다.

상삼례 성당에서 성경공부가 시작된 것은 2006년 8월 김준호 신부님께서 부임하신 후부터이다. 2007년 2월 삼례, 봉동 지역 신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3월에 148명의 입학생으로 개강한 성서대학은 그해 6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3년째 이르고 있다. 그동안 구약

과 신약을 끝내고 지금은 마르코 복음을 읽고 있는 중이다. 2008년 2월에는 수료자 중 20명 정도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으며 2009년에는 수료자 중 78가족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으로부터 가족 축복증서를 받았다.

그동안 상삼례 성당 신자들은 성경공부에 대해서 목마름이 컸다고 한다. 김준호 신부님이 부임하신 후 성경공부를 시작하고, 30명 정도였던 평일미사 신자 수가 보통 100명을 넘긴다고 한다.

성경 읽고부터 평일미사 신자 3배나 늘어

저녁 미사 후 성서교실에 함께 참석하였다. 날씨가 궂어서인지 3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평소 성서교실에 나오는 인원의 절반 정도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좋은 선택을 하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힘든 일상에서도 하느님의 가치대로 살고, 깨어 기다리는 모습이 등불을 켜고 신량을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성경공부가 끝나고, 공부를 하게 된 후에 달라진 점이 있는지 신자들에게 물었다. 안옥희 실비아 자매는 성경을 읽으려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되었고, 구역별로 성서 이어쓰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고순희 테레사 자매는 많이 기뻐하면서 살게 되었고, 가족에게도 화를 절제하게 되고 사랑으로 대하며 살고 있단다. 강신일 야곱 형제는 하느님 말씀을 살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감사와 기쁜 마음이 생기니까 사람들에게도 웃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래 많이 아팠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이겨 낼 수 있는 신앙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김준호 신부님께서 한 사람을 지적하셨다.

특집-성경, 읽고 배우자



“나락 말리다 오신 이치구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의 말씀을 들어보아야 합니다.”(전체 웃음)

“매일 미사 때 말씀을 듣고 넘어가는 걸로 끝났는데, 성경공부하면서는 하느님 진리를 배우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애쓰지만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남보다 애쓰는 게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나면 성경을 구다보게(읽게) 됐어요. 미사 때도 복음 말씀이 더 귀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성지순례에 다녀왔다는 강신준 빈첸시오 형제의 말을 들어보았다.

“성지순례에 가서 예수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성경 읽을 때는 이해 못했던 부분과 관습들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더 재미나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성경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색칠하는 성경공부 책으로 흥미 유발

다음날 토요일, 중·고등부의 성경공부를 취재하기 위해 다시 찾았다. 고등부 담당 교사 고순희 데레사 자매와 중등부 담당 유기현 그레고리오 형제, 그리고 박주현 안토니오(고1)와 강미나 소피아(중2)를 만났다. 데레사 자매에게 중·고등부 성경공부를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는데

지 물어보았다.

“2008년에 <새로 나는 성경공부>로 시작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아이들 교리 공부로 성경을 쉽게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서 아이들 성경 프로그램 교재로 어떤 게 좋겠냐고 물으셨을 때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제가 덕진 성당에서 어르신 성서 강의를 할 때 접했는데 교재가 쉽고 부담 없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아이들도 어렵지 않아서 부담 없어 하고,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밌어 합니다.”

그레고리오 형제도 한 마디 거들었다. “전 대학생인데, 전에는 이런 교리를 잘 배우지 못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어요. 복음 말씀을 미사 때 듣기만 하지 잘 몰랐는데 교리교사 연수 받으면서 제가 확실히 공부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고등부 성경공부는 6시 미사 후에 바로 시작하는데, 먼저 성경을 같이 읽고, 설명하고, 다시 같이 읽는 순으로 진행한다. 구약은 재미난 이야기가 많아 학생들이 좋아하는단다. 옛날이야기 들려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진행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색칠을 하고, 색칠한 것은 스스로 액자도 만들어서 전시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신약을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딱딱하니까 일상생활과 연관시켜서 가르친다.

학생들에게도 소감을 직접 들어보았다. 박주현 안토니오는 처음에는 몰라서 하기 싫었는데 성경공부를 해 보니, 관련 있는 이야기도 많아 재미있고 신앙생활도 즐거워지고 많은 도움이 되어 좋다고 한다. 평소보다 조금 빨리 나와서 성경을 읽게 된 것이 변화라고 했다. 강미나 소피아도 처음에 그냥 멋모르고 시작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계속 하니까 이제는 신부님 강론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귀 기울여 듣

게 된다고 말하며 눈을 반짝인다.

학생들은 색칠을 하니까 교리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고, 복습이 되며, 내용을 잊어버려도 그림을 보면 기억이 난다고 한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여름에는 도보 성지순례를 2박 3일간 다녀왔다.

“성경공부하던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을 포함한 30여 명이 낙오자 한 명 없이 무사히 도보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여산성지→천호성지→퇴재공소→백석공소의 코스를 하루에 30km씩 걸으면서 성지 곳곳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치면서 미사를 드릴 때, 순례를 하면서 마음에 남는 것을 조별로 봉헌하라고 했더니 백지를 봉헌한 팀, 가시관 만들어서 봉헌한 팀, 흔한 돌처럼 자신들의 믿음도 많아졌음을 바라면서 돌을 봉헌한 팀, 거둬담을 생각하면서 매미 허물 벗은 것을 봉헌한 팀, 순교자의 피를 생각하면서 사루비아꽃을 봉헌한 팀 등 참 다양하고 그 생각이 기특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는 친밀감도 커지고, 저희들끼리도 뿌듯해했어요. 아이들이 설렁설렁 듣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공부 후 성당다니는 게 재미있어

성경공부를 한 후에 달라진 점을 물었다. 안토니오는 성경공부를 하게 된 뒤부터 친구들과 다투면 먼저 사과하게 되었고, 성당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졌으며, 성당 다니는 것이 재미있어졌다고 하고, 소피아는 집에 가서 할머니께 성경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아하신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달라졌지만 성당 전체로도 미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었고, 기타 동아리도 생겼다고 한다. 토, 일요일에 한두 시간씩 연습하고, 미사 때 반주

를 한다면서 기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배우는 게 많고 자신에 대해서도 자부심도 많이 생겼으며 전교 효과도 있다고 자랑이 한창이다.

테레사 자매는 중·고등부에 성경공부가 없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받아들일까 걱정하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고 좋아해서 좋다면서 다른 성당도 이 공부를 꼭 했으면 싶다고 한다.

“하느님 말씀을 꿈나무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 보람이 큼니다. 어른들께 하는 것과는 다른 보람입니다. 마음에 씨앗을 뿌려 줄 수 있다는 것과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큰 기쁨입니다.”

취재 과정에 함께하셨던 김준호 신부님께서는 다른 본당도 다 하는 것을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 하시면서, “청소년들에게 성경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사회 여건이 그렇지 못하죠. 중고등부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보았는데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새로 나는 성경공부>를 해 보니 의외로 성과가 좋았고, 여타의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래도 말씀이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놓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조용한 시골 본당에서 청소년들이 소리 없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조그만 물방울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조용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힘차게 내닫는 삼삼례 성당. 긴 시간 취재를 하고 밤에 돌아오는데도, 마음이 흐뜻하기만 하였다.

취재 | 한수미 프란치스카

사진 | 최경호 요수아(가톨릭 사진가회)

수많은 말씀의 힘, 체험 통해 모든 것을 당당하게, 기쁘게



박혜정 수산나(평화동 성당)

알렐루야!

우리 평화동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한 지 어언 5년이 지났다. 1차는 2005년에 시작하여 2007년에 마쳤다. 그리고 지금 사목하시는 문규현 바오로 신부님이 오시어 다시 시작하였다. 두 번째 하는 ‘거룩한 독서’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수는 처음보다 적지만 이미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단맛을 경험했던 신자들이 이 여정길에 동참하여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5년째가 되니 ‘거룩한 독서’를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며 매우 행복해 하는데 혼자 읽기보다 여럿이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다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행복감은 어디에 비길 수가 없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삶을 나누니 친밀감이 더욱 깊어진다.

나는 은혜스럽게도 20여 년 전부터 성서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체험한 후에 내게 찾아 온 첫 선물은 아주 심각한 영적 갈증이었다. 얼마나 갈증을 느꼈던지 내 목을 손으로 잡고 “아이고, 하느님 제 갈증 좀 채워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

밤낮으로 말씀 외우고 암송

그러자 “성서 40주간, 베소라 성서, 성서그룹, 성서교육(신학원), 거룩한 독서, 성서 통독모임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 말씀 안에 살도록 은총을 주셨다. 정말 크신 은총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 말씀을 접했을 때부터 외우고 묵상하기를 밤낮으로 했고 내 일상 안에서 말씀이 삶의 전부였다.

그 무렵 집이 협소해서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런데 집이 ‘흉가, 재수 없는 집’으로 싼 값에 내놓았어도 아무도 이사를 오지 않는 집이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고, 사흘 만에 집에 불이 났는데 설상가상으로 주인 여자가 부도를 내서 도망다니는 처지였는데 이러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런저런 것 따질 것도 없이 “하느님께서 이 집을 다스리시는데 뭐가 무서우랴”하는 생각으로 이사를 왔다. 몇 달 후 여동생을 데리고 있게 되었는데, 불치병(간질)을 앓고 있던 터여서 돌봐줘야 했다. 그런데 여동생이 1987년 6월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우리 집 화장실에서 갑자기 죽었다. 동생의 주검을 본 순간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여라. 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야훼를 찬양하리라”는 구절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이다. 이 구절은 그 무렵 밤낮으로 외우고 묵상했

던 말씀이었다.

“그래,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다만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이러한 깨달음이 내 뇌리를 스치면서 성서말씀을 외쳤던 것이다.

말씀에 신뢰두면 두려움·공포 저멀리

29살에 이 세상을 하직한 여동생은 죽기 며칠 전에 “언니, 왜 우리 집에서 나한테만 이런 병을 주시어 결혼도 못하게 하는가 하고 하느님을 원망했는데 이제 알았어. 하느님은 내가 우리 집에서 십자가를 질 만하니까 나한테 주신 거야.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 이제 마음이 편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된 것이다. 세상 마칠 때까지 몸, 마음 고생을 극심하게 했던 동생이 그렇게 갔다.

그 후 9월까지 몇 달간 우리 집에 무서움이 덮쳤다.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아이들이 낮에도 화장실에 못 가고 밤에는 제 이모가 있던 방 근처는 아예 얼씬도 못했고, 이제 막 세례받은 남편조차 밤이면 너무 무서워 술을 마시고는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했다. 무서움(공포)은 안 당해 본 사람은 정말 모른다. 나 역시 처음으로 당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벼랑 끝에 내몰려서 한 발짝만 잘못 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았다.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내가 해 오던 성경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낮이고 밤이고 이 집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우리 식구들은 거실에 다 모여서 잠을 자곤 하였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오후 이층 거실에서 걸레질을 하는데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니, 그냥 멈추어 서서 이 야훼가 승전하는 것을 구

경만 하여라. 유다야,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내 일 너희는 마주 쳐 나가거라. 야훼가 너희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2역 대 20,17 공동번역). 이 구절을 계속 외웠는데,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말씀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싸움은 하느님의 싸움이니 너는 멈춰서 구경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들의 싸움이니까 인간인 나는 감히 이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내가 무서워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말씀에 신뢰를 두고 하느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고 어둠의 세력이 전혀 무섭지 않았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서서히 무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히브 4,12 공동번역). 정말 말씀은 살아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곤경에서 구해주시다.

말씀 체험을 수 없이 많이 하면서 현실 안에서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지 모른다.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이 집은 참 평화로워!”하고 말한다. 나는 “이 집은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편안해요.”라고 말한다. 주님의 놀라우신 업적이다.

“복되여라.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시편 1,2 공동번역)

■ 이럴 땐 이런 성경 구절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경 안에서 전개되는 이야기, 역사, 시, 노래, 사건 등 모든 것을 통해 하느님은 자애로운 권고, 교훈, 격려, 위안은 물론 따끔한 질책, 충고 등 '살아 있고 힘이 있는 말씀' (히브 4,12)으로 삶과 신앙의 길을 안내해 준다.

두터운 성경 어디에든지 좋은 말씀이 넘쳐나고 있으며, 특별히 가슴에 와 닿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러나 외롭고 지치고 힘이 들어 위로와 평안, 희망을 얻고 싶을 때, 기쁘고 즐거워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싶을 때, 어디서 읽은 기억은 있으나 생각이 나지 않아 적절한 구절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겪는다.

이에 쌍백합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성경 구절을 쉽게 찾아 그때그때 활용, 마음의 평안과 안정, 힘과 용기,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럴 땐 이런 성경 구절'을 신는다.

패배했을 때

로마 8,31-39 / 마태 5,4 / 2코린 1,3-4 / 1코린 13

시편 27,1-6 / 시편 91편 / 필리 4,19 / 시편 32,8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 날 때

마태 8,26 / 히브 11장 / 시편 121편 / 마태 6,25-34

시편 42,5 / 시편 46편 / 마태 6,16-3
필리 4,6 / 1베드 5,6-7

친구가 실망케 할 때

시편 41,9-13 / 루카 17,3-4
로마 12,14-17-19-21 / 2티모 4,16-18

유혹 당할 때

시편 1편 / 시편 139,23-24 / 마태 26,41
1코린 10,12-14 / 필리 4,8 / 야고 4,7
2베드 2,9 / 2베드 3,17 / 로마 12

기원하고 싶을 때

시편 4편 / 시편 42편 / 루카 11,2-13
요한 17 / 1요한 5,14-15

감사 할 때

시편 100편 / 1테살 5,18 / 히브 13,15

외로울 때

시편 23편 / 히브 13,5-6 / 여행 할 때
시편 121편 / 시편 121편 / 마태 10,16-20

어려운 일 당할 때

시편 16편 / 시편 31편 / 요한 14,1-4
히브 7,25 / 시편 34,4 / 마태 10,28
2티모 1,7 / 히브 13,5-6 / 필리 4,4-7
시편 38편 / 마태 26,39 / 로마 5,3-5
2코린 12,9-10 / 2베드 4,12-13-19 / 시편 51편
마태 26,39 / 로마 5,3-5 / 2코린 12,9-10
1베드 4,12-13-19 / 마태 5,4 / 요한 14장
2코린 1,3-4 / 1테살 4,13-18 / 시편 6편
로마 8,31-39 / 1요한 1,4-9 / 시편 18,1-3
시편 34,7 / 시편 91편 / 시편 118, 5-6
루카 8,22-25 / 요한 14,1-4 / 요한 16,33
로마 5,1-5 / 필리 4,6-7

피곤할 때

시편 90편 / 마태 11,28-30 / 1코린 15,58
갈라 6,9-10

나에게 성경은 “ ”이다 왜냐하면 “ ”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 ‘성경’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은 무엇일까?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겠지만, 성경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적절히 표현하고 압축하고 음미하는 것은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쌍백합 편집실에서는 짧지만 강한 느낌과 여운을 주고 삶과 신앙의 좌표로도 삼을 수 있는, 성경을 비유하는 표현을 기다립니다.

아래에 예시된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내준 내용은 내년 봄호에 게재,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하면 성경에 대한 새롭고 색다른 느낌과 생각을 갖게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형식 : 나에게 성경은 “ ”이다. 왜냐하면 “ ”이기 때문이다.

■ 보낼 곳 : ssbh114@hanmail.net

(우편 560-110,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쌍백합 편집실)

■ 기간 : 2010년 2월 10일까지

■ 예시

1) 나에게 성경은 “신호등”이다.

왜냐하면 “삶과 신앙이 건너야 할 곳과 멈출 곳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2) 나에게 성경은 “별꿀”이다.

왜냐하면 “음미할수록 달콤함을 주기” 때문이다.

성서를 읽기 전 · 후 주님께 드리는 기도



〈읽기 전〉 성서를 읽으면 당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되을 수 있는 맑은 지성과
매일 욕심 없이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분명한 의지와
누구라도 이웃으로 받아들여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부드럽고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마음으로 교환해주십시오.
그러면 살아 계신 당신을 만났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읽은 후〉 주님, 당신은 우리를 샅샅이 다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당신의 신비에 대해, 우리의 신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또한 이에 대해
진실하게 말할 수 없음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부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간 내면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당신이 하시듯이 사랑과 연민으로
우리 존재의 깊은 곳까지 모두 보게 해주십시오. 진실한 눈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것과 불투명한 것, 당신을 반대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연유되는
자비의 빛 속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과 함께 세세에 영원히 살아 계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아멘.

제공: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윤에릭 신부



‘사랑과 희망의 온도계’ 눈금
올리는 ‘보일러 불길’ 같은 삶

사제서품을 받으신 지 52년, 한국 생활을 하신 지 46년이 되었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국인들을 사랑하시는 윤에릭 신부님은 독일인이지만 전라북도 명예도민이기도 하다. 연락이 되지 않아 그동안 만나 뵙지 못했는데 이달에는 운 좋게 신부님과 연락이 닿았다.

신부님은 1963년에 한국에 오셔서 왜관 성 베네딕도 수도원 소속 사제로서 경북 김천 지방의 지례성당에서 15년을 사목하시다가 82년에 전주 인보성체수도회의 지도신부로 부임하셨고, 그 후 22년간 그곳에 계시다가 2004년에 은퇴하셨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사시는 신부님을 편집위원들 몇몇이 함께 방문을 하였다. 신부님은 서글서글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아직도 청년 같은 해맑은 표정으로 악수를 청하셨다.

신부님의 독일 이름은 에릭 루스비켈(Erich Nussbickel)인데 한국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고 여쭙었더니, 에릭은 본이름을 그대로 쓰고 성은 이름에 들어있는 Nu(독일발음으로 ‘누’)와 비슷한 발음의 성으로 ‘윤’이 양반성이라고 어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지어주셨다 한다. 성과 이름이 참 잘 어울린다.



첫 영성체(10세) 때 온가족과 함께(앞줄 중앙이 윤신부님)

1931년 독일 출생 57년 사제수품 후 63년 한국으로

신부님은 1931년 독일 라인란드(Rhineland)주의 보름즈(Worms)에서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중학교 교장이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51년 마인쯔의 요한 구텐베르그대학교(Johann Gutenberg U.)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57년에 사제서품을 받으셨다.

신부님께서 어떻게 사제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했다.

신부님이 자랄 때는 2차 대전 당시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기억은 전쟁밖에 없다. 히틀러 시대에 4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역사를 배웠고, 전쟁 후 그 지역이 프랑스령이 되어 역사를 배울 때는 그 내용이 히틀러 시대와는 180도로 달랐다. 배울 당시는 몰랐는데, 모두 거짓말임을 알았다. 그래서 신부님은 이것저것 다 믿을 수 없고 교회의 말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부가 될 생각은 없었다. 사제는 너무 높은 사람으로 생각되었고, 자신에게 말솜씨가 너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부님은 과학에 관심이 많아 공대에 입학했다. 공장에서 수련기간 1년을 거치는 동안 아버지 직장이 이동이 되어 이사를 간 곳은 천주교 마을이었다. 본당신부님들과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다. 독일 대학은 캠퍼스 안에 신학대학과 일반대학이 함께 있어서 두 가지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었다. 본당신부님들은 윤신부님에게 두 가지 공부를 같이 해보라고 권했고, 이 말에 힘입어 신부님은 2년 정도 공부를 병행하다가 신학과를 선택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대를 졸업하면 일은 할 수 있지만 과학으로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제가 신부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찬성해 주셨지요. 57년에 마인쯔 대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사제서품 받으실 때

공학 공부하다 사람에게 희망 주는 신학으로 바뀌

“대신학교에 있을 때 독일 지역에서 사목하는 것보다 전교지방에 가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구 사제가 해외에 가서 선교할 방법이 없었어요. 55년쯤 교황 비오 12세께서 모든 주교님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교구 신부님들도 전교 지방에 보내는 것이 좋다고 허락을 하셨어요. 주교님들도 자기 교구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도 책임이 있고, 돈으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도와주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서품 받고 5년 동안은 주교님이 허락하지 않아 독일에서 본당 보좌신부로 있었고, 다음 주교님이 부임하시면서 즉시 허락을 하셨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대신학교에 공부하러 온 분도회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6·25 전쟁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되었죠. 제가 그분들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한국 왜관 분도회에서 초대장을 보내왔어요.”

윤신부님은 전교 지방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한 지 6년 만인 63년 4월에 피데이 도눔(Fidei donum 신앙의 선물, 즉 경제나 성직자 수급이 어려운 곳으로 파견되는 선교사) 선교사로 부산항에 도착하셨다. 도착해서 처음에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것이 이상하였는데, 어딜 가도 사람들이 친절해서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다.

왜관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해 가을에는 서강대학교에 가서 1년간 한국말을 배웠다. 경북 점촌에서 1년 동안 보좌신부 생활을 한 후 그래도 말이 너무 서툴러서 프란치스코회에서 외국 신부들을 위해 설립한 어학교에서 1년을 더 배웠다.

지례 본당 부임 1년여 만에 새성전 완공 '기염'

그 후 김천 황금본당, 가실본당을 거쳐 67년 지례본당 주임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 지례본당은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이 된 곳이라서 건물이 변변치 못했다. 신부님은 본당 설립을 위한 첫 단계로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향인 마인쯔 교구를 방문해서 모금운동을 했다. 한국에서는 신자들의 숫자도 적고 너무 가난해서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독일 교구청과 독일 본당, 그리고 친구들과 은인들이 도움을 주었다.

공사는 68년 설날부터 추석까지 계속되었는데, 공사가 무척 힘들었다. 벽돌은 강에서 퍼올린 모래에 시멘트를 섞어서 현장에서 일일이 만들었다. 그 당시 건물을 지은 회사는 첫 작품으로 지례성당을 지었는데, 지금은 국내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건축회사가 되었다. 설계는 왜관 수도원의 알빈 신부님이 하셨다.

윤 신부님은 사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녀님을 모시기 위해 성당과 가까운 수녀회에 요청하였으나 지례성당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위험하다고 보내주지 않아 전주 인보성체 수도회에 요청했는데, 있을 방이 마땅치 않아 보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신부님은 성전을 지은 지 2년 만에 다시 독일 교구의 도움을 받아 수녀원을 건립하였다. 마침내 인보성체 수도회의 수녀님 두 분을 모실 수 있었다.

이어서 신부님은 그 당시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해주시면서 웃으셨는데, 우리 선조들의 철저한 신앙의 면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해인사 삼신당서 신자들과 하루 자며 묵주기도 에피소드

지례성당에서 사목하시는 동안 신부님은 공소도 다섯 군데를 지었다. 해인사와 가까운 곳에 있는 구교우들의 공소는 본당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약 25Km) 신부님이 그곳을



세례식 후 기념(지례성당 사목 때)

찾아가셔야 했다. 지리를 어느 정도 익힌 후에 그 공소의 교우들에게 해인사 순례를 다녀오자고 제안했더니 열심히 구교우들은 절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며, 갈 수 없다고 했다. 신부님은 어디가도 기도할 수 있다고 그들을 설득해서 약30여 명의 신자들이 산을 넘어 오후 2-3시에 도착했는데, 다시 돌아올 힘이 없어 그곳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 신부님 일행은 암자에서 잤고, 노인들은 잘 수 없다고 그날로 다시 산을 넘어 돌아갔다고 한다. 신부님과 나머지 분들은 거기서 자면서 삼신당에서 묵주기도를 바쳤다고 하면서 웃으셨다.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막 웃으셨다. 수녀님들이 부임하셔서 공소 방문을 했는데, 마침 장마철이라 개울이 넘쳐 지프차에서 내려 걸어가야만 했다. 수녀님들이 뒤따라 늦게 왔는데, 한 분이 물에 빠져서 옷이 완전히 젖고 구두에서 물이 흘렀다. 신부님께서 양말하고 구두를 벗으라고 해도 수녀님은 안 된다고 벗지 않고 물 흐르는 구두를 그대로 신고 있었다. 신자들이 처음 수녀님과 인사하는 자리였는데, 수녀님은 물에 젖어서 방

으로 들어가 옷이 마를 때까지 1박 2일 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지례성당에서 15년간 사목하시면서 신부님은 그 마을을 문명의 세계로 변화시켜 놓았다. <지례성당 40년사(史)>에 적혀있는 신자들의 회고록을 보면 그들은 아직까지도 신부님의 사랑과 헌신을 잊지 못하며 감사하고 있었다. 그 책을 통하여 신부님이 마을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당시 지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호롱이나 석유램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당과 사제관은 자가발전기의 전력으로 밝은文明생활을 했다고 써어있다. 신부님은 도로가 너무 형편없어서 미국 까리마스회를 통해 협찬을 받아 길을 닦고, 상수도도 개설했다고 한다.

낙후마을 상수도, 도로개설 '문명의 세계' 선물

“구교우가 사는 곳에 개천이 있는데, 매일 사용하는 물을 부인들이 양동으로 운반했어요. 남자들은 안 해요. 참 안되었다고 생각해서 남자들과 상의했죠. 특별히 할 일이 없던 어느 겨울철, 상수원에 물탱크를 만들어



지례성당 신자들과 미사

파이프를 설치한 후, 집집마다 물이 공급되도록 하면 물을 길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시멘트를 사줄 테니 해보자고 설득했죠. 그래서 수도를 설치할 수 있었어요.”

“신부님, 신용협동조합도 만드셨다면서요?”

“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농부와 상인이 반반이었는데, 그분들이 어떤 때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빌려서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신자수가 적었고, 이런 일은 신자 아닌 사람들도 같이 해야 해요.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용협동조합을 이용하도록 했어요. 그것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돼지 기르는 일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해서 양돈조합도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의논하고 서로 협조해서 했어요.”

인보성체수교회 지도신부로 전주교구와 인연 맺어

그 당시 김천 지례성당은 왜관 감목대리구 소속이었는데, 82년에 대구 대교구로 편입되면서 신부님은 15년간 사목했던 곳을 떠나시게 되었다. 다음 사목지로 신부님은 한 군데서 오래 계실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그래서 평소 인연을 맺어온 인보성체수교회의 지도신부로 오시게 되었다.

인보성체수교회는 그동안 지도신부 없이 미사만 도와주는 신부님이 있었는데, 김재덕 주교님과 총장 수녀님이 윤 신부님을 초대했다. 신부님은 인보성체수교회에서 지원자들과 청원자들에게 성경에 대해 가르쳤고 미사를 집전했다. 수녀님들이 겨울 동안 연탄난로만 사용하면서 추위에 떠는 것을 보고, 난방 전문가인 신부님은 독일 친구들에게 독일제 보일러를 부탁해서 난방시설을 했다.

그 당시 인보성체수교회는 사회복지를 약간 시작하고 있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도 운영했다. 73년 박정희 대통령 때 서울시 미화운동을 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성남시로 이주하였는데, 그들의 상황이 너

무 가난해서 말로 할 수가 없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수도자들 중에 간호사 출신의 수녀님이 산파로 간 것이 사회복지의 시초였다. 그 수녀님도 그들과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신부님은 사정이 너무 딱해서 독일에 도움을 요청했다. 독일 주교회의에서 사순절 동안 헌금한 것을 여러 곳에 사용하는 단체(Misereor)가 있어 사정을 전달했는데도 답장이 없었다. 2년 후 불일이 있어 서강대에 갔다가 단체의 임원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현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분들도 당시의 상황이 너무 안되었던지 독일로 가자마자 도와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성남시에 3층 건물을 지어서 가난한 산모들이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보성체수도회 사업의 첫 건물이었다. 그곳은 지금 양로원이 되었다.

은퇴 후에도 에너지 절감 난방 시설 설계 몰두

신부님은 인보성체수도회에서 만 22년 동안 지도신부로 최선을 다하고 2004년 사목 일선에서 은퇴를 하셨다. 은퇴를 하시고도 바쁜 생활을 하신다. 신부님은 과학, 특히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건물을 지을 때 난방시설을 설계하셨다. 첫 성당인 지례성당뿐 아니라 79년 오일쇼크 이후에 왜관 수도원을 시작으로 새로 짓는 전국 각지의 수도원의 난방 설계를 했다. 왜관 분도 수도회 건물에 화재가 난 후 새 건물을 지을 때도 그 큰 건물의 난방시설을 지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다. 용인, 대구, 부산, 마산, 여주의 수녀원들, 경남 산청 성심원(태양열), 장성과 익산 글라라 수도원(태양열, 심야전기)도 설계했다. 설계의 대가는 토마토 한 망이나 사과 몇 개가 다였다고 한다. 구 가톨릭센터의 난방설계도 신부님의 작품이라한다. 은퇴 후에도 심심할 겨를이 없다고 하시면서 요즘은 설계 의뢰가 들어와도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많이 하지는 못한다고 하신다.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의 힘이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할 수



금경축(2007) 축하연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제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신부님은 정말 희망 전도사의 삶을 사신 것 같다. 지금도 어려운 이들의 뒤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다.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신부님, 아는 것을 혼자만의 지식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신부님을 보니,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졌다. 이 추운 겨울, 신부님의 손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신자들에게 주는 말은 “서로 사랑하세요”

지난 2007년에는 사제서품 50주년 금경축을 맞으셨는데, 신부님은 이 자리에서 ‘따뜻하게 배려해준 교구 사제단과 신자들에게 감사하며, 한국에 혈육은 없지만 하느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라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에 참석자들은 가슴이 뭉클했다고 한다.

신부님은 요즘 책을 많이 보신다. 바오로 해에는 바오로 사도에 관한

책을 읽었고, 올해는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 돌아가신 바로 다음해 때의 초대교회에 관한 책을 읽으시다.

“신부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돌아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내 말이나 내 행동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국 천주교가 이렇게 탄탄하게 자리 잡은 것은 윤 신부님 같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노력이 그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잠재되어 있는 사랑의 싹을 주님의 사랑으로 꽃피우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 신부님. 선교사로서 그분의 자세와 역할은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신부님께 쌍백합 독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한지로 된 사절지에 써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신부님은 붓펜을 들고 서슴지 않고 적어주셨다.

“서로 사랑하세요!”

“신부님, 저희도 신부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취재 | 이덕자 안젤라 · 사진 | 유백영 가브리엘

서로 사랑 하세요!

윤 에릭

E. Nyßridel.

2009. 10. 21





‘후미에(성화상聖畫像 밟기)’의 아픔을 ‘마리아 관음상’으로 지켜낸 일본신자들

한상갑 바오로삼천동 성당

“밟아도 좋다. 밟아도 괜찮다.”

우리는(교구 순례단 18명, 사제 2명 포함) 작년(2008년 11월 22일-26일) 일본의 ‘베드로 기베(岐部)와 187위 시복식’에 참석하며 큐슈지역의 성지를 순례했다.

이 여정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Endo Shusaku)의 <침묵>이라는 책을 길잡이로 삼아, 박해를 피해 ‘숨어 살던 크리스천’(가쿠레 기리시탄)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신앙묵상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가기 전에 그 책을 읽었다.

신앙소설 <침묵>은 선교사들이 추방될 때, 신자들을 버리고 갈 수 없어서 일본 땅에 남아 있다가 당한 고난과 배교에 얽힌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가는 신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막을 수 없는 사제의 고뇌를 그리는 다음의 내용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다, 잘 듣게나. 그 뒤 이곳에 갇혀서 들은 저 소리에다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필사적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하느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침묵, 196쪽/ 이하 ‘책’).

많은 사람들이 밝은 탓으로, 동판(銅版)이 박힌 판대기에는 거무스레한 엄지발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예수 그리스도) 얼굴도 너무나 밝힌 탓으로 움푹 패이고 마멸돼 있었다. 움푹 패인 그 얼굴은 고통스럽게 신부를 쳐다보며 그 눈은 호소하고 있었다. ‘밝아도 좋다. 밝아도 괜찮다. 너희들에게 짓밟히기 위해 나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책 205쪽).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 ‘그러나 당신은 유다에게 ‘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지금 너에게 성화관을 밟아도 괜찮다고 말한 것과 같이 유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이다. 너의 발이 아픈 것처럼 유다의 마음도 아팠으니까’(책 226쪽).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역사의 현장을 보자면 ‘하느님의 침묵’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속이 터진다. 아니, 어쩌면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침묵이 아닌 바로 ‘나(우리)의 침묵’에서 비롯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소설 <침묵>은 이렇게 마친다. “그분은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설혹 침묵하고 있었다 해도 나의 오늘까지의 인생이 그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227쪽)고.



1865년 3월 17일, 숨어 있던 ‘신도 발견’을 기념하여 세운 일본의 성모상 (오우라 성당 입구)

순교로 점철된 일본 천주교회사



사진 위쪽은 시복식에 참석한 교황시절이 봉헌한 꽃이 놓여있는 '순교자기념비', 아래쪽은 대규환 지옥 안내판

1549년 8월 15일,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Francisco Xavier)와 그의 동료들이 가고시마(鹿兒島)에 상륙하면서 일본에 천주교가 전해졌다. 그러나 그 후로 158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선교사들의 추방을 명령하는 '사제추방령'을,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1614년에 전국에 금교령(禁敎令)을 선포하였다. 이후 일본 가톨릭교회는 금교령이 폐지될 때까지 260년(1614-1873년) 동안 종교의 자유를 갖지 못한 채 박해를 당했다.

천주교가 전해질 당시의 일본 사회는 다이묘[大名, 10세기경부터 19세기 말까지 넓은 영지(領地)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유력자로 그 지방의 행정권, 사법권, 징세(徵稅)권을 가졌으며 군사 사무도 관할함들이 세력을 다투던 시대로, 선교활동 또한 다이묘의 수용태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에서 신자 다이묘도 나왔으니, 오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가 바로 최초의 크리스천 다이묘

이다. 그는 나가사키(長崎)를 예수회에 기부하여 ‘기리시탄[Kirishitan, 吉利支丹, 切支丹. 포르투갈어 cristao에서 유래한, 막부(幕府)시대 일본의 천주교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도시’가 되게 했다. 또, 임진왜란 당시에 선봉장으로 조선을 침공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영지에서는 다이묘의 영향으로 영지 내 주민이 모두 천주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이묘들이 천주교를 묵인한 것은 학식이 풍부한 예수회 선교사를 서양문물을 접할 수 있는 통로라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했다.

추방령이 선포된 지 10년째 되는 1597년에 프란치스코회의 베드로 바티스타 수사와 예수회의 바오로 미키(三木) 수사 등 수도자 9명과 신자 17명이 니시자카(西坂) 언덕에서 순교하였다. 책형(십자가형)에 처해진 이들은 1862년에 성인(聖人) 반열(班列)에 올랐다.

1614년에는 금교령 선포로 선교사 98명이 추방되었다. 그러나 47명의 선교사들은 신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던지라 일본 땅에 잠복(潛伏)하였다. 잠복해 있던 선교사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 1603-1867) 치하에서 박해와 그에 따른 순교는 계속되었고, 1633년부터 1637년에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서 치명(致命)한 토마스 니시와 15명 순교자들이 1987년에 열성(列聖, 시성諡聖)되었다. 이들의 국적은 일본(9명), 스페인(4명), 이탈리아(1명), 프랑스(1명), 필리핀(1명)이며, 그들은 도미니코회의 사제와 수도자 및 제3회 원과 신자들이다.

1643년, 일본의 마지막 사제가 순교한 뒤, 일본교회는 단 한 명의 사제도 존재하지 않는 암흑시기에 들어갔다.

오랫동안의 박해를 통해서 일본에서 순교한 이는 2만5천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름과 날짜와 장소가 정확히 알려진 순교자만 5천5백 명이 넘고, 이름과 기록이 없는 무명순교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는 교황청과 수도회 본부에 보낸 보고서와 일본에 남겨진 역사 자료에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다.

이번에 복자(福者)품에 오른 베드로 기베(岐部) 신부와 동료 순교자 187위는 1603년부터 1639년 사이에 순교했다. 이들 중에는 일가족이 순교한 사례가 적지 않다. 나이로 보아서는 한 살배기 유아부터 무사(武士)인 80노인에 이르고 있으며, 남성이 121위로 여성(67위)의 두 배 가까운 숫자이다. 국적은 모두 일본이고, 대부분이 평신도(183위/ 수도자 1위, 성직자 4위)이다.

1867년에는 205위의 순교자들이 열복[列福, 시복(諡福)]된 바 있다. 여기에는 13위의 조선 출신 순교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일본은 42위(26+16) 성인과 393위(205+188) 복자를 모시게 되었다.

종교탄압에 숨어서 신앙을 지킨 신도들

일본에서의 그리스도교 포교의 역사는 전래(傳來)와 변영, 심한 탄압과 잠복(潛伏), 그리고 기적의 부활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곧,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복음 선포(전래), 많은 교회의 건축, 남만(南蠻,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무역의 중심지가 된 ‘일본의 로마’라 불릴 만큼 크리스천 문화가 융성했던 나가사키(변영), 오랫동안의 혹독한 박해(탄압), 교회도 사제도 없는 가운데 신앙을 지킨 신도들(잠복), 숨어 있던 신도의 발견(부활)이라 할 것이다.

일본에서의 종교탄압의 양태는 대개 이렇다. 신자들에게 성화상(聖畵像)을 밟게 하여[후미에, 답회(踏繪)] 그 신앙을 조사했고, 5인조 제도를 통해서 신자를 탐색했으며, 현상금제도로 신자를 고발케 했고, 그리스도교 금지 팻말[고찰(高札)]을 세워 경계심을 일깨웠다. 또 관리 앞에서 매년 자신의 종교를 보고하게 하고, 불교도임을 증명하는 슈몬 아라타메[종

문개(宗門改)] 제도로 시행했다.

‘후미에’에 대하여 엔도 슈사쿠는 그의 신앙소설 <침묵>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다. “동장이나 반장이 관아로부터 성화판을 받아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종지성화판장(宗旨聖畫板帳)을 들추며 조회한다. 집집마다 길을 청소하고 조용히 동장과 반장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윽고 멀리서 ‘납시오~’ 하는 노래 가락 같은 외침이 들리면, 모든 집집에서는 문전 가까운 방에 가족들이 한 줄로 나와 서서 이 행사가 행하여지는 것을 조용히 기다렸다. 성화판은 대개 길이 7푼에서 8푼, 넓이는 4푼부터 6푼까지의 널판에다, 성모상이나 예수상을 박아 놓고 있다. 우선 집주인이 밟고, 그 다음에 아내가,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이 밟는다. 젓먹이는 어머니가 안고 밟게 했다. 병자가 있으면 관리 입회하에 누운 채로 성화판에 발이 닿게 했다”(책 219쪽).

탄압이 이토록 심하다보니 숨어 있는 신자들은 이불(異佛)이라고 불리는 불상을 가장한 성모 마리아의 성상을 모시고 신앙을 지켰다. 이 성상을 ‘마리아 관음보살상’이라 부른다. 널빤지 위로 드러난 부분은 외관상으로는 향로(香爐)이나, 그 아래로는 널빤지 뒤에 성모상이 거꾸로 모셔져 있다. 그런가하면 동자승(童子僧)을 안고 있는 지장(地藏)보살도 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영락없는 성모자(聖母子)상이다. 숨겨진 십자 불상도 있다. 겉에서 보면 평범한 석가여래상에서 연꽃 받침대를 빼내면 연결 부위 역할을 하는 십자가가 나온다.

이처럼 불상을 빌린 성상과 성물 등은 ‘가쿠레 기리시탄’(Kakure Kirishitan, 隠れキリシタン, Japanese for ‘Hidden Christian’)이라 불리는 ‘숨은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 버팀목 역할을 한 흔적이라 하겠다. 이들은 가혹한 상황에서도 대대로 가족의 신앙을 계승하여 왔다. 이들이 알려진 것은 1865년 3월 17일이다. 250년간 7대에 걸쳐 신앙을 이어온 신자들을 나가사키 우라카미(長崎 浦上)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프랑스인 신부에게 “우리들은 모두 당신의 마음과 같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다. 탄압으로 소멸된 줄 알았던 일본 천주교 신자들이 살아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일본천주교회의의 부활이라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일이다. 참으로 경이롭고 자랑스러운 역사라 하겠다.

나가사키에서 흘린 눈물

우리는 일본 여정 첫날, 히라도(平戸)에 있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기념성당과 기리시탄 자료관을 들렀다. 200엔을 내고 들어간 기념관에서는 ‘가쿠레 기리시탄’의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날은 주일이다. 원폭 흔적이 남아 있는 우라카미 성당에서 미사에 참례했다. 일본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게 ‘가톨릭’ 이구나 하는 보람을 맛볼 수 있었다. 다만, 그들이 부르는 성가들은 처음으로 들어본 가락이어서 조금은 생소했다. 이어서 원폭 기념관과 평화공원을 둘러보았다. 점심때, 계란탕이 맛있어서 하나 더 시켰더니 1500엔을 내란다. 오후에는 시성을 기념하는 성당을 참배하고 순교지에 세워진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또, 나가사키에서 잠복해 있던 크리스천들이 자신을 밝혔다는 일본의 국보(國寶)인 오우라(大浦) 천주당(성당)을 참배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성 콜베 신부의 기념관에도 들렀다. 저녁을 먹은 뒤에는 함께 간 두 분 사제가 고해성사를 주었다. 열복식(시복식)이 있는 셋째 날(11월 24일)은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하였다. 전날 저녁에 급히 마련한 비옷을 입고 행사장을 향했다. 우리는 한국 신자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장(Nagasaki Big N Stadium) 스탠드에 맨 먼저 자리했다. 멀리 채수현 회장이 눈에 띈다. 나중에 알아보니, 김환철 신부님과 동행이란다. 이른 점심으로 도시락을 먹고 나서 188위 순교자들을 지역별로 소개하는 영상물을 보았다. 낮 12시부터 초와 순교



지금도 가끔씩 최고 120도의 뜨거운 김을 30-40미터씩 뿜어 올리기도 하는 '대규한 지옥'

지의 흙, 순교자들의 유물 봉헌행렬, 사제단과 주교단의 입장으로 행사가 시작되어 네 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다. 성체를 모시는데 울컥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행사장 그림판에 박정일 주교님과 몇 분 한국 주교님들이 보였다. 행사가 끝나고 운젠지역으로 이동했다. 숙소는 오바마(Obama, 小浜) 온천이 있는 마을의 한 여관에 정했다. 메이지(明治) 30년(1897년)에 창업했다고 한다. 다다미방에서 정중 한 잔에 온천탕을 하자니, 일본 냄새(?)가 물씬 나는 것 같아서 맘에 들었다. 여행하는 맛이 이런 건가?

넷째 날은 운젠(雲仙) 지옥 순례로 시작했다. 유황냄새를 풍기는 자욱한 유황연기가 무시무시한 지옥을 연상케 한다 해서 '운젠 지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한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펄펄 끓는 온천수를 퍼붓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거기에 온천물을 붓기도 했

다고 한다. 그래서 운젠 지옥은 천주교 신자의 순교 무대가 되었고, 그런 지옥은 30여 개나 된다. 그리고 순교터에는 십자가와 안내빛돌이 그 처 참했던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다. 온천지역이라서인지 온천신사(神社)도 있다. 오후에는 ‘후미에’와 ‘후미에 기록장’, ‘마리아 관음불’과 ‘숨겨진 십자 불상’, ‘천주교 금지령을 적은 공고문’ [고찰(高札)] 등이 전시되어 있는 아마쿠사(天草)의 혼도(本渡) 시립 기독교 역사관에 들렀다. 사키츠(崎津) 천주당에서는 미사를 봉헌했다. 그곳 젊은 본당신부님께 동정부부 요한 루갈다 목걸이를 선물했다. 한 시간 남짓 달리니 바닷가에 개인이 운영하는 ‘산타 마리아관’이라는 이름의 박물관이 나온다. 동자승을 안고 있는 ‘마리아 지장(地藏)’, ‘천사의 날개’, ‘대웅종’(大翁宗, Deus), ‘마리아 관음보살상’ 등 볼거리가 적지 않다.

마지막 날에 숙소를 떠나기에 앞서서, 마땅한 자리를 구하지 못해, 관광버스 안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그런 뒤에 학문의 신을 모신 신사 다자 이후 텐만궁(大帝府 天滿宮)에 들렀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의 여정이 끝났다.

문득 박해시대의 우리나라와 일본 신자들이 받은 고통이 비교가 되었다. 어쩌면 일본 쪽이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제도 교회도 없던 기간이 두 세기 반(1614-1865)이나 되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 ‘마리아 관음상’이 눈에 선하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시복 시성의 영예를 허락하여 주소서”

일본의 시복식에 참례하다보니, 입술로만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조들’을 불러댄 것 같아서 부끄럽다. 믿음의 선조들의 시복 시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기도’ 하고 ‘순교자의 삶을

배워 익히는 일' 말이다.

한국 주교회의 '시복 시성 주교 특별위원회'는 2009년 5월 20일에 시복 예비심사 법정(法廷)을 종료했다. 그리고 6월 3일에는 교황청 시성성(諡聖省)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123위'와 한국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을 위한 공식 청원서와 관계 자료를 제출하였다.

시복 청원을 한 하느님의 종 124위는 1791년 신해박해 때부터 1888년에 이르기까지 신유박해 전후의 순교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24위가 전주에서 순교했다. 우리나라 첫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호남의 사도 유항검 아우구스티노, 동정부부 유요한과 이루갈다 등이 그들이다. 그리고 최양업 신부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사제로, 1861년 장티푸스와 과로로 사망하기까지 12년 동안 전국을 돌며 사목활동을 하였다. 지금 전 세계 교회로부터 시성성에 제출된 시복 청원은 200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우리가 바라는 시복이 가까운 시일에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것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로부터 온 청원을 우선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는 시성성 장관인 아마토 대주교의 언질이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많은 성인성녀를 모시고 있다는 것만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앙선조들을 본받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꾸준한 노력이 정작 중요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쇄신해야 한다. 일상의 삶에서 순교영성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또 순교자 현양(顯揚) 운동도 펼쳐며, 시복 절차가 빠른 시일 안에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림 묵상



정광신 주셉피나 (인후동 성당)

가야할 길

하느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 ..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으며
... ..

시편 18, 31-35



<3>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하지요.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곧 아름다운 말이나 예쁜 몸짓을 통해, 때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면서 우리 마음 속 생각을 보여 주려고 하지요.

사랑과 우정은 우리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사랑과 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함께하시지만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착한 자녀가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것을 느낄 수 있지요!

우리 친구 안드레아가 교황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어요.

첫영성체 교리 시간에 선생님이 "예수님은 성체 안에 살아 계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교황 할아버지, 정말로 그런가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 모습이 안 보여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어요.

우리 눈으로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도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우리는 모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가진 슬기나 지식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만질 수 없지만 누구에게나 마음과 영혼이 있어요.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요.

전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예요. 어두운 방을 밝히는 전구나 형광등을 보면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 목소리를 멀리서도 잘 들릴 수 있게 해주는 마이크도 보이지 않는 전기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것들 대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과 우리의 행복한 삶을 통해 그것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이천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화를 나누며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므로 직접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은 더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요. 그럼,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느껴보기로 해요.

번역 | 김정훈 스테파노 신부(전주가톨릭신학원 교수)



서석희 요셉 신부
(홍보국장)

문학과 영화가 성경에 대해 말할 때

영화 <네 번째 동방박사>(The Fourth Wiseman, 1985)

1 해마다 성탄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한 감동으로 짓게 하는 영화,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성직자였던 헨리 반다이크(Henry Van Dyke, 1852~1933)의 소설 <The Other Wise Man>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벤허 (Ben-Hur, 1959)>, <바라바 (Barabbas, 1962)>처럼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비록 몇 구절 안 되는 성경의 한 대목일지라도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과 신앙적 목상이 결합될 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의 지혜가 나오고 또한 그것이 영화화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신앙적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네 번째 동방박사>는 마태오 복음서에서 ‘아
기예수를 경배하는 세 명의 동방박사 이야기’ (2. 1-
23)를 바탕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또
한 명의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타반, 헤롯왕이 예루살렘을 통치



하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페르시아에 살던 그는 젊고 똑똑하지만
화재로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잃은 상처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부유하고 지위도 있었던 그였지만, 그는 그에게 닥친 재난의 아픔을 잊기
위해 학문에 열정적으로 매달리다가 마침내 별의 움직임 속에서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의 탄생에 관한 하나의 징조를 발견하
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별을 관측하면서 위대한
왕의 탄생과 더불어 그를 만나면 그의 모든 아픔과 절망을 극복하게 해
줄 새로운 삶의 의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는 자
신의 모든 재산과 재물을 팔아 위대한 왕에게 봉헌할 사파이어, 루비, 진
주로 바꾸고, 그의 하인 오르테스와 함께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미
아르타반은 세 명의 동방박사들과 한 곳에서 만나기로 했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는데, 폐허가 된 바빌론 성벽 근처에
서 열병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르타반은
옷단을 움켜잡는 그를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그의 병간호를 하다가 서둘
러 약속된 장소에 와 보니, 이미 세 명의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이스라
엘로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움직이는 별을 발견할 수도 없었기
에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는 그가 치료
해 준 이스라엘 노예가 준 조언, 즉 위대한 왕은 그들의 성경에 의하면 베
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내고, 사파이어를 팔아 낙타와
식량을 사서 베들레헴에 가까스로 도착합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그



동방박사의 경배

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엔 이미 위대한 왕은 이집트로 피난하고 헤롯왕이 보낸 병사들에 의해 태어난 아기가 죽어가는 학살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아르타반은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한 여인의 아기를 구해주는 대가로 이스라엘 군인에게 루비를

뇌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와 부모는 이집트로 갔다는 조언을 듣고 다시 위대한 왕을 만나기 위해 이집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수년 동안 이집트 왕실을 뒤지면서 위대한 왕을 찾아 헤매다가 이집트에 있는 유다인 회당에 있는 랍비로부터 위대한 왕은 이스라엘인이기에 아마도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라는 것과 위대한 왕은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가난한 이들, 헐벗은 이들 가운데 계실 것이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결국 아르타반은 고향으로 돌아가자며 투덜거리는 하인 오르테스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랍비의 조언대로 이스라엘 외곽지대에 있는 거지 굴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거지들로부터 습격을 받아 그가 마지막으로 위대한 왕에게 드릴 진주마저 빼앗깁니다. 결국 진주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찾아내게 되지만, 그는 진주를 돌려받는 대신 그곳에 있는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루만 머문다는 것이 이틀, 사흘, 마침내 그 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을 병자들을 치료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왕을 만

나겠다는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는 그들의 가난과 질병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발견한 그는 마침내 그들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농사를 가르치고 함께 경작합니다. 그러면서 30년이 흘렀고 이제는 위대한 왕을 찾는 것을 잊고 그들 안에서 행복을 느껴가는 순간, 이를 시기한 동네사람들이 그들이 경작한 밭에 불을 질러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자 그는 또 절망합니다. 동시에 그의 고향친구가 그를 찾아와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의 인생은 실패라며 그를 편잔하자 더 큰 절망에 빠져듭니다. 이제는 아르타반 자신도 늙고 병들었고 위대한 왕마저 만나지 못했다는 절망의 나락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는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위대한 왕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드릴 소중한 진주를 들고 늙고 병든 몸으로 예루살렘에 갔지만, 위대한 왕을 만나려는 그 순간 자신의 친구의 딸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진주를 뇌물로 주고 친구의 딸을 구해줍니다. 정작 위대한 왕에게 다가왔지만, 그에게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절망한 순간, 더더욱 절망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왕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묘하게도 위대한 왕을 만나기 위해 그는 노력했지만 한 번도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절망할 기운도 없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 위대한 왕이 부활한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그제야 만나게 된 위대한 왕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에 상심하자, 그 위대한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르타반, 나는 네가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의 말에 그는 다시 되묻습니다.

“제가 언제 당신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제가 언제 당신에게 먹을 것을 드렸으며,

제가 언제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신을 찾아주었습니까?”

그의 반문에 위대한 왕은 대답합니다.

“바로 네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마침내 아르타반은 깨닫게 됩니다. 그가 지금껏 걸어온 30여 년의 여정 속에서 위대한 왕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대한 왕을 만나왔고, 그 순간에 그는 늘 행복했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는 평안히 눈을 감게 됩니다. 그가 위대한 왕을 만나게 되면서 얻게 된 평화와 행복을 간직한 모습입니다.



영화 <네 번째 동방박사>는 평생토록 주님을 만나기 위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

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 시기가 어떠했던 영세를 받음과 동시에 신앙의 빛을 따라나선 또 다른 동방박사일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의 지식과 체험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고 있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들 다 주고도 남음이 있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실의와 좌절을 겪고 절망에도 빠집니다. 그분이 어찌면 너무 멀리 계시다는 것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체취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마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느낌에 무척 행복해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님은 또 다시 찾고 만나야 할 분으로 저만치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 따라 그분은 저만치에 계시기도 하고 가까이에 계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그분의 체온과 체취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자 그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 <동방박사들의 여행(The Journey of the Magi) by T. S. Eliot>

2

하느님, 당신이 제게 하신 일은 서운합니다.
당신이 주신 전부는
그저 떠나라는 말씀과 하늘의 별 하나

그런데도 제가 지금 쉬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길을 가리켜주는 저 별 때문입니까
아아 그러나 이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먼 길을 와 돌아갈 수도 없고

당신의 약속과 이 모든 여행과
그리고 이 여행 끝에는
나의 욕망과 의지를 버리고 비우게 하는
두렵고도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고되고 힘든 여행은
처음부터 제 힘과 제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제는 저의 욕망과 의지를
이 추위 속에서 얼어붙게 해주소서.

〈동방박사들의 여행〉은 “4월은 잔인한 달”로 시작되는 〈황무지〉란 시로 유명한 T. S. Eliot(엘리엇) 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시는 1927년에 쓰였는데, 이 시의 내용은 성경에서 세 명의 동방박사들이 이미 많은 예언자들로부터 예언된 만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그를 찾아가는 여정과 그 여정에서 느끼는 갈등과 회의, 그리고 희망과 신뢰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서에 따르면 멀리 동방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박사들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점성가들로 알려진 그들은 하늘 위에 범상치 않게 빛나는 별을 목격하자 그 별에 매료되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의 지혜와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 별의 의미를 밝혀내고 움직이는 별을 따라 그들의 일상 세계를 떠납니다. 성서역사학적 연구를 토대로 보면 그들이 별빛을 따라 온 길은 하루아침에 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동쪽 아라비아(지금의 사

우디아라비아) 또는 페르시아(바빌로니아를 포함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하나,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 2)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뭔가는 알 수 없지만, 그 별을 따라가면 지금까지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충분히 보상해주고도 남음이 있는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여정이 순탄했을까?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 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여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의 여행>은 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지켜보리라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T. S. 엘리엇은 그의 시, <동방박사들의 여행>에서 별을 따라가는 동방박사들이 여정에서 느끼는 심정을 또 다른 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여행을 하기엔, 그토록 긴 여행을 하기엔
연중 가장 고약한 때였지요,
길은 푹푹 빠지고, 날씨는 매섭고,
바로 한겨울이었지요,
거기다 낙타들은 상처가 나고,
말이 붓고,
고집을 부리며
질척거리는 눈 위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낙타꾼들은 옥지거리에 불평을 하며
 도망치고, 술과 계집을 요구했습니다.
 밤에는 모닥불도 꺼지고, 쉴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적대적이며, 마을은 불친절했습니다.
 동네는 불결하며, 바가지 요금을 강요했습니다.
 흑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막잠을 자면서,
 이 모두가 바보짓이라는 목소리가
 우리 귀에는 들려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가까스로 이스라엘에 도착했지만 정작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한계를 드러낸 곳은 헤롯 왕실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입니다. 유다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유다인의 왕궁에 있어야 한다는 그들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헤롯 왕실엔 그들이 찾는 유다인의 왕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고생 끝에 찾아온 그 정점에서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오랜 노력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절망할 거라면 처음부터 오랜 여정에 오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 끝에는 반드시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 성취가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구원의 손길은 외부로부터 오게 됩니다. 조언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예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의 지혜와 과학적 지식이 아닌 새로운 예언 정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요구됩니다. 중요한 것은 왕은 무조건 화려한 왕실에만 있어야만 한다는 그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얻은 예언을 받아들이고 다시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마침내 동방박사들

은 그들이 예측했던 곳과는 다른 베들레헴에서 유다인의 왕,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성서는 이들의 반응을 ‘대단히 기뻐하면서’(마태 2, 10)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초에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현실을 목격했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신의 섭리에 기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여행은 그들의 지혜와 과학적 지식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한 내면의 변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마침내 그들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그들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은총이자 섭리입니다. 맹자의 가르침에 ‘득의이망언(得意而忘言)’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뜻을 얻고 나면 말은 잊는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어 그 이전의 가치는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체험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를 묵상합니다.

3 영화 <네 번째 동방박사>와 시 <동방박사들의 여행>은 각각 다른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다루고 있고 내용도 다르지만 신앙인의 여정이라는 점에서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인의 여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또한 문학적 상상력과 영화적인 상상력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문학과 영상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사목 일기

이영춘 사도요한 신부
(천호피정의 집)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다



천호성지에 온 지 6개월이 되어간다. 어떤 일이든지 원칙을 지키며 서두르지 않고 시간의 여유를 두고 꼼꼼히 생각하고 실행과정도 서두르지 않는 스위스에서 5년 반을 지내고 온 나로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국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 의미로는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인지 6개월의 생활이 때론 6년보다 길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흐르는 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는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 옛날 신앙의 선조들도 그랬으리라. 그러니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곳 전라도 산골짜기까지 하느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겠는가.

쌍백합 원고 청탁을 받고나서 이곳에서의 생활을 기도 중에



되돌아본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두세 가지 정도의 체험들을 나누고 싶다.

새롭게 펼쳐진 길에서 만난 섭리

원래부터 지도 보는 일을 즐기는 것이 취미이긴 하지만, 도보순례에 대한 일을 맡고 나서는 더욱더 지도 보는 일에 집착하게 된다. 지도를 펴 놓고 또는 인터넷의 구글어스를 검색하면서 교우촌과 교우촌을 연결하는 옛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연결을 해야 하는지 살살이 살펴보고 기회가 나면 그곳을 답사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천호와 인근의 어름골, 산수골, 낙수골, 그리고 되재에 이르는 길, 천호산을 넘어 미사골과 성치골로 해서 여산으로 가는 길 등등. 천호산을 넘어 미사골과 성치골로 가는 코스를 연구하며 구글어스를 검색해 보니 성치골 쪽으로 임도가 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꼭 한번 가보리라 마음 먹었다.



8월 어느 날 의정부에서 오는 청년들이 나바위에서 여산을 거쳐 도보로 천호에 오는 날이었는데, 저녁시간이 다 되어도 오지 않아 저녁을 먹고 난 후 어디쯤이나 오는지 마중 나가 봐야겠다 싶어 나의 애마 포르테를 타고 길을 나섰다. 문드러미 재를 넘어 여산으로 가다보니 그제사 여산을 막 벗어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났다. 지금 여기쯤 오고 있다면 앞으로 한 시간 이상을 더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 천호에서 보자는 인사를 간단히 하고 나는 그 시간에 가보고 싶었던 그 임도를 가기로 맘 먹었다.

구글어스에서 본 기억을 떠올려 길을 찾았다. 처음 가는 길은 항상 긴장감과 함께 어떤 길이 나타날까 하는 흥미를 자아낸다. 이곳 저곳의 모습이 매순간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나는 그런 시간들을 참 좋아한다. 성치골을 지나 구글에서 봤던 그 임도로 들어섰다. 나는 처음 가는 길을 만나면 이 길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끝까지 가보는 성격이 있다. 아무튼 임도 끝까지 가보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런! 구간 구간의 길에 깔려 놓아 둔 자갈들이 한 무더기씩 길 한가운데에 있지 않은가! 뒤로 후진해서 갈 수도 없고(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다. 그러나 물러서면 웬지 서운할 것 같아 차에서 내려 발로 돌을 길에 아예 깔아놓고 다시 출발한다. 8월의 긴 낮의 시간도 저물고 주위는 어두워진다. 돌무더기 만나기를 몇 번하고 어딘가에 도착했는데, 이런! 임도가 끊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임도 끝은 낭떠러지 같은 곳인데... 갈수록 태산인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랴. 전진과 후진을 수없이 하면서 겨우 차를 돌리고 다시 길을 되돌아온다.



날이 어두워져 방향을 분간하기 어렵다보니 내려오는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선택했나보다.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곳을 달리고 있다. 그것도 비포장 산길을…. 정말이지 한참을 가니 드디어 아스팔트 포장길이 나오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 길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았다는 뿌듯함이 다가온다. 한 시간 이상을 헤매고 다닌 보람이 있다. 그렇지만 솔직히 헤매고 있을 때는 두려움도 많이 엄습해 왔었다. 이러다 산속에 갇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앙의 선조들이 또 선교사 신부님들이 포졸들을 피해 어두운 밤 산속을 헤맬 때의 느낌과 비교가 되겠는가!

여산 쪽으로 길을 잡아 한참을 돌아 여산에 도착하니 차에 기름이 없다.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고 있는데 가게 안을 보니 십자가가 걸려 있다. 교우집이구나! 그래서 아저씨께 미사굴 가는 길에 대해 아시냐고 여쭙었다. 그런데 마침 그분이 잘 아는 분이 그 길을 잘 안다고 하시지 않는가. 이런 황재가 있나. 며칠 후 그분을 만나 성치굴에 대한 답사를 했다. 하느님은 뜻하지 않게 접어든 새로운 길에서도 오묘한 섭리를 하시는 분이 분명함을 느낀다.

교우촌에 대한 안타까움

천호산의 여산쪽 골짜기에 유서깊은 교우촌 성치굴이 있다. 이병호 주교님의 산실(産室)이었고 김현배 주교님의 고향이며

전주교구 많은 신부님들의 고향인 성치골. 그런데 교우들이 떠나버려 썰렁해진 성치골은 마음 아픈 구석이 많은 동네가 되어 있었다. 김현배 주교님이 태어나시고 자란 집은 대나무 숲에 집이 파묻혀 버렸고, 교우들이 만나 조과, 만과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던 공소집은 없어지고, 종탑은 녹이 별경계슬은 채 나뭇가지와 칩덩굴에 점령당해 있고, 종은 떨어져 간신히 종탑에 얹혀져 있었다.



성치골뿐만 아니라 유서 깊은 많은 교우촌들이 돌보아 지지 않아 그렇게 폐허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교구의 사제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신앙의 전통들이 그렇게 묻혀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



누구라도 먼저 나서서 돌보고 가꾸고 보존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름골에서의 역사적인 미사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 마을이 전주교구 신앙공동체의 못자리라면, 완주군 비봉면 대치리 어름골(氷洞)은 제도(制度)

교회인 전주교구의 모태와 같다. 1877년 11월 가을 판공이 시작되기 전 블랑(Blanc, 白三圭) 신부가 어름골에 정착했다. 당시 사정 때문에 본당으로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블랑 신부가 거처를 정한 이 어름골은 본당과 동등하게 보아야만 한다(교회법 516조 1항 참조).

1882년 1월 28일 리텔 주교가 체포되어 5월 4일 중국으로 추방되면서 같은 해 봄 부교구장인 블랑 신부는 교구장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 상경하고 후임으로 리우빌(Liouville) 신부가 부임하여 5년 동안 사목하고, 그 후임으로 라푸르카드(Lafourcad) 신부가 부임했다. 그러다가 1888년 2월 고산 빼재로 거처를 옮겼다. 이렇게 어름골은 12년 동안 사제가 상주 하던 곳이다.

어름골에는 작은 우물이 하나 남아 있다. 교우들이 물을 길어 마시고 밥을 짓고 돌레에 앉아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꽃피웠을 작은 우물….

천호에 매달 봉사하러 오시는 천사회 자매님들과 함께 도보 순례를 계획하고 어름골에서 미사를 드리기로 했다. 10월 6일, 그날은 나에게겐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었다. 교우들이 얼음골을 등지고 어디론가 떠나가고 더 이상 사제가 찾아오지 않고 미사가 드려지지 않던 그곳에서 첫미사와도 같은 미사를 드리게 된 일이니 얼마나 감격스런 순간인가! 우물가에 앉아 우물 곁에 있는 판판한 자연석을 제대 삼아 미사를 드렸다. 박해시대 포졸들에게 쫓기면서 산속에서 땅을 제대 삼아 드리던 미사보다 훨씬 호화로운 미사였지만, 그 감동은 마치 내가 그 옛날

그곳에서 상주하고 사셨던 신부님들이 된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의 감동이었다.

미사 중에 이 유서 깊은 곳에도 많은 교우들이 찾아와 신앙 선조들의 신앙을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아, 마르지 않는 우물에서 생명의 샘물을 길어 올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물을 봉헌하였다.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옛 교우촌들을 순례 하면서 “도대체 무슨 볼 것이 있냐.”거나, “뭐라도 볼 것이 좀 있어야지.”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그것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신앙인은 육신의 눈 보다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신앙선조들의 신앙을 느낄 수 있고, 하느님의 섭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 내 삶 안에서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만나 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름다운 삶의 향기

‘사랑짓는 요십이’ 회장 박종구 바드리시오

가난 · 절망의 ‘헌 집’ 을 사랑 · 희망의 ‘새 집’ 으로



“나눔은 자선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당신과 나의 마음이다. 고통 받는 자들 또한 그 고통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나눔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평생 노숙자와 빈민 구호 활동에 헌신하셨던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 신부님의 말씀이다.



복지시설 하늘향 마루널 깔기



복지시설 하늘향 지붕엇기 작업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웃 사랑을 전파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다. ‘사랑 짓는 요십(요셉)’이라는 모임도 그 중 하나다. 목수였던 요셉 성인의 이름을 딴 이 모임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봉사활동 단체다. ‘사랑 짓는 요십’에는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개신교 신자, 비신자들도 빈곤층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하고 있다. 엄동설한의 한파 속에서 우리 이웃의 가슴에 훈훈한 모닥불을 지피는 이들. 이 단체의 회장으로 몸담고 있는 박종구 바드리시오 형제를 만나보았다.

건축전공 살려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출전

바드리시오 형제를 만나기 위해 그가 재직 중인 완산구청을 찾아갔다. 공무원인 형제님은 평일에는 근무 때문에 바쁘고, 주일에는 주로 집 짓는 현장으로 나간다. 도저히 인터뷰를 할 여유 시간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였

으나 마침 토요일 당직근무 중 오전 중에 시간이 난다 하여 서둘러 방문하였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으레 그러하듯, 박종구 바드리시오 형제님 또한 넉넉하고 자상한 인상을 가진 분이였다.

2006년 3월, 농촌 사목 담당 신부님의 권유로 가톨릭센터 ‘온가’에서 13명의 회원이 모여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준비모임이 조직되었다. 건축을 전공한 바드리시오 형제님이 초대회장을 맡아, 주님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봉사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맨 처음 시공한 집은 그해 7월, 리모델링 작업을 한 김제 용지공소였다. 활동자금이 여의치 않았으나 타 교구에서 천만 원을 지원하여, 낙후된 건물 네 채를 내부수리하고 방수 처리하여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보통 집 한 채를 짓는데 2~3개월이 걸린다. 그동안 직장인들은 주말마다 어김없이 현장에서 만나고 자영업자인 회원들이 교대로 현장에 투입된다. 회원들이 건축사, 인테리어 시공업자, 자재상, 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자재도 원가보다 싸게 마련할 수 있었고 전문가들이 모여 인건비는 봉사로 메우고 있으나, 시골집들은 대부분 리모델링이 아닌 완전 철거 후 신축공사를 해야 하니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다. 보통 집 한 채를 짓는 데 평당 100만원, 기본 4인 가족이 살 공간이면 최소한 25평 규모의 집이 필요해 2500만원이 들기 때문이다.

불타는 열정과 서로간에 두터운 믿음을 가진 회원들은 내내 몸으로 뛰고, 절박할 때에는 그저 주님께 간구한다.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하는 기도가 절로 나온다고. 이들의 헌신적인 기도 덕분일까. 근래에는 회원도 많이 늘었다고 한다. 현장 활동은 40여 명이 하지만 매주 15명 정도 나오고, 후원회원도 200여 명에 이른다. 초창기에는 몇 십만 원 하던 후원금도 많이 늘어 지금은 1년에 25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러나 이 후원금만으로는 집 한

채를 지을 경비밖에 되지 않아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결과,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과 후원 격려금으로 1년에 3채 정도 집을 지어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집 10채 지어 희망의 보금자리로

“건축일이라는 것이 기둥 공사하면 다음은 지붕 공사를 해요. 신기한 것은 꼭 그날 끝내야 할 일만큼, 봉사자들이 나옵니다. 필요한 일손만큼 봉사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신기해요.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들곤 하지요.”

회원들의 지속적인 정성과 많은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집 10채를 지었고 현재 11번째 집을 짓고 있는 중이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은 어디일까? 바드리시오 형제님은 정읍 용동면에 사는 M형제님 가정을 회고한다. 다 쓰러져가는 폐가나 다름없던 집에서 일곱 식구가 살고 있었다. 그중 6명이 장애가 있고 아들 1명만이 유일하게 신체 활동이 자유롭다. 가족들을 돕기 위해 바자회를 열었고, 집을 새로 지어주었을 때에는 신부님을 모시고 축복미사도 드렸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젓하게 자란 그 아들이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에 수시 합격하는 감격도 함께 누렸다.

직장에 몸담으면서 휴일도 없이 매주 집을 지으러 다니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터. 바드리시오 형제님은 만면에 가득한 미소로 이렇게 답한다. “일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해질녘까지 열심히 일하고, 동료들과 ‘형님, 아우’ 하면서 마시는 한 잔의 술이 기막힌 보약이지요.” 설계와 감독은 형제님이 직접 하지만 따로 작업 배정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회원들 각자 능력껏 찾아서 자율적으로 일을 한다. 40대부터 67세인 사도요한 형제님까지 동참하고 있는데, 정년퇴직을 한 최고령의 형제님은 디스크 환자인데도 힘이 닿는 대로 장비 관리를 비롯해 겨울에는 장작불을 지펴



아홉번째 사랑의 집 완공후 주교님 미사

주며 도움을 주신다. 한편 가족들을 데리고 현장에 동참하며 자녀들에게 산교육을 시키는 회원들도 있다. 이런 고마운 회원들을 볼 때마다 회장으로로서도 힘이 나고, 일이 신난다고 한다.

레지오활동과 성지 개발에도 적극 참여

‘사랑 짓는 요십이’ 활동 전에는 레지오와 성지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김진소 신부님과 함께 종전 천호 성지를 발굴하던 당시 도청에 다니며 천호성지를 측량하고 기본 계획을 세웠다. 그것이 오늘날 천호성지의 밑그림이 되었으니, 남다른 보람을 느낀다. 10여 년 전에는 초록바위 성지 개발을 위한 도면을 작성하여 전주시를 통해 중앙 부처에 사업을 건의하기도 했다. 근래에는 치명자산 성지 개발 계획을 하고 있다. 치명자산에 묻힌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성인품에 오르고, 외국 순례객들이 늘어나면 그분들이 사시던 1800년대 우리 모습이 궁금할 것 같아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현장 체험의 장을 구상 중이다. 설령 실현되지 못할지라도, 본업이 건축인지라 계획하는 일 자체가 즐겁다는 겸허한 뜻을 내비친다.

박종구 바드리시오 형제님이 봉사자의 길을 걷게 된 사연도 특별하다. 중학교 때까지 혼자서 교회에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종교 생활을 접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설계를 공부하여 23세에 도청에 취직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자 23세의 젊은 청년은 스스로 전동성당을 찾아가 세례를 받았다. 1976년 4월 5일 식목일로 기억한다. 용기를 내어 당시 김환철 신부님을 찾아뵙고 면담을 한 후 첫 보좌신부로 오신 문규현 신부님께 교리를 배우고 영세를 받았다. 영세를 받기 전 3년 동안 혼자 성당에 다닐 때 ‘바드리시오 성인’ (아일랜드 주교님)의 전기를 읽고 감명을 받아, 세례를 받으면 바드리시오를 본명으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전국공무원 로사리오회 출범 밑거름 역할

세례 후 프레스비디움 간부를 시작으로 사목회, 꼬미시움 서기, 레지아 단장을 역임하면서 봉사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본인의 영세 1년 후 아버지도 영세를 받으셨다. 1977년, 전주시청에 근무하던 장용근 시몬 형제의 도움을 받고 채수현 시몬 형제와 함께 ‘도청 로사리오회’라는 공직자들의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이 모임이 시청을 비롯해 전라북도 전체 조직으로 확대된다. 후일 내무부로 발령받은 장 시몬 형제님과 더불어 전국 공무원 로사리오회를 조직하는데 밑거름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일견 천주교 골수분자라고 낙인찍히기도 했으나 그래도 좋았단다. 취미가 그림 그리기라는 바드리시오 형제님은 현재 ‘사랑 짓는 요십이’ 회장직과 함께 ‘가톨릭 미술가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본당인 삼천동성당의 월보 ‘세넷가’에 만평도 담당하고 있다.

대외 활동에 마다함 없이 열성을 기울이다보니, 가족끼리 나들이 한 번 제대로 다녀온 적이 없어 평생 아내와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아이들 교육이며, 집안대소사를 꾸리며 가정 일을 지켜준 아내 소보영 보나 자매는 삼천동성당에서 10여 년째 교리교사를 맡고 있다. 큰 아들 대환 안드레아, 둘째 딸 소연 아네스, 셋째 아들 대건은 대건안드레아다. 세 자녀 또한 교리교사, 청년성서 봉사, 첼로음악 반주 봉사를 하며 성가정

을 이루고 산다. 정년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 그때는 고마운 아내를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고 싶다는 형제님의 소박한 소망이 이루어지길 빈다.

새벽마다 2백여 명에 오늘의 묵상 · 기도 · 음악 전송

형제님의 좌우명은 “무언가 해야겠다고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무엇을 하자고 권유하였을 때 옳은 일이라고 느껴지면 ‘오케이’ 하자. 그리고 매사에 열심히 충실하게 살자.”라고 한다.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형제님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교우신자 직원들 220명에게 아침 묵상, 오늘의 기도, 음악을 전송하며 나눔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자신의 몫을 찾아 묵묵히 함께 해온 고마운 동료 봉사자들을 생각하며 아침 기도를 올린다. 그가 좋아한다는 시편 23편을 나누며 이야기를 끝맺을까 한다.

주님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시어 주시고

바른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

취재 | 안여진 로사
사진 | 이규현 루카(가톨릭사진가회장)



우리 선조들은 대개 성교요리문답(聖敎要理問答)이라는 교리서로 교리를 배워 찰고(察考)를 거친 다음 교명(敎名)을 정하고 성세(聖洗)를 받아 신자가 되었는데 이를 그리스당이라고 하고 기리사독(基利斯督)을 믿는 기리사당(基利斯當)이라고 표기했다. 기도생활은 주로 천주성교일과(天主聖敎日課)라는 기도서에 따랐는데 매일 조과(早課)와 만과(晩課)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쳤다. 또한 매괴경(梅槐經)과 성로신공(聖路神功)을 바쳤으며 전례주년에 따라 소침례(小瞻禮, 보통 축일), 망침례(望瞻禮, 대축일 전날), 주일(主日)을 비롯한 파공침례(罷工瞻禮), 첫침례오(첫瞻禮五, 매월 첫목요일), 첫침례육(첫瞻禮六, 매월 첫금요일), 첫침례칠(첫瞻禮七, 매월 첫토요일)을 지키고 대재(大齋, 금식)와 소재(小齋, 금육)를 지켰다.

*찰고(察考)-한국천주교회의 특수용어로 사목자가 교우들의 교리지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

*기리사독(基利斯督)-그리스도

*기리사당(基利斯當)-그리스도인

*조과(早課), 만과(晩課)-성무일도와는 다른 평신도들이 매일 조석으로 바쳤던 기도로 조과 17종, 만과 14종의 기도가 있었음(*다음 호에 소개)

*매괴경(梅槐經)-매괴신공 · 목주신공 · 목주기도 · 로사리오기도

*성로신공(聖路神功)-십자가의 길

*파공침례(罷工瞻禮)-의무적 축일. 예수성탄, 예수부활, 성령강림, 성모승천, 천주의 모친 마리아 대축일 등으로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주일(主日)처럼 일을 하지 않고 쉬었음. (침례는 축일, 파공은 일을 하지 않는 것)

심연무 아우구스티노

유항검의 고향 초남이

최진성 미카엘(술내 성당)

전라도에서 순교한 시복시성 대상자는 모두 24명이다. 1791년에 순교하신 분이 2명, 1801년 신유박해(辛酉迫害, 순조 1년) 때 순교하신 분이 9명, 1827년 정해박해(丁亥迫害, 순조 27년) 때 순교하신 분이 1명,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害, 헌종 5년) 때 순교하신 분이 12명이다. 1839년에 순교하신 분들 중에 이일언, 신태보, 이태권, 정태봉, 김대권 등 여섯 분은 1827년 정해박해 때 체포되어 12년간 옥살이를 한 뒤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를 하였다.

전라도 최초 신자로 복음전파 전력투구

유항검 아우구스티노(1756~1801)는 초남이(현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함으로써 전라도 지역 최초의 신자가 되었다. 1801년에 순교한 유중철 요한과 유문석 요한은 그의 아들이고, 그 다음해에 순교한 이순이 루갈다는 그의 며느리, 유중성 마태오는 그의 조카이다.

이분들의 남다른 순교정신은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밝혀져서 신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유항검에게 교리를 가르쳐 준 사람은 경기도 양근에 살던 인척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였다. 그는 권일신의 집에서 교리를 배우는 동안 이를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곧바로 이승훈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은 뒤 고향으로 내려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초남이 마을 옆 찹쌀 논배미

교회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모두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가난한 이웃은 물론 자신의 종들에게도 사랑과 봉사 정신을 베풀었다.

그런데 이들이 천주교를 처음 접하거나 또

는 전파하던 장소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었다. 최근 들어 교회에서도 이런 장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지로 개발하거나 순례길의 코스로 선정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다. 이 장소들은 대부분 시복시성 대상자들의 고향이거나 친척집 또는 유배지나 박해를 피하던 은신처였기에 신앙과 함께한 이분들의 삶의 여정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표제성인(標題聖人, 대표로 삼는 성인)으로 선정된 유항검과 그 가족들이 살았던 초남이를 살펴보았다. 표제성인이라는 상징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전라도 신앙 공동체의 거점지 역할

초남이는 유항검과 그 가족들에게는 고향일 뿐 아니라 전라도 종교 공동체의 거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초남이의 서편 뜰에는 ‘찹쌀 논배미 쉼세 마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유항검은 이 찹쌀배미에서 수확한 쌀로 약 200명이 넘는 행인들에게 떡과 술과 밥을 제공하면서 숲속에서 몰래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진산사건(1791년) 이후에 중국에서 입국한 주문모 신부는 1795년 6월 초에 초남이의 유항검의 집을 방문하여 성사를 주었다. 주문모는 그동안



복원된 유항검 생가의 연못(왼쪽)과 숲 속 교리당(오른쪽)

유항검의 종교적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온 것이었다. 이후부터 초남이는 전라도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대박청원운동(大舶請願運動)의 근원지가 되었다. 주신부는 중국의 전례로 보아 대박(大舶; 큰 배)을 청해오는 것이 조선교회가 박해에서 벗어나고 신교(信敎)의 자유를 얻어 교세가 신장될 것으로 확신하였다. 이에 따라 주신부는 직접 초안을 작성하고 전라도 신자들의 협조를 얻어 청원서를 완성하였고, 계속되는 청원운동의 중심에 유항검이 있었다(차기진, 1998, 409).

그렇지만 신유박해로 유항검이 순교하면서 초남이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종교 공동체는 와해되었다. 전라도에서 윤지충에 이어 유항검이라는 종교 지도자의 죽음은 마치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비유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초남이의 신자들은 사라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유항검의 파가저택(破家?宅)과, 그 일가족이 가매장된 재남리(현 김제시 용지면으로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와 경계 지점에 위치)의 무덤뿐이었다. 파가저택은 대역 죄인의 집을 헐어 버리고 그 집터를 깊게 파서 연못으로 만드는 형벌로, 역적 자손의 대를 끊어버리려는 상징적 행위였으며, 땅속에 흐르는 기(氣)가 물이 닿으면 멈춰버린다는 풍수적 사고의 연장선이었다.

대박(大舶, 큰배) 청원 운동 근거지로 자금마련 주도

1980년대에 초남이를 조사하던 김진소 신부에 의하면, 유존수(당시 59세)라는 분이 ‘유항검 생가는 역적의 땅이라고 연못을 파 버렸는데, 아버지가 배를 만들어 이 방죽에서 태워 주었고, 방죽의 물로 동네 앞뜰에 있는 논에 물을 대주었다’고 한다(김진소, 1987, 209). 또한 유항검이 갖고 있던 논과 밭만 하더라도 1940년도의 전주부(全州府)의 면적(9,554,193㎡)보다 넓은 1,500마지기(9,900,000㎡)나 되었다(김진소, 1998, 95~96). 이런 규모의 토지들이 김제와 금구를 중심으로 10개 군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항검 집을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50마지기의 찹쌀배미가 필요하였고, 대박청원운동에 필요한 자금도 대부분 유항검이 마련할 수 있었다(조광, 1977, 53).

초남이와 이웃한 재남리의 바위백이에서 유항검 일가족의 임시 무덤 자리는 물론, 같은 시기에 순교한 유관검, 윤지현, 이우집, 김유산 등의 묘로 추정되는 곳들을 찾을 수 있다. 유항검 일가족의 주검이 고향 마을에 묻히지 못하고 재남리에 가매장된 당시의 긴박했던 사정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1914년에 보두네 신부가 유항검 일가족의 무덤을 치명자산으로 옮기기 전까지 이들은 바위백이에서 초남이와 찹쌀배미를 내려다 볼 수 있었고, 멀리 숲 속 교리당과 모악산의 능선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초남이가 변하는 모습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면서 이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궁금하다.

생가 · 교리당 복원 순교정신 이어가

초남이에는 현재 유항검의 생가와 교리당이 복원되어 있으며, 재남리의 바위백이 무덤자리에는 십자가상과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 또한 마을과 교리당 입구에는 각각 유항검의 생가 터와 주문모 신부가 첫 미사 봉헌을 한 장소를 알려주는 경관들이 세워져 있다. 유항검의 생가 터에는 파가저

택된 흔적을 찾을 수 있도록 조그만 연못이 만들어져 있고, 이곳을 찾는 신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십이처도 마련되어 있다. 또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숲 속에는 교리당이 아담하게 세워져 있다.

모악산은 종교적 구심력을 갖고 있는 성산이자 저항정신의 보루였다. 금산사가 백제유민들의 아쉬움을 대변해주는 미륵신앙의 성지였기에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륵신앙의 형태가 모악산 주변의 여러 사찰과 암자들에 남아있다. 전주 색장동 출신의 정여립은 모악산 서쪽 줄기인 제비산(308m)에 한때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유항검과 같은 모반죄가 적용되어 죽었고 그의 집은 파가저택의 형벌에 처해졌다. 조선 후기에는 정감록이나 도참사상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모악산은 신흥종교들의 성지였다. 여러 차례의 박해로 천주교의 교세가 꺾이면서 동학(천도교)이 일어나 금구현의 원평에서 동학도들이 봉기를 하였다. 또한 강증산은 모악산의 대원사에서 깨달음을 얻고 증산교를 창시하였다. 증산교는 일제강점기 때 유사종교(類似宗教)로 분류되어 탄압을 받아 일제에 저항하였다.

모악산에 다져진 이러한 저항의식은 유항검에게도 이어졌을까? 초남이의 남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모악산(796m)이 우뚝 솟아 있다. 모악산에서 초남이를 향해 치닫던 산줄기는 금구면을 지나면서 낮은 구릉으로 바뀌다가 초남이에 이르면 들녘이 된다. 이 평야와 구릉이 만나는 곳에 초남이가 있고, 모악산에서 발원한 부용천은 초남이를 지나 만경강으로 들어간다. 예로부터 산줄기와 물줄기는 생활권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한 자연적인 요소들이었다. 유항검 소유의 토지가 금구현에 많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그의 생활권은 금구현이었다.

유항검이 활동하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정감록과 도참사상이 유행하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유항검의 동생인 유관검은 1800년 10월에 자신을 찾아온 이우집을 설득하고 천주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특히 종말이 오



재남리 바위백이의 유항검 일가족 가매장터

면 전주가 반도들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정감록》의 내용, 즉 ‘조선 왕조가 멸망할 때 반도가 전주에서 일어나고 강화와 평택 사이에 만 척의 배가 강을 횡단할 것이다’라는 참언(讖言)을 끌어대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서 유항검 형제와 전라도 신도들은 민중들이 갈망하던 정감록 비결이 천주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진소, 1998, 170~175). 이러한 사상은 조선후기 사회에 나타난 민중의 희원과 같은 것이었다. 당시의 위정자들에게 이러한 사상은 조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외세 즉 서양 세력에 의존하여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반역의 무리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기에 천주교도들에게 반역죄를 적용하였다.

초토화된 초남이 공동체 나중에 수류서 재현

한편 초남이가 관군들에 의해 초토화된 이후부터 모악산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종교적 삶의 은신처로 이용되었다. 박해가 있을 때마다 전주를 비롯한 인근의 신자들은 모악산 골짜기로 숨어들었다. 이들은 모악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따라 임실, 순창, 정읍, 부안은 물론, 담양과 장성 등지까지 피신하면서 종교 공동체를 이어나갔다. 종교 자유를 얻은 후에 금산면 화율리에 수류성당이 세워진 것도 이렇게 산골짜기로 모여든 신자들에게 새로운 구심점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초남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 공동체는 신유박해 이후 백년이 지나서야 모악산 밑 수류성당에 재현될 수 있었다.

성지(聖地)는 팔레스티나 전체를 말하고, 성적지(聖蹟址)는 그 안의 지구들을 말한다고 한다. 팔레스티나처럼 하느님의 계시가 직접 나타난 곳은 성지라 하고, 최후의 만찬 장소나 골고타처럼 예수와 관련된 장소는 좁은 의미에서의 성적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성지들은 넓은 의미의 성적지에 해당하며, 그 범위도 순교자와 관련된 순교지나 순교자의 무덤에 국한된다(최석우, 1982, 248~249). 그런데 한국 전통에 의하면 탄생지를 가장 큰 사적지(史蹟址)로 여기기 때문에 사적지가 성지가 되었고, 초남이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요즈음 성지순례가 일상화되면서 초남이가 혹시 관광지로 전락하지는 않는지 살펴볼 일이다.

〈참고문헌〉

- 김진소, 1987, 신바람 사는 보람, 한국교회사연구소.
 김진소, 1998, 천주교전주교구사 1, 천주교 전주교구.
 조 광, 1977, “신유박해의 분석적 고찰,” 교회사연구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pp.41~74.
 차기진, 1998,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들의 성직자영입과 양박청래에 대한 연구, 교회사연구 제13집, 한국교회사연구소, pp.19~71.
 최석우, 1982, “2. 성지의 개념,” 한국교회사의 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pp.239~252.

산수유나무

한국·중국 등이 원산인 산수유 나무는 이른 봄 잎도 나기 전에 노랗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며, 가을이면 가지마다 빨갛간 열매가 매혹적으로 열린다. 광릉에 자생하며 한국 전역에서 자란다. 지리산 기슭의 구례 산동면과 산내면이 산수유 산지로 유명하다. 한국의 중부 이남에 심는 산수유 나무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키는 7m 정도 자라며 수피는 비늘조각처럼 벗겨진다. 마주나는 잎은 닭똥집 같은 무늬를 가지고 있어 쉽게 다른 잎과 구별할 수 있다.

열매는 타원형으로 처음에는 녹색이었다가 9, 10월에 붉게 익는다. 약간 단맛과 함께 툇고 강한 신맛이 나며 상강 이후에 수확하는데, 날로 먹지 않고 육질과 씨앗을 분리하여 육질은 술과 차, 한약 재료로 쓰인

다. 식은땀이 나거나 해열, 소변이 잦을 때, 월경과다, 이명, 강장제, 노쇠방지에 효과가 있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 잎 다 떨어구도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빨갛게 매달려 있는 산수유 열매를 바라보았다. 가장 빨리 노란 꽃망울을 터



뜨려 봄을 알리더니 겨울까지도 자기 분신 같은 열매를 새들의 먹이로 기꺼이 내놓는 산수유나무... 지난 시간

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까지도 아우르는 것 같아 눈시울이 붉어진다. 대사활동을 멈춘 채 기나긴 겨울잠을 자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산수유 나무는 잠시 잠깐의 휴식마저 거부하는 듯하다. 매서운 추위에도 남녘 산수유나무는 불면의 밤을 견디며 달빛과 별빛마저 뿌리에서 길어 올려 노오란 희망의 봄을 일구지 않을까.

김계숙 요안나

한 때는 번성 지금은 폐쇄 옛테만 쭉쭉히

온 산이 고운 단풍으로 아름다운 시월 어느 멋진 날, 수류 성당(주임=원종훈 신부) 공소를 취재하기 위해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려 성당에 도착하였다. 성당 입구에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예수 성심상과 어우러져 100여년이 넘어 보이는 아름드리 느티나무 한 그루가 가을의 정취를 자아낸다.

성당 안에는 ‘아름답게 솟아오른 주님의 산은 온 누리의 기쁨 수류 성당 120주년 기념미사’ 현수막이 걸려 있어 수류 성당의 역사를 짐작케 한다.

김제시 금산면 화율리에 있는 수류 성당은 1889년 베르모렐(J. vermored 張若瑟) 신부가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에 설립하였던 배재 본당이 그 모태이다. 이곳 배재에 공소가 설립된 것은 1882년 가을, 리우빌(A. Liouville 柳達榮) 신부에 의해서이다.

베르모렐 신부는 1889년 금구 공소에 거처를 정하게 되고 배재 공소는 곧 본당으로 승격되었으며, 그해 56명을 영세시킨 데 이어 안수물(수류) 공소를 설립하였다.

1895년 5월, 3대 주임신부로 오신 라크루(M. Lacreuts, 具瑪瑟) 신부는 10월 초 면 소재지에 있는 전주 이영삼 진사의 수류 재실을 매입하여 성당을 이전하면서 본당 이름을 수류 본당으로 바꾸었다.

수류 성당이 생기자 성당이 들어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주민들은

떠나고, 그동안 제대로 미사에 참례하지 못했던 각처 신자들이 이주해 와 주민 400여 가구가 모두 신자인 완전한 교우촌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도 수류는 교우촌 명맥을 유지해 마을 주민 대부분이 신자이다.

6·25 한국전쟁 때 수류 성당 전소 … 신자 50여 명 학살 당해

1900년 5월, 4대 주임으로 부임한 페네(C.Peyet 裴嘉錄) 신부는 1906년 1월에 성당 신축 공사에 착수하여 이듬해 음력 8월 48칸의 목조 성당을 완공한 뒤 10월 1일 드망즈 주교 주례로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그 모습이 나바위 성당과 비슷하였다고 한다.



좌로부터 김태섭 형제, 정양순 자매, 고광열 사목회장

지금도 신자들의 가슴에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것은 성당 화재이다. 1950년 9월 24일 주일, 공산당원들이 무전기를 찾는다고 성당에 들이닥쳤는데 찾지 못하자, 주일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성당 안에 모여 있는 신자들을 몰살하려고 성당 안에 나무를 쌓아 놓고 불을 질러 전소됐다. 다행히 신자들은 화마를 피해 무사히 빠져 나올 수 있었으나 50여 명의 신자들이 인민군에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다. 또 평상복을 입고 수류로 피란 온 전주교구장 김현배 주교와 신부 8명, 수녀 14명이 모두 체포돼 전주교도소와 원평교도소 금산면 내무소로 압송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휴전 후 수류 성당 신자들은 구호물자를 적립해 성당 신축 경비를 마련하였다. 신자들은 소실된 옛 성당처럼 목조 건물을 짓지 않고 직접 냇가에

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 와 벽돌을 만들어 1959년 성당을 지었다. 성당 지붕은 옛 성당이 불탈 때 주워 모아두었던 함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옛날 멀리 전라남도까지 관할하던 수류 성당은 지금은 김제시 금산면 화율리(상화, 율치), 금성리(평지, 시목, 복호) 정읍군 산외면 상조리(구장) 일대를 관할하다가 구장리 공소는 칠보 선교 성당으로 이관되었다. 또 성당에서 십 리 안에는 본당에서 주일미사와 매일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 폐공소가 되었다고 하여, 옛날 공소 중에서 시목동 공소와 복호동 공소를 다녀왔다.

〈시목동 공소〉

수류 성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시목동 공소는 예전에는 점촌이라고 불려 지금도 점촌이라고 해야 쉽게 알아듣는다고 한다. 금구 수류라는 지명이 처음 기록된 교세 보고서에는 1892-1893년의 것으로 교우수는 69명이고, 비고란에 옹기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1894년-1895년 교세 보고서에 수률(시목동, 91명) 안수률(35명)이 확인되며, 수류 성당이 세워질 때 ‘밖앗 수률’에는 신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초가 강당 지어 신앙생활 구심점 역할 해

범응준 회장은 전라남도에서 순창 회문산 아래 아챙이 공소로 와서 살다 신부님의 초청으로 시목동으로 와 옹기를 구우며 신앙생활을 하였다. 옹기쟁이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피난처로 좋았다. 범재식 회장(범석규 신부님 큰아버지)은 마을 중앙에 8칸 초가 강당을 지어 공소예절을 주도하며 신앙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강당은 2칸은 제대로 사용하고, 가운데 4칸은 경당으로, 뒤 2칸은 신부님과 식복사 방으로 사용하였다.



공소 옛 터에서

또한 종각도 세웠는데, 6·25 한국전쟁 때 수류 성당의 종을 인민군들이 가지고 가자 이곳의 종을 수류 성당에 기증하였다 한다. 그리고 예비수녀인 양 세실리아가 이곳에 와서 잠깐 있다가 수녀원에 가더니 14처를 보내줘서 설치하였다. 후에 강당 지붕은 기와를 새로 얹었다. 6·25 한국전쟁 후 사람이 외지로 떠나 점점 줄어들자 강당을 관리하기가 힘들어 허물면서 기와는 수류 성당 담장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한다. 지금은 옛날의 그 영화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터만 남아 그 옛 자취를 보여 주고 있었다. 최재선 신부님

께서 부임하신 후 3일 만에 범응준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애통해하며 울며 묘지까지 따라가셨다고 한다.

웅기 속에 고상·성물 넣고 다니며 전교 활동

범해원은 주로 연락을 담당하였다. 웅기 굽는 사람들은 상놈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성물이나 고상들을 웅기에 넣고 숨겨 다니면서 전교하기가 좋았단다. 신부님 심부름으로 순창이나 담양 등지까지 연락을 전하러 다닐 때는 밤에 호랑이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여 따라가다가 성당 근방에 도착을 하면 없어졌다고 한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김태섭 베드로 어르신(77세)은 전한다. 또 동학군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많이 괴롭히자 일부러 동학군 접장이 되어 신자들을 보호하였다. 그는 딸만 셋인데, 큰딸이 범일순 로사(김태섭의 모친)로 김병수 스테파노(김태섭의 부친)와 결혼을 하였다. 김 스테파노는 구장리, 어름치, 양생동을 다니면서 야학을 하며 한글, 조과, 만과,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소경가, 허탄가 노래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곳은 먼 내에서 가장 부촌으로 넓은 평야와 밭이 많아 집집마다 머슴을 두었다. 그래서 6·25 전쟁 후에는 경상도에서 머슴을 살려 올 정도였다. 신자들이 다 잘 해 주어서 그들도 다 부자가 되었다.

특히 노 방지거는 시목동으로 올 때부터 부자로 솜 대신 돈 백 원짜리로 짝 깔아 이불을 만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여름에 양식을 대주고 이자도 받지 않고 일을 하게 하여 품삯으로 대신하는 등 가난한 신자들 구휼에 앞장섰다 한다.

또한 청년들은 머슴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연극도 만들어서 강당에서 장기자랑을 하기도 하였다. 고광열 회장은 1954년쯤에 직접 야학을 열어 부녀자들의 한글, 교리문답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문점례 마리아(75세) 어르신은 부모님께서 신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4살 때 홍역을 심하게 앓다가 죽으려고 하자 마리아로 대세를 받고 살아났다. 그 뒤 화율초등학교를 다녔다. 그곳에는 박 마르셀라 수녀님과 이 뿌리나 수녀님이 있었는데, 박 수녀님은 국어와 산수를 가르치고, 이 수녀님께서 는 음악을 가르치셨다. 특히 이 수녀님은 얼굴도 예쁘고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셔서 성가를 많이 가르쳐 주셨다. 예수 성탄, 부활, 성령강림, 성모몽소승천 등 대축일 때마다 그 전례에 맞춰 연극과 노래를 가르쳐 주어 수류 성당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성당은 어느 공연장 못지않게 성황을 이뤄 축



시목동 공소 강당 기와를 엮은 수류 성당 돌담길

제 마당이었다. 마리아 어르신도 막달레나 성녀 역을 맡아서 성극을 하고, 독창으로 성가를 부르기도 하였단다. 1회 졸업생은 37명이었다 한다.

새로 신부님들이 오실 때나 김현배 주교님께서 견진성사를 주시기 위해 오실 때, 신자들이 2~3일 전부터 나와서 마을길을 새로 다듬었다. 그리고 원평까지 가서 양쪽으로 서서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며 신부님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신부님 뒤를 따라 모두 함께 걸어왔으며, 어디에서도 그런 기쁨을 맞볼 수 없었다고 김태섭 베드로 어르신은 회고하신다.

〈북호동 공소〉

정양순 베르짓다(79) 어르신과 김태섭 베드로(77) 어르신과 함께 1895년 설립된 북호동 공소를 갔다. 수류 성당에서 위쪽으로 산길을 따라 가니 감나무가 가로수처럼 줄지어 있어 멋진 가을 풍경을 자아낸다. 베르짓다 어르신 옛집 입구에는 성모상만 남아 우리를 반겨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화로 이사를 해 사람이 살지 않고 퇴비자루만 쌓여 있고 주변에는 30여 마리의 흑염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베르짓다 어르신 댁은 친가와 외가가 모두 구교 집안으로 할아버지 때 전라남도 담양에서 이곳으로 왔다. 초대회장은 정판식이며 2대 회장은 정판암이다. 3대 회장은 정인찬 말구(베르짓다 부친)이며 최병윤(베르짓다 남편)으로 대를 이어 공소회장을 역임하며 북호동을 이끌어왔다. 베르짓다 어르신은 경상도 사람과 결혼했지만 이곳에서 살면서 베르짓다 어르신 댁에서 공소예절을 하셨다 한다.

일제 때 금광 6·25 한국전쟁 때 신부·수녀 피신처로

이곳에는 일제 강점기 때 금을 캐느라 굴을 파놓은 금광이 있어 백여 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자 6·25 한국전쟁 때 신부님, 수녀님들이 오셔서 숨어 있기도 하였다. 회장과 몇몇 교우들은 밥을 해서 몰래 갖다드리곤 하였다.

예전엔 신부님이 오시면 하느님 오신 줄로 알고 신부님께서 공소로 봉성체를 오실 때 복사들이 종을 치고 가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감히 쳐다볼 수 있느냐며 신자들은 비가 아무리 세차게 오거나 땅이 질퍽해도 두 손을 모으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

김병엽 베드로 신부님께서 사목 방문을 오시면, 미역국을 끓여놓고 술을 받아와 저녁에 외인들까지 다 오라고 해서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 외인들도 그 신부님을 모두 좋아했다. 또한 신부님께



공소예절을 드렸던 정양순 베르짖다 자매집

서는 없는 사람의 심정을 잘 헤아려 몰래 우유도 사다 넣어주고, 생필품도 사다 놓고, 어린 아이들이 맨날 발가벗고 뛰어다니며 놀자, 운동화를 사서 돈과 함께 몰래 갖다 놓고 가곤 하셨다며, 그렇게 인정 많은 신부님은 없다고 하신다.

베르짓다 어르신은 최재선 요한 신부님(전 초대 부산 교구장)께 첫 고해를 했다. 신부님께서는 판공성사를 주러 오셔서 찰고를 잘 하면 유기(노래와 춤)를 하라고 해 꽃을 만들어 고깔을 쓰고 했다. 그러면 상분을 하나씩 주곤 하셨다. 베르짓다 어르신은 신부님이 가실 때 성당이 떠나가도록 통곡을 하셨단다. 그때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랬다고 회고하신다. 하느님께서 좋은 신부님을 보내주셨다며, 참 성인 신부님이셨다고 어르신들은 말씀하신다. 이곳 출신으로는 서정수 알렉스 신부님이 있고, 베르짓다 어르신도 아들 최상기 레오 수사와 딸 최 아론 수녀를 두었다.

수류 지역은 집집마다 수도자가 나올 정도로 성소의 못자리이기도 하다. 김영구 베드로, 서정수 알렉스, 정재석 요셉, 박문규 미카엘, 김기봉 필립보, 김반석 베네딕토, 김영일 아우구스티노, 안복진 요셉 신부와 누이 두 분이 수녀이다. 또 박영규 바르나바, 한봉섭 시몬, 김병환 요한, 김성진 토마스, 윤양호 클레멘트 신부와 누이 하나가 수녀이며 윤기호 요셉, 고봉호 베드로 신부님 등 많은 사제를 배출하였다. 또한 수도자는 최상기 레오 수사를 비롯 20여 명의 수녀님들이 배출되었다.

그 옛날 사랑의 신앙공동체를 이루며 신자들의 기도소리로 넘쳤을 공소들이 지금은 성당과 십 리 안에 위치해 다 폐공소가 되었다. 고광열 요한(84세) 수류 성당 사목회장과 김태섭 베드로, 정양순 베르짓다 어르신과 함께 그 옛날 공소들의 발자취를 따라 터만 남은 공소를 둘러보니 가슴에 싸한 바람이 불었다.

취재 · 사진 | 양선자아녜스



성체사랑 바탕 이웃 돌볼 실현



인보성체수도회를 방문하기 위해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1동 361번지를 찾아갔다. 마침 수도원 정기 가을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가을이 물드는 10월의 마지막 밤. 수녀원 성당 안에서 은은히 울려 퍼지는 그레고리안 성가를 가슴으로 들으며, 마음과 입을 모아 함께 가을노래를 큰 목소리로 마음껏 불렀다. 수녀원에서 열린 음악회는 지금까지도 내 마음 속에서 천상의 음악소리로 쟁쟁하게 남아있다. 가슴으로 들리는 음악이 마음 속에

평화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경이로움을 체험하였다.

두 번째 방문은 지난 11월 16일(월) 수도원 설립 53주년 기념 미사가 봉헌되는 날이었다. 미사 중에는 수도서원 50주년과 25주년을 맞이한 수녀들에게 축하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미사 후 수도회 창설자 ‘윤을수 라우렌시오 사제의 사상과 영성’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있었다. 저녁 시간까지 이어지는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나니, 인보성체 수도회에 대한 대략적인 정신과 영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윤을수 신부 6·25 한국전쟁 때 회원 모집



50주년때 회원 단체 사진

인보성체수도회(총원장=김주희 수녀)의 태동은 한국 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을수 라우렌시오(1907~1971) 신부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에 인보회(Caritas Coreana) 한국지부장에 취임하면서 요구호자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는 인보 회원들을 모았다.

그리고 1951년, 인보회 활동의 하나로 경기도 부천에 골롬바사(社)를 설립하고 전쟁고아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이것이 윤 신부가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계기였으며, 이때 복음적 사랑실천을 실현할 수도회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윤 신부는 1956년 11월 19일 골롬바사 내에 사회사업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구산후생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이때 많은 학생들은 구산후생학교를 수녀원으로 알고 들어오기도 하였다고 하며, 그런 연유로 인보성체수도회

는 구산후생학교가 설립된 날을 수도회의 설립일로 지낸다. 학생들은 졸업 후 사회사업과 함께 전교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교리신학, 윤리신학, 전례, 영성신학, 교회사, 라틴어, 종교음악 등의 과정을 수료하고, 주말에는 보육원, 산간벽지 등에 나가 현장 실습을 했다. 이듬해 3월 1일에는 구산후생학교 내에 수도생활을 원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도반을 별도로 편성해 인보성체수도회의 회원 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수도회는 1958년 6월 5일 서울교구장 노기남 대주교로부터 서울교구 소속 수도회로 인가를 받고 같은 날 24명이 첫 서원을 했다.

그 후, 교황청 지시에 따라 1966년 3월 4일 수도원이 서울교구에서 전주교구로 이전하여 옛 전주 교구청에 자리 잡았다.

사랑의 결정체 성체성사가 영성의 핵심

인보성체수도회의 영성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육화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온 존재를 내어 주신 극진한 사랑의 결정체인 성체성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수난 전날 저녁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하나 하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제자들의



성체 현시

발을 씻겨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성체의 사랑이 바로 인보(Caritas)이며 이 성체성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사랑의 정신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이다. 곧 행복이다. 이 행

복은 자아에 대한 참된 겸손, 남에 대한 사랑 즉 인보의 실천에 달려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이다.

인보(隣保)의 실천은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의 성체사랑으로 행복을 공유하도록 돕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환자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무엇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것의 여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줌으로 사랑과 치유의 만남이 되고 그를 주인으로 받들어 돕는다. 그래서 그들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인보사상의 핵심이다.

회원 4백 명 노인·장애인 복지, 유아교육 분야 활동 주력

수도회 설립 당시에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으나, 이후 윤 신부는 나환우 보호시설인 ‘성 라자로 요양원’도 맡아 돌보게 된다. 또한 사제가 없는 도서지역이나 공소로 수녀를 파견,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저녁에는 교리를 가르치게 하였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개간·간척사업도 함께 했다.

70년대 들어서는 교리 교사로서의 임무가 큰 몫을 차지했다. 당시 전국 교사들의 10% 이상이 인보성체수도회 수녀들이었다. 80, 90년대에는 주로 어린이 교육과 여성 복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탁아소, 유치원, 학교 등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특히 인보성체수도회는 한국 교회 최초로 1989년 4월 페루에 선교 수녀를 파견, 현재 원주민 직업학교와 유아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미국, 일본, 페루, 몽골, 베트남 등지에 회원을 파견하는 등 해외 선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이 수도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도직 활동 부분은 노인과 장애인 복지를 위시한, 사회 복지와 유아 교육 사도직이다. 사회 변

화와 지역 사회의 필요에 의해 수도회에서는 90년대부터 신앙을 처음 접하게 되는 첫 여성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정교리를 도입하여 가정의 성화를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 가정 교리는 칠레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으로는 무의탁 할머니들의 보호시설인 ‘인보의 집’,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 요양 시설인 ‘성 요한의 집’, 행려자 보호 시설인 ‘사랑의 집’, 양로원 ‘인보마을’, ‘인보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마련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전주 사랑의 집’, ‘전주 인보노인복지센터’, ‘전주시 팔복 성모 어린이집’, ‘군산 장애인복지관’, ‘진안 다문화센터’, ‘남원 인보방문요양센터’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보성체수도회는 400명의 회원들이 각종 교육과 사회사업을 비롯해 12개 교구 60개 본당에서 사도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교구는 노송동, 인후동, 전동, 중앙, 무주, 삼례, 시기동, 시기동 등천공소, 월명동, 영등소라, 인월공소에 파견 되어있다. 또한 전북대학병원 원목실, 남원의료원 원목실, 교구청 관리국, 비서실, 성소국 등지에서도 수녀들이 소임을 맡고 있다.

인보성체수도회의 수녀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본받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 안에서 예의와 존경, 개방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며, 공동 책임감으로 사도적 경험을 나누고, 수도 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보정신을 바탕으로 시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회사업과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는 인보성체수도회. 행복의 말을 타고 명랑하고 재미있게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 평등하고도 성숙된 삶을 꾸려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력과 희망이 공동체의 기도 소리와 함께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취재 | 조은아 베로니카
사진 | 수녀원 제공



점 음 이 있는 곳에

초등사목부 기획팀

어린이 교리교육은 우리에게

여름신앙학교를 알리기 위해 교중미사 시간에 초등부 교리교사들이 나와 율동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귀엽고 깜찍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양증맞게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며 박수를 치곤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는 틈틈이 짬을 내서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 저렇게 높은 완성도를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잠깐 들기도 했었다. 아이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만으로는 저렇게 맛깔나게 표현할 수 없을 텐데 ‘교리교사들만의 어떤 노하우나 아이템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다. 그 견인차 역할을 교구의 초등사목부 기획 팀(지도신부=정세진 토마스)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취재에 나섰다.

전국 최초의 기구 ... 어린이 교육·연수 밑그림 그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정말 어렵사리 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워낙 하는 일도 많지만 학교생활과 직장생활로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다. 주말에는 집을 비우기 일쑤라 어떤 때는 가족들의 눈치가 보이곤 한다고 어

려움을 털어놓는다. 초등사목부 기획팀은 2002년에 조직되었으며 전국의 교구를 통틀어서 우리 교구에만 있다고 한다. 이 기획팀은 초등부 교리교사들을 대상으로 여름신앙학교나 어린양잔치 같은 교구 행사 때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교육하는 단체이다. 직접 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두지휘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기획팀의 지도 신부인 정세진 신부님은 “초등사목부 기획팀은 우리 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연수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야말로 전주 교구 초등부 교육의 핵심이며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삶의 자리이지만, 부르심에 응답하며 ‘섬김과 봉사’를 기쁨으로 하는 그들이 있기에 2010년 저희 초등부의 날씨는 청명하답니다. 저는 그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며 기획팀 칭찬이 자자하다.



기획팀은 상반기엔 신입교사학교, 여름신앙학교, 하반기엔 어린양잔치, 대림성탄연수가 있으며 초등부 교리교사들을 위한 아카데미는 연중으로 치러진다. 신입교사학교는 고3 수험생이 수능을 마치고 교리교사에 입문

하는 과정으로 신앙적으로 신앙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고3 수험생이 신입교사 연수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진다고. 또 여름 신앙학교, 주일학교 행사 때 아이들의 눈높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도록 율동 지도 및 시연까지 하고 있단다. 율동이나 노래는 타교구에서 시도했던 것을 도입해오기도 하고 직접 창작하기도 한단다.

연이은 행사 힘들지만 보람도 커

5월에는 교사의 날 행사 때 주교님께서 장기근속교사 표창, 장학생 표창을 해주시는데 초중고 교리교사 연합회와 같이 행사를 진행한다. 초등부 아이들의 캅스카우트 캠프 때 주일날 종교활동 시간에 미사지원 활동을 나가는데 그때도 5월이다. 또 여름신앙학교 연수가 5월에 있어 그야말로 5월은 기획팀의 전성기이자 힘든 고난의 시기라 할 수 있다. 행사가 연이어 있어 재충전할 시간도 부족하고 행사를 치르기 전 준비기간이 시험기간과 겹치면 정말 힘들단다. 하지만 그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팀원들은 낮 시간을 활용하지 못해 안타까웠단다.

어린양잔치는 기획팀과 초등부 교리교사 연합회가 합동으로 진행하는데 교구와 지구별로 번갈아 치르며, 지난 11월 14일의 대림성탄연수 때는 교리교사들이 50~60명이 참가해 대림기간 동안의 교리교육과 강론, 무대예술, 성탄예술제 때의 뮤지컬과 율동지도가 있었다. 그런데 신세대 교사들은 새로운 동작을 해도 아주 습득력이 빨라 금방 받아들인단다. 11월 22일에는 어양동 성당에서 레크리에이션이라는 주제로 연수가 있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군산에서 열렸다.

기획팀의 가입 조건은 교리교사를 1년 이상 하신 분, 또는 1년 동안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식 기획팀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지도신부님과 간사(서



용석 바오로), 팀장(유미라 헬레나), 재무(유영미 아네스), 팀원으로 구성된 기획팀은 대부분이 학생과 직장인으로, 군대를 가는 등 조금은 인원이 들쭉날쭉하지만 현재 8명이 기획팀을 맡고 있다. 유미라 팀장은 팀장 맡은 지 2~3년으로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하였으며, 교육국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와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었다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아이들과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니 호응이 잘 맞을 수 있었다. 기획팀을 이끌면서 애로사항은 완벽함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격인데 연습부족으로 최악의 행사가 되었을 때 아꼈했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이 정말 잘했다, 애썼다고 칭찬을 해줘 전화위복이 되었다.

현재 8명 사랑과 열정으로 활동

유영미 재무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병으로 4년째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고 한다. 냉담 후 교리교사를 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인도 같아 신기했으며 연수생 과정을 거쳐 봉사자가 되어 책임감이 무겁단다.

지구 교리교사 연합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곳이 많으며, 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지구의 월례회의에 찾아가 지구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수렴

하고 있다는데, 정말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신앙의 열정이 없다면 어림없는 일일 것 같았다.

함께 자리한 서용석(청소년 교육국) 간사는 자신들의 귀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기획팀을 격려하면서, 능동적인 주체로 활동하고 있어 기특하다고. 단지 교육국은 서포트 역할을 할 뿐이라면서 참으로 고마운 존재이며 인재 중의 인재라고 치켜세운다. 기획팀원들이 모두 교리교사 출신이라 교사들의 애환과 부족함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팀원으로서의 성취감이 크다고. 진정 팀원들이 꿈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내년에는 여름신앙학교 자료집을 만들 계획이며, 기획팀이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비즈공예나 POP 등의 자격증을 따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다

올 성탄예술제 때는 초등부 친구들의 율동과 뮤지컬을 보면서 초등사목부 기획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해온 노고와 시간을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초등부 아이들의 신앙적인 성장에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획팀 팀원들 하나하나가 그저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것 같았다. 청소년 교육국을 나서는 내내 환한 별들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젊은 열정으로 살아가는 참 신앙인인 기획팀원들처럼 그렇게 별들은 온밤을 지키고 있으리라.

취재 | 김계숙 요안나

사진 | 이규현 루카(가톨릭 사진가회장)



국수가 붙었거든.

❶ 육체파

어느 마을에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집에 인사를 하러 갔다.

시아버지께서 며느리의 인사를 받으면서 덕담을 하는 중에 며느리에게 물었다.

“애, 아가야, 너는 어디 이씨이고?”

“네, 전주 이씨예요.”

“내 며느리가 그러면 그렇지 참 똑똑하다. 그럼 파는 무슨 파이고?”

한참을 머뭇거리던 며느리 왈...

“네, 아버님 저는 육체파입니다.”

❶ 성형 견적서

못 생긴 여자가 성형수술을 시켜 달라고 남편을 졸랐다.

남편은 아내의 시달림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숨씨가 가장 좋다는 성형외과를 아내와 같이 찾아갔다.

남편이 “저...견적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의사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기왕이면 수술비를 위자료로 쓰시고, 새 장가를 드시죠. 결혼 비용까지 충분할 것 같습니다.”

❶ 세계 김 콘테스트

대한민국에서 세계 김 콘테스트가 개최됐어. 세계 각지에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김들이 앞다투어 모여들었어. 모두 자신들의 윤기 나는 까만색을 자랑하고 있는데, 유독 한 김만 하얀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까만 김들이 하얀 김한테 물었어.

“너는 김이면서 왜 이렇게 하얗니?”

그러자 하얀 김이 대답했어.

“난 앙드레 김이니까.”

❶ 국수와 참기름의 싸움

어느 날, 국수와 참기름이 싸움이 붙었어. 그리고 다음날, 국수가 경찰한테 붙잡혀 갔어. 왜 붙잡혀 갔냐고?

참기름이 고소했거든.

국수가 붙잡혀 간 다음날, 참기름도 경찰한테 붙잡혀 갔어. 왜냐고?

❶ 정신병원 상담실에서

정신병원 상담실에서 한 남자와 의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상인과 정신병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냐는 남자의 질문에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 놓고 사람들에게 티스푼, 숟가락, 양동이를 주며 욕조의 물을 빨 도구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어떤 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말을 들은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 “양동이를 선택하는 사람이 정상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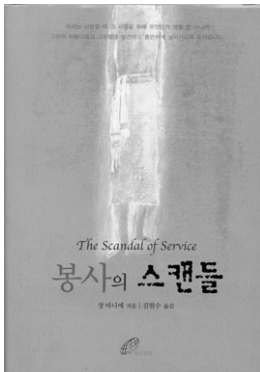
그러자 의사가 하는 말.

“욕조의 배수구 뚜껑을 여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열린 마음으로부터

김동욱 세실리아(술내 성당)



장 바니에 저 / 김현수 옮김
바오로 달 / 6,500원

몇 년 전이었는지, 성삼일 전례 중 발씻김 예식 때 사목회 임원들이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내가 발을 씻어주는 입장이 라면 기꺼이 하겠는데, 내가 발을 내밀어야 하는 입장이라니, 예쁘지도 않은 발을, 그것도 온통 각질 투성이 라 거칠거칠한 발을, 주임 신부님 앞에 딱하니 내어놓을 수는 없었다. 어디 발관리 샵에 가서 관리라도 받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못하겠다고 했다.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되묻는 베드로의 심정도 비슷했으리라고 짐작해본다.

베드로는 나처럼 선뜻 내놓기에는 왠지 부끄러운 발의 문제가 아니라 스승으로 모셔왔던 예수님께 어찌 발을 씻겨달라고 내밀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였겠지만, 결국 발을 내밀 수 없다는 심정은 똑같은 테니까.

이 책 ‘봉사의 스캔들’은 라르슈 공동체의 발씻김 예식에서부터 시작한다. 라르슈 공동체는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사는 집인데, 성목요일 의식의 마지막에 온 공동체원이 둥글게 앉아 옆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예식을 한다고 한다. 또한 교파를 초월한 라르슈 공동체의 피정에서 모두가 성체를 영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통해 은총과 일치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씻김 예식을 설명하고 그 발씻김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씻김을 통해 이끄시려고 했던 길은 결국 일치로 향하는 길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사랑했기에 결국 그분 앞에 발을 씻어주시도록 내어드린 베드로와,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는 동안 아무말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어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일치로 향하는 길의 가장 큰 장벽은 얕이나 이해가 아니라 결국 내가 아닌 것들에 대해, 내가 다가가 일치하려는 상대에 대해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렇다면 왜 ‘스캔들’일까? 스캔들이라는 말 속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봉사라는 단어와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했을까? ‘봉사’를 떠올릴 때 우리는 먼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된다. 남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 그것만이 봉사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봉사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하면 그 봉사 혜택을 입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발을 씻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발을 내어놓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나에게 너희의 발을 내밀었듯이 서로를 향해 발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뜻도 함께 있지 않을까? 기꺼이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봉사의 시작이라면, 발을 내어 줄 수 있는 용기가 봉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바로 이런 용기도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하고, 서로를 향해 열려 있어야 섬김의 열기가 모두의 마음과 영혼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을 테고, 그래야 봉사가 더 이상 일방적인 스캔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일치의 도구로서 ‘봉사’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백합향기는 사랑을 타고

홀로 핀 꽃보다 서로 어우러져 핀 꽃들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관심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꽃 피우고 열매 맺어 하느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어느 누군가의 영혼을 향기롭게 해줄 백합이 되어주시지 않으렵니까? 여러분이 구독하시는 한 권의 책, 후원해주시는 성금으로 만들어지는 「쌍백합」, 바로 사랑의 물방울로 하늘의 꽃밭을 가꾸어 가는 우리 교구의 잡지입니다.

수도회 거룩한말씀의회, 경로수녀회, 국제가톨릭형제회, 까리파스수녀회, 노틀담교육수도회, 마리아의 딸수도회,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녀회, 사랑의씨튼수녀회, 샬트르성바오로수도회, 서울성가소비녀회, 성글라라봉쇄수녀회, 미리내성모성심수녀회, 성모영보수녀회, 성모카테키스타수녀회, 성바오로딸수도회, 아씨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 예수성심수녀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예수수도회, 인보성체수도회, 작은자매관상선교회, 전교가르멜수녀회,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성가정의카푸친수녀회

연구소 호남교회사연구소, 예수회영성연구원, 호남교회미술연구소

피정의집 나바위피정의집, 천호피정의집, 해월리피정의집

성지 치명자산성당, 숲정이성지, 초남이성지

교육기관 해성중학교, 해성고등학교, 성심여자중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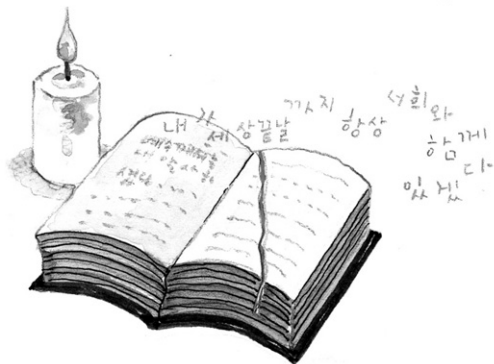
유치원 전주성심유치원, 전주성모유치원, 군산해성유치원, 군산성심유치원, 익산성심유치원, 김제성모유치원, 원평성모유치원, 정읍성심유치원, 고창셋별유치원, 부안성심유치원, 남원소화유치원, 진안소화유치원

사회복지기관 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성가복지회, 아미고의집, 나누리청소년공부방, 고창어린이집, 팔복성모어린이집, 솔내청소년수련관, 성모노인주간보호센터, 성모양로원, 성요셉동산양로원, 영보은혜의집, 야고바의집, 인보노인종합복지관, 빈첸시오의집, 아가페정양원,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무지개가족, 작은자매의집, 작은천사어린이집, 한우리공동체, 전주 사랑의집, 장애인복지협의회, 가정방문실, 동혜원, 상지원, 익산공소, 신암공소, 선녀머종합사회복지관, 고창자활후견기관, 익산성모병원, 남원의료원원목실, 성바오로복지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천주교원목실, 성요셉근로자의집, 천사의집, 사랑의집, 가톨릭 농민회, 전주교도소, 장애복지시설, 새터민

후원해 주신 분 : 익명

후원계좌 : 전북은행 505-13-0313012 천주교 유지재단

사랑방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준 이웃들의 사랑.

영혼을 맑게 해 준 책 한 권,

아직도 감동의 파문이 남아 있는 영화 한편.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그림 한장의 추억.

살아가면서 느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사연들을 서로 나누며

기쁨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분량(A4 1-2매 글자크기 10p)

감사와 기도로 항상 기뻐하며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 16~18).

이 성경 구절은 교회에서는 교훈으로, 가정에서는 가훈으로, 개인에게는 좌우명으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하느님 말씀 중 하나가 아닌가 한다.

기도와 감사는 하느님께,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와 감사가 먼저 나오지 않고 우리들에게 먼저 기뻐하라고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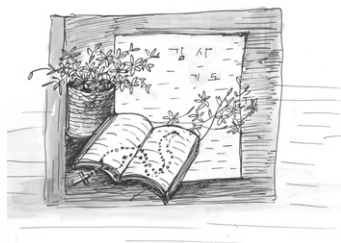
록펠러에게서 하느님의 심오한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된다. 53세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갑부가 되고 55세에 나무막대기처럼 말라가는 Alopecia라는 희귀병에 걸리게 되어 1년 안에 사망하리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휠체어를 타고 치료를 받고 다니던 어느 날 록펠러는 병원 현관에서 소란한 소리를 듣게 된다. 비서를 통해 왜 그렇게 소란한지 알아보라고 한다. 어린아이가 백혈병을 앓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입원비가 없으니 입원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먼저 입원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보고받는다. 듣고 있던 록펠러는 비서에게 입원비를 내주고 치료비는 나중에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어린아이를 입원하도록 한다. 입원이 허락된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뻐하며 병원 안으로 들어간다. 이들의 기뻐하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록펠러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참 기쁨을 느끼게 된다.

치료를 받고 병원을 나서는 록펠러는 다시 한 번 그 기쁨을 회상하고

자선 봉사 단체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한다. 그 때 다짐했던 자선 봉사 단체가 오늘날의 ‘록펠러 재단’이다. 록펠러는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학교도 많이 세우게 된다. 미국의 한 도시는 록펠러 재단의 후원으로 전 시민이 무료로 수도물을 지금도 공급받고 있다. 10년, 20년 그리고 30년, 40년 자선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기쁨을 느끼는 동안 1년 안에 사망하리라는 Alopecia라는 질병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98세(1839년-1937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고 하느님 곁으로 갔다.

또한 록펠러는 어머니께서 주신 10가지 말씀을 성실히 수행했다.

1. 하느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2. 성직자를 하느님 다음으로 섬겨라.
3.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4. 교회에서는 항상 앞좌석에서 예배를 드려라.
5. 오른쪽 주머니는 십일조 주머니로 하라.
6. 아침에는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꼭 읽어라.
7.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8.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9.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10.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이다. 성경에는 shema(쉐마, 들어라) 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을 하느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므로 항상 귀를 열고 들을 준비를 해야 하겠다.

월보 '순교일번지' 11월호

정우진 이사악(전동 성당)

나에게 그리스도는...

나에게 그리스도는 봄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대지를 바라보면
세상이 죽은 듯이 멈춰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봄이 슬그머니 다가오니,
세상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을 뚫고
여리디 여린 새싹이 얼굴을 내밀고
그 앙상한 모습을 드러냈던 나무에서
연초록 새순이 돌아나고
겨울잠에 빠져있던 동물들이
기지개를 켜고 깨어납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처럼
나 역시 새로운 나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의 마음도
삭막해져 버린 나의 마음도
얼어붙어버린 나의 마음도
메말라버린 나의 마음도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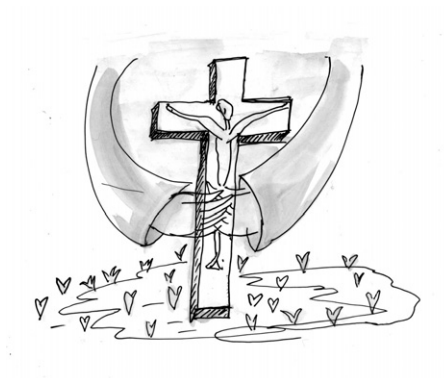
그러므로

나에게 그리스도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봄입니다.

*가을에 뭇 봄 타령……. 이 글은 이나시오 30일 영신수련을 임하던 중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분의 물음에 대한 답글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대한 대답
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심 세실리아 수녀성바오로 복지병원



마음속에 희망의 가지를 품으면 기쁨의 새가 날아와 앉는다



‘거룩한 독서반’ 개근상을 받고 축하 인사를 받으며 기뻐합니다. 새가 날아와 앉기 위해서는 작은 가지 한 부분이면 되듯이 우리 일상의 기쁨도 작고 소박한 것에서 비롯되나 봅니다.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희망의 가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니 절망하지 않기 위해 희망의 가지를 품고 살아야하는 절박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기대만큼 두려움도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나눔이 풍요로워지고 서로 간의 교제가 깊어지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시작하셨으며 친히 이끌어 가심을 느낍니다.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게 변했습니다.

전에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내용을 무심히 읽어 갔는데,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숨겨진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은 제게 설렘의 시간입니다. 묵상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때론 두려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지난날 저는 광야 같은 삶을 체험할 때마다 말씀으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힘을 얻어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독서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거룩한 꿈을 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로움이 아니라 들꽃 같이 소유가 없어도, 가식의 옷을 입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자유로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서 하는 거룩한 독서는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사람들 안에서 당신 뜻을 펼쳐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독서모임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몹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움도 있을지 모릅니다. 화평한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서로 나누며 행복을 공유할 때 느껴지는 사랑이 거룩한 독서가 주는 기쁨이겠죠.

나눔은 말씀의 뷔페라고 합니다. 각기 다른 음식을 나누는 잔치로 비유합니다. 주님께서 골고루 맛있게 먹는 잔치 마당에 저희를 초대하십니다.

방황하거나 간이역에 안주하지 말라 하십니다. 거룩한 독서는 저를 혼자만의 영성에서 함께하는 영성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순례의 여정을 알게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월보 '세넷가'

박영숙 그라시아(삼천동 성당)

나에게 주님은...

“애...내가 성서백주간, 네 이름으로 신청하고 왔다.”

어느날 성당에 다녀오신 어머니께서 나에게 특 던지신 한마디였다.

10년 전,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부터 나는 가톨릭에 입문하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나는 발바닥 신자라 할 만큼 어머니 눈치만 보며 그저 미사만 왔다 갔다 하는 식에 불과했다.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3년 동안 읽는 성서백주간을 하라니, 나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평소 어머니의 말씀에 토하나 달지 않았던 내가 나도 모르게 “저, 못해요 어머니!”라고 말했던 모습이 생각난다.

3년이 흐른 지금.

과연 나는 무얼 얻었으며 무얼 잃었을까?

잃은 건 하나도 없었다. 그제 3년이란 시간이 흘렀을 뿐.

주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어 주셨다.

3년이란 여정을 함께했던 아론 반 식구들.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삶의

고통과 기쁨들을 통해서 나는 내가 처한 그때그때의 현실이 얼마나 행복 속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항상 고마워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고통을 이겨내야만이 조그마한 행복도 크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성서가 가장 위대한 책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임을 나는 몰랐었다. 그랬기에 10년이 다 되도록 책꽂이에 고스란히 내팽개쳐 놓은 내가 아니었던가?

그런 나를, 그런 나의 성서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던 나의 주님. 지금에 와서야 나는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마태 7,7).

나는 그동안 청하지도 찾지도 문을 두드리며 살지도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서백주간을 통한 나의 모습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덤으로 얻어주신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3년 동안 가졌던 이 기쁨을 어디에서 채울지 생각해 보진대, 주님과 함께라면 이보다 더 큰 기쁨도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본다.

나에게 주님은

내 눈 밖에 계셨던 모든 분들을 내 맘 속으로 끌어주셨고

나에게 주님은

세상에 닫혀있던 내 맘을 열게 해 주셨으며

나에게 주님은

마지막을 처음으로 되돌려 주신

그런 분이셨다.

교구사목국 ‘성서백주간 체험담’
황경자 프란치스카(송천동 성당)

나눔이 있어 좋은 친구, 그런 친구를 찾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서로 허물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서로 올려줄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늘 환한 웃음과 두 팔로 아이를 보듬어 안고서 인사를 건네는 친구들의 밝고 맑음이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비록 말이 잘 통하지는 않지만 이젠 눈빛만으로도 가슴 깊이 묻어나는 감사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 이웃 안에서 ‘타인이 아닌 타인’으로 마음 한 켠 외로움과 그리움을 간직하며 지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사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도와 줄 수 있을 까’, ‘무엇이 가장 힘들까’라는 고민은 말 그대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삶의 고단함마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는 삶이 눈으로 보이건만 불편함마저 넉넉한 마음으로 내일의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건네는 이야기 속에서 남편에 대한 감사함과 아쉬움, 그리고 자녀에 대한 지극정성의 사랑과 미안함이 함께 묻어 있음을… 본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여성 결혼이민자 모든 친구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힘겨워 하는 아이들의 학교생활, 가족의 건강, 가족 간의 갈등 등 쉽지 않은 삶의 무거움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젊디 젊은 친구들이 왜 나이 먹은 아빠뻘 되는 남자들과 결혼했을까요, 저 친구의 남편은 뭐가 모자라서 국내에서 여자 못 고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여성과 무엇 때문에 저리도 늦게 결혼을 한 것일까요? 그들이 무슨 사연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무엇 무엇의 이유들 때문에 두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결혼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하며 살겠지!’라는 당연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슨 이유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결혼하여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습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친구를 찾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가족과 함께 잠깐 산책도 즐기고, 아이 간식도 함께 만들어 나누는, 특별함이 아닌 우리 일상의 모습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친구, 새로운 가족을 만나보길 희망합니다.

선녀머종합사회복지관

‘이제 내가 그들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중에서

미리보는 교구 게시판

1

- 사회복지후원회원 신년하례식: 1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 1차 초등부 어린이복사단 연수: 1월 4일(월)~5일(화) 해월리 피정의 집
- 교구 신년하례식: 1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중앙
- 사제 · 부제 서품자 피정: 1월 6일(수)~12일(화) 마산 트라피스트 수녀원
- 여성 제102차 꾸르실료: 1월 7일(목)~10일(주일) 천호 피정의 집
- 선택 144차 주말: 1월 8일(금)~10일(주일) 해월리 피정의 집
- 사제 · 부제 서품식: 1월 14일(목) 오전 10시 중앙
- 가정교리 중급 교사 연수: 1월 23일(토)~24일(주일) 오전 9시 30분 교구청
- 21차 초등부 신입교리교사학교: 1월 30일(토)~31일(주일) 해월리 피정의 집
- 혼인 강좌: 1월 31일(주일) 오전 9시 30분 교구청

2

- 신학교 신입생 피정: 2월 4일(목)~5일(금) 해월리 피정의 집
- 청년성서 상반기 만남의 잔치: 2월 7일(주일) 오후 2시 센터
- 농촌사목 월례미사: 2월 9일(화) 오후 3시 센터
- 무지개장학회 재단이사회: 2월 16일(화) 오후 3시 교구청
- 교구 기자단 교육 및 모임: 2월 21일(주일) 오후 4시 교구청
- 새사제 연수: 2월 25일(목) 오전 10시 교구청
- 사무장 전산연수: 2월 25일(목) 오전 10시 교구청
- 가톨릭신학원 입학미사: 2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신학원

미리보는 교구 게시판

- 본당 중·고등부 학생회장 리더십 교육 :

2월 27일(토)~28일(주일) 해월리 피정의 집

- 전주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상임위원회 연수 :

2월 27일(토)~28일(주일) 토마스 쉼터



- 교정사목후원회 군산 월례미사 : 3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미룡동
- 전반기 초등부 교리교사아카데미 : 3월 1일(월) 해월리 피정의 집
- 신학교 입학식 : 3월 7일(주일) 오전 11시 광주가톨릭대학교
- 성체분배권 교육 : 3월 11일(목) 오전 10시 교구청

- 전주 제3기 미디어포럼 지도자교육 : 3월 12일(금) 오후 2시 교구청
- 소공동체 봉사자(1단계)교육 : 3월 16일(화) 오후 2시 삼천동
- 좋은 어머니학교 1차 : 3월 20일(토) 오후 2시 교구청
- 성가복지회 이사회 : 3월 25일(목) 오후 3시
- 전주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 3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 가정상담 봉사자학교 1차 : 3월 29일(월) 오후 2시 교구청
- 사제성화의 해 성서 피정 : 3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센터

※ 사정에 따라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볼 만한 책. DVD



성경 시대의 음식

성경 시대의 음식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예수 시대에 이르기까지 요리 역사를 일별하면서 예수 시대의 식사 관습, 대추야자 · 석류 · 올리브 · 밀 · 보리 · 포도 · 무화과 등 성지 팔레스티나의 7가지 주요 농작물과 채소, 물고기와 해산물, 고기, 허브와 향신료 등 각종 식품들과 음식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미리암 파인버그 바머시 저 / 한정옥 옮김 / 바오로 딸



성경 시대의 여인들

성경 시대 여성들의 풍습과 생활을 소개하는 성경 묵상 자료로, 성경, 고대 근동 문헌, 탈무드, 미슈나, 초기 그리스도교 성경 해설서와 외경,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성경 시대 여인들의 역사를 살펴본다.

미리암 파인버그 바머시 저 / 김정훈 옮김 / 바오로 딸



예수 시대의 생활 풍습

성경과 친구할까?

예수 시대의 생활 풍습은 말 그대로 예수님 시대 생활 풍습을 그림과 사진, 지도를 곁들여 설명해주는 성경 공부 참고서.

미리암 파인버그 바머시 저 / 임숙희 옮김 / 바오로 딸



쌍백합을 읽고...

◆ 쌍백합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노력과 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쌍백합 제호처럼 하느님의 참사랑이 곳곳에 배어있는 마음의 묶음서. 마음 속 깊이 숨어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얻는 데 일조를 한 너무나 값진 책이다.

이형구대건 안드레아(솔내 성당)

◆ ‘쌍백합’을 손에 쥔 때마다 오랜 지기를 만난 듯 우선 반가움이 앞선다. 2003년 여름호를 창간으로 벌써 여섯 해를 넘겼으니 오뉴월 하루 별이 어딘가 정이 들 대로 들었다.

책을 펼치면 우선 마당(배움 · 나눔 · 알림)이 눈에 들어온다. 어느 잡지에서도 이런 마당처럼 골고루 맛보는 곳은 흔하지 않다. 그러나 쌍백합은 마당을 넓게 만들어 신앙의 먹을거리를 가득 쌓아 놓았으니 참 푸진 인심이다. 마당에 널린 글들이 다 알차고 좋았지만 특히 내 신앙에 큰 소득이었던 것은 쌍백합 제25호(2009/여름) 첫 장에 이병호 주교님의 소개로 실린 김창렬 바오로 주교님의 ‘팔자 고친 이야기’다. 성령쇄신에 대한 당신의 ‘신앙체험담’으로 28페이지에 걸친 상당한 장문인데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폭 빠져들게 되어 읽고 또 읽었다. 나중에는 몇 부를 복사해 놓고 친분이 있는 교우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큰 감동을 받은 글이다. 관념으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쌍백합이 잘 자라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야 할까,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뛰어 책을 만들고 독자들은 성실하게 애독하며 서로 잘 가꾼다면 ‘쌍백합’은 더 진한 향기를 오래 내뿜으리라.

최덕자 이사벨라(서곡 성당)

◆ 지난 가을호 농촌사목 특집을 잘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취재한 글을 보니 현장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농촌사목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홍명희 로마(서신동 성당)



‘쌍백합’의 내용을 읽어 보시고 느낀 좋은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합은 항상 귀를 크게 열어 놓고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이 보내는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게 들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흥보국 쌍백합 편집실 Tel 063-230-1037
E-mail : ssbh114@hanmail.net

하느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쌍백합

발행일 | 2009년 12월 20일
발행처 | 천주교 전주교구
발행인 | 이병호 주교
자문위원 | 유장훈 몬시뇰, 김환철 신부
 김봉희 신부, 김진소 신부
 윤양호 신부, 김선태 신부
 나궁렬 신부
주 간 | 서석희 신부
부 주 간 | 전화용 수녀
편집장 | 이덕자
편집위원 | 김계숙, 김재성, 박종희
 심연무, 안여진, 양선자
 유백영, 조은아, 한수미
 허 남
사 진 | 유백영, 이규현, 최경호
일 러 스톱 | 김영주
편집디자인 | 백 인
독자관리 | 김길순, 백선미

천주교 전주교구

☎ 560-1110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T. 063-230-1037

F. 063-283-9365

http://www.jcatholic.or.kr

e-mail : ssbh114@hanmail.net

인쇄 | 분도출판사

718-806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34-1

press@benedict.co.kr

값 2,500원

‘쌍백합’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쌍백합’이 2009년 겨울호(27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쌍백합’과 함께 참다운 삶과 신앙의 길을 걸을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쌍백합’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사랑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정기구독하실 분은 이번 호에 첨부된 정기구독 엽서 또는 홈페이지 jcatholic.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집후기

한 해가 기울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그러나 그 기다림마저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희망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도 기다림 끝에 열리는 법.

기다림은 곧 준비다. 준비한 만큼 더 이루고 바라는 만큼 희망이 이뤄지는 새해가 되었으면...

—편집위원 일동—



제호 글씨는 현유복 신부님(금마 성당 주임)께서 주셨습니다.